

E 11-2014-08

2014 제3권 제8호

해외곡물시장 동향

World Grain Marke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동향」은 농업관계자 및 일반인이 해외곡물시장을 이해하고 정부가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세계곡물시장 동향과 관련 정보, 주요 지표를 정리·분석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곡물시장 수급 및 가격동향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해외곡물시장정보 홈페이지(<http://grains.krei.re.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 당

성명환 연구위원 mhsung@krei.re.kr

이동소 연구원 petit211@krei.re.kr

손은애 연구원 32sea@krei.re.kr

TEL 02-3299-4322

FAX 02-960-0164

contents

03 해외곡물시장 동향

품목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 5
곡물 선물 7월 동향과 8월 전망 / 29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 45
원자재 및 에탄올시장 동향 / 58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 68

81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국제 곡물무역을 주도하는 다국적 농기업의 특성과 과제 / 83
호주 곡물 수출 유통 단계별 비용 분석 / 100

135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World Grain 곡물시장뉴스 / 137
해외곡물시장 뉴스 / 151

159 세계 농업기상 정보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 161

173 부록

세계 곡물 통계 / 175
국가별 귀리 통계 / 179





part

01

해외곡물시장 동향

2014 World Grain Market



품목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 5

곡물 선물 7월 동향과 8월 전망 / 29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 45

원자재 및 에탄올시장 동향 / 58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 68

품목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김민수(한국사료협회 과장)*

전 세계적으로 양호한 기상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세계 곡물 생산량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교역량 감소로 인하여 기말 재고율이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쌀의 경우 전년에 비해 생산량은 소폭 증가함에 반해, 교역량 증가로 상쇄되어 기말 재고량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밀의 경우 전년에 비해 생산량은 소폭 증가함에 반해, 교역량의 감소세가 더 커 기말 재고량의 증가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의 경우도 전년에 비해 생산량은 소폭 증가함에 반해, 교역량의 감소세가 더 커 기말 재고량의 증가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의 경우 교역량 증가보다 생산량의 증가폭이 더 커, 기말 재고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반구 주요 곡물 산지의 생육 상태는 이상적인 기후 조건으로 인하여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옥수수 및 대두의 최대 생산국인 미국의 곡물 작황 상태는 더없이 좋은 환경으로 인하여 생산량 전망치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해 나가고 있다. 그 이외의 지역 또한 곡물 생산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큰 지장이 없는 한 예년 이상의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 곡물 가격은 대폭 하락하여 저점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요 곡물 교역국 간의 교역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재고량 증가에 따른 수급 안정이 국제 곡물 가격 하락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역량 감소로 인하여 유희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해상 운송비의 절감 효과까지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 mskim@kofeed.org, 02-581-5730.

상기 펀더멘털적인 상황 이외에 거시 경제적 측면 역시 곡물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국제 곡물 가격에 연동하는 원자재 시장의 약세와 투기 세력의 이탈 현상으로 인하여 국제 곡물 가격은 하향 안정화 되어 가고 있다. 주요 곡물 전문 분석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국제 곡물 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한 곡물 가격 하락세가 충분히 국제 곡물 가격에 반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지목할 만한 이슈들(엘니뇨와 냉해 발생 우려, 우크라이나 정쟁에 따른 러시아와 서방국 간의 마찰에 따른 무역 분쟁, 이라크 내전 심화에 따른 국제유가 폭등 등)도 점차 불거져 나오고 있어 향후의 국제 곡물 가격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저점 가격대의 곡물 확보를 위한 노력은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다. 특히 적정 시기에 해외에서 곡물을 구매하기 위한 시점을 잡는다는 것이 녹록치 않은 일임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으나, 최근의 상황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더욱더 가중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처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이 국제 곡물과 연관 산업에 대한 발 빠른 정보 취득과 분석을 통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사항으로 전 세계의 곡물 수급상황에 대한 파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농무부가 지난 8월 12일자로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를 통해 주요 국가의 품목별 수급 상황을 살펴본다.

1. 세계 곡물 수급 및 전망

2014/15년 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호밀 및 잡곡 등을 합산한 세계 조곡의 생산량은 12억 6,781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반해 소비량은 12억 5,313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과 관련하여, 수출량은 1억 4,724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7.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량은 1억 4,504만 톤으로 4.0% 감소할 것

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말 재고량은 2억 2,211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7.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15년 세계 쌀 생산량은 4억 7,735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반해 소비량은 4억 8,209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과 관련하여, 수출량은 4,124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량은 3,871만 톤으로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말 재고량은 1억 539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15년 세계 밀 생산량은 7억 1,609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반해 소비량은 7억 679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과 관련하여, 수출량은 1억 5,180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8.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량은 1억 4,987만 톤으로 4.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말 재고량은 1억 9,296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15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9억 8,539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반해 소비량은 9억 6,867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과 관련하여, 수출량은 1억 1,586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7.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량은 1억 1,422만 톤으로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말 재고량은 1억 8,782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9.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15년 세계 대두 생산량은 3억 469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7.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반해 소비량은 2억 8,340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과 관련하여, 수출량은 1억 1,332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입량은 1억 1,055만 톤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말 재고량은 8,562만 톤으로 2013/14년 대비해서 2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세계 곡물 수급량

단위: 백만 톤

구분		기초 재고량	생산량	수입량	국내 소비량	수출량	재고량	재고비율
세계 조곡	14/15.8(A)	207.43	1267.81	145.04	1253.13	147.24	222.11	15.9
	14/15.7(B)	209.13	1261.17	144.79	1250.87	145.84	219.43	15.7
	13/14(C)	169.26	1274.30	151.13	1236.13	158.35	207.43	14.9
	증감률(A/B)	-0.8	0.5	0.2	0.2	1.0	1.2	
	증감률(A/C)	22.6	-0.5	-4.0	1.4	-7.0	7.1	
세계 쌀	14/15.8(A)	110.13	477.35	38.71	482.09	41.24	105.39	20.1
	14/15.7(B)	111.52	479.43	38.30	482.40	41.56	108.55	20.7
	13/14(C)	109.93	475.80	38.82	475.60	40.55	110.13	21.3
	증감률(A/B)	-1.2	-0.4	1.1	-0.1	-0.8	-2.9	
	증감률(A/C)	0.2	0.3	-0.3	1.4	1.7	-4.3	
세계 밀	14/15.8(A)	183.66	716.09	149.87	706.79	151.80	192.96	22.5
	14/15.7(B)	184.29	705.17	149.91	699.92	151.61	189.54	22.3
	13/14(C)	175.64	714.07	156.48	706.05	165.27	183.66	21.1
	증감률(A/B)	-0.3	1.5	0.0	1.0	0.1	1.8	
	증감률(A/C)	4.6	0.3	-4.2	0.1	-8.2	5.1	
세계 옥수수	14/15.8(A)	171.09	985.39	114.22	968.67	115.86	187.82	17.3
	14/15.7(B)	173.42	980.96	114.87	966.33	115.22	188.05	17.4
	13/14(C)	138.15	984.37	119.64	951.43	125.47	171.09	15.9
	증감률(A/B)	-1.3	0.5	-0.6	0.2	0.6	-0.1	
	증감률(A/C)	23.8	0.1	-4.5	1.8	-7.7	9.8	
세계 대두	14/15.8(A)	67.09	304.69	110.55	283.40	113.32	85.62	21.6
	14/15.7(B)	67.24	304.79	109.87	283.31	113.29	85.31	21.5
	13/14(C)	56.83	283.95	108.85	269.80	112.73	67.09	17.5
	증감률(A/B)	-0.2	0.0	0.6	0.0	0.0	0.4	
	증감률(A/C)	18.1	7.3	1.6	5.0	0.5	27.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2 AUG. 2014.

2. 쌀 수급 동향 및 전망

■ 기초 재고량

주요 국가의 쌀 기초 재고량 전망치는 전반적으로 전월 대비 감소함에 반해, 2013/14년 대비해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의 쌀 기초 재고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태국의 쌀 기초 재고량 또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의 쌀 기초 재고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대비해서는 브라질을 비롯한 파키스탄,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이집트의 쌀 기초 재고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태국, 일본 및 한국의 쌀 기초 재고량 또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의 쌀 기초 재고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주요국의 쌀 기초 재고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7월 (B)	2014/15, 8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1.16	1.06	1.06	-8.6	0.0
인도	25.44	25.23	25.23	-0.8	0.0
파키스탄	0.50	0.60	0.60	20.0	0.0
태국	12.81	13.81	13.69	6.9	-0.9
베트남	0.86	1.16	1.16	34.9	0.0
브라질	0.53	0.83	0.68	28.3	-18.1
인도네시아	6.48	6.68	5.38	-17.0	-19.5
필리핀	1.49	1.90	1.90	27.5	0.0
미얀마	0.55	0.71	0.71	29.1	0.0
중국	46.83	46.28	46.70	-0.3	0.9
이집트	0.43	0.53	0.53	23.3	0.0
일본	2.74	2.82	2.82	2.9	0.0
한국	0.74	0.78	0.78	5.4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2 AUG, 2014.

■ 생산량

주요 국가의 쌀 생산량 전망치는 전반적으로 전월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13/14년 대비해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미국의 쌀 생산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대비해서는 미국의 쌀 생산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파키스탄을 비롯한 태국, 베트남, 브라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중국, 이집트의 쌀 생산량 또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도를 비롯한 일본, 한국의 쌀 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주요국의 쌀 생산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7월 (B)	2014/15. 8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6.12	7.23	7.32	19.6	1.2
인도	106.29	104.00	103.00	-3.1	-1.0
파키스탄	6.60	6.70	6.70	1.5	0.0
태국	20.46	20.50	20.50	0.2	0.0
베트남	28.00	28.20	28.20	0.7	0.0
브라질	8.30	8.50	8.35	0.6	-1.8
인도네시아	36.00	37.70	37.00	2.8	-1.9
필리핀	11.81	12.20	12.20	3.3	0.0
미얀마	11.96	12.15	12.15	1.6	0.0
중국	142.53	144.00	144.00	1.0	0.0
이집트	4.88	4.90	4.90	0.4	0.0
일본	7.83	7.70	7.70	-1.7	0.0
한국	4.23	4.15	4.15	-1.9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2 AUG, 2014.

■ 소비량

주요 국가의 쌀 소비량은 전반적으로 전월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13/14년 대비해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미국의 쌀 소비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브라질의 쌀 소비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3/14년 대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인도, 파키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중국, 이집트의 쌀 소비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본 및 한국의 쌀 소비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주요국의 쌀 소비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7월 (B)	2014/15. 8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3.93	4.26	4.29	9.2	0.7
인도	96.50	98.00	98.00	1.6	0.0
파키스탄	2.63	2.70	2.70	2.7	0.0
태국	10.88	10.90	10.90	0.2	0.0
베트남	21.50	21.50	21.50	0.0	0.0
브라질	7.90	7.95	7.90	0.0	-0.6
인도네시아	38.50	39.20	39.20	1.8	0.0
필리핀	12.85	13.20	13.20	2.7	0.0
미얀마	10.50	11.00	11.00	4.8	0.0
중국	146.30	148.00	148.00	1.2	0.0
이집트	4.00	4.10	4.10	2.5	0.0
일본	8.25	8.20	8.20	-0.6	0.0
한국	4.61	4.59	4.59	-0.4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2 AUG, 2014.

■ 교역량

주요 국가의 쌀 수출량은 전반적으로 전월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13/14년 대비해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미

국의 쌀 수출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인도의 쌀 수출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대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태국의 쌀 수출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베트남의 쌀 수출량 또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도의 쌀 수출량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주요국의 쌀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7월 (B)	2014/15. 8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3.01	3.42	3.49	15.9	2.0
인도	10.00	9.00	8.70	-13.0	-3.3
파키스탄	3.90	3.90	3.90	0.0	0.0
태국	9.00	10.00	10.00	11.1	0.0
베트남	6.50	6.70	6.70	3.1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2 AUG, 2014.

주요 국가의 쌀 수입량은 전반적으로 전월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13/14년 대비해서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2013/14년 대비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필리핀의 쌀 수입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EU 및 서남아시아의 쌀 수입량 또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쌀 수입량은 2013/14년 대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주요국의 쌀 수입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7월 (B)	2014/15. 8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브라질	0.70	0.70	0.70	0.0	0.0
EU-27	1.35	1.40	1.40	3.7	0.0
인도네시아	1.40	1.00	1.00	-28.6	0.0
나이지리아	3.00	3.50	3.50	16.7	0.0
필리핀	1.45	1.60	1.60	10.3	0.0
서남아시아	4.33	4.48	4.48	3.5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2 AUG, 2014.

■ 기말 재고량 및 재고율

주요 국가의 쌀 기말 재고량은 전반적으로 전월 및 2013/14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의 쌀 기말 재고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도의 쌀 기말 재고량 또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의 쌀 기말 재고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대비해서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인도, 미얀마의 쌀 기말 재고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태국을 비롯한 중국, 이집트, 한국 역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베트남을 비롯한 미국, 파키스탄, 브라질, 필리핀의 쌀 기말 재고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 주요국의 쌀 기말 재고량(재고율)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7월 (B)	2014/15. 8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1.06 (15.3%)	1.27 (16.5%)	1.27 (16.3%)	19.8 (1.0%p)	0.0 (-0.2%p)
인도	25.23 (23.7%)	22.23 (20.8%)	21.53 (20.2%)	-14.7 (-3.5%p)	-3.1 (-0.6%p)
파키스탄	0.60 (9.2%)	0.73 (11.1%)	0.73 (11.1%)	21.7 (1.9%p)	0.0 (0.0%p)
태국	13.69 (68.9%)	13.71 (65.6%)	13.59 (65.0%)	-0.7 (-3.9%p)	0.0 (-0.6%p)
베트남	1.16 (4.1%)	1.56 (5.5%)	1.56 (5.5%)	34.5 (1.4%p)	0.0 (0.0%p)
브라질	0.68 (7.7%)	1.18 (13.3%)	0.93 (10.5%)	36.8 (2.8%p)	-21.2 (-2.8%p)
인도네시아	5.38 (14.0%)	6.18 (15.8%)	4.18 (10.7%)	-22.3 (-3.3%p)	-32.4 (-5.1%p)
필리핀	1.90 (14.8%)	2.50 (18.9%)	2.50 (18.9%)	31.6 (4.1%p)	0.0 (0.0%p)
미얀마	0.71 (6.0%)	0.56 (4.6%)	0.56 (4.6%)	-21.1 (-1.4%p)	0.0 (0.0%p)
중국	46.70 (31.9%)	45.63 (30.8%)	46.05 (31.0%)	-1.4 (-0.9%p)	0.9 (0.2%p)
이집트	0.53 (11.0%)	0.52 (10.4%)	0.52 (10.4%)	-1.9 (-0.6%p)	0.0 (0.0%p)
일본	2.82 (33.4%)	2.82 (33.6%)	2.82 (33.6%)	0.0 (0.2%p)	0.0 (0.0%p)
한국	0.78 (16.9%)	0.75 (16.3%)	0.75 (16.3%)	-3.8 (-0.6%p)	0.0 (0.0%p)

주: 괄호 안은 기말 재고율과 기말 재고율의 변동폭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2 AUG, 2014.

3. 밀 수급 동향 및 전망

■ 기초 재고량

주요 국가의 밀 기초 재고량은 전반적으로 전월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13/14년 대비해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캐나다, EU, 러시아, 중국의 밀 기초 재고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2013/14년 대비 남미 국가를 비롯한 캐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호주, 중국의 밀 기초 재고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미국, 인도의 밀 기초 재고량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EU의 밀 기초 재고량 또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8. 주요국의 밀 기초 재고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7월 (B)	2014/15, 8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19.54	16.05	16.05	-17.9	0.0
캐나다	5.05	9.29	8.99	78.0	-3.2
아르헨티나	0.29	2.74	2.74	844.8	0.0
브라질	1.00	1.80	1.80	80.0	0.0
EU-27	10.56	10.18	10.09	-4.5	-0.9
러시아	4.95	5.74	5.54	11.9	-3.5
카자흐스탄	2.94	1.69	1.69	-42.5	0.0
우크라이나	2.58	3.96	3.81	47.7	-3.8
호주	4.65	5.37	5.37	15.5	0.0
인도	24.20	17.83	17.83	-26.3	0.0
중국	53.96	58.39	58.27	8.0	-0.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2 AUG, 2014.

■ 생산량

주요 국가의 밀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전월 및 2013/14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러시아의 밀 생산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중국의 밀 생산량 또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3/14년 대비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브라질, 러시아의 밀 생산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EU, 인도, 중국의 밀 생산량 또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캐나다의 밀 생산량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호주의 밀 생산량 또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9. 주요국의 밀 생산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7월 (B)	2014/15. 8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57.96	54.21	55.24	-4.7	1.9
캐나다	37.50	28.00	28.00	-25.3	0.0
아르헨티나	10.50	12.50	12.50	19.0	0.0
브라질	5.30	6.30	6.30	18.9	0.0
EU-27	143.13	147.88	147.87	3.3	0.0
러시아	52.09	53.00	59.00	13.3	11.3
카자흐스탄	13.94	13.50	13.50	-3.2	0.0
우크라이나	22.28	21.00	22.00	-1.3	4.8
호주	27.01	26.00	26.00	-3.7	0.0
인도	93.51	95.85	95.85	2.5	0.0
중국	121.93	124.00	126.00	3.3	1.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2 AUG, 2014.

■ 소비량

주요 국가의 밀 소비량은 전반적으로 전월 및 2013/14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미국, 브라질, EU,

러시아, 인도의 밀 소비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카자흐스탄의 밀 소비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대비해서는 EU를 비롯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의 밀 소비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 호주, 중국의 밀 소비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밀 소비량의 20%를 차지하는 사료용 밀 소비량 또한 전월 및 2013/14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미국, EU, 러시아의 사료용 밀 소비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카자흐스탄의 사료용 밀 소비량은 전월 대비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3/14년 대비해서는 EU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사료용 밀 소비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러시아의 사료용 밀 소비량 또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의 사료용 밀 소비량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호주, 인도, 중국의 사료용 밀 소비량 또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0. 주요국의 밀 소비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7월 (B)	2014/15, 8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34.03 (6.08)	32.14 (3.95)	32.41 (4.22)	-4.8 (-30.6)	0.8 (6.8)
캐나다	11.20 (6.00)	9.75 (4.50)	9.75 (4.50)	-12.9 (-25.0)	0.0 (0.0)
아르헨티나	6.05 (0.10)	6.15 (0.10)	6.15 (0.10)	1.7 (0.0)	0.0 (0.0)
브라질	11.40 (0.60)	11.60 (0.60)	11.90 (0.60)	4.4 (0.0)	2.6 (0.0)
EU-27	116.00 (48.00)	123.00 (54.50)	125.50 (57.00)	8.2 (18.8)	2.0 (4.6)
러시아	34.00 (12.50)	33.50 (12.00)	34.50 (13.00)	1.5 (4.0)	3.0 (8.3)
카자흐스탄	6.80 (2.00)	6.80 (2.00)	6.80 (2.00)	0.0 (0.0)	-6.8 (-20.0)
우크라이나	11.50 (3.40)	11.50 (3.50)	12.00 (4.00)	4.3 (17.6)	4.3 (14.3)
호주	6.95 (3.60)	6.80 (3.40)	6.80 (3.40)	-2.2 (-5.6)	0.0 (0.0)

국가	2013/14 (A)	2014/15. 7월 (B)	2014/15. 8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인도	94.01 (4.80)	93.90 (4.50)	94.40 (4.50)	0.4 (-6.3)	0.5 (0.0)
중국	123.50 (23.00)	122.00 (21.00)	122.00 (21.00)	-1.2 (-8.7)	0.0 (0.0)

주: 괄호 안은 사료용 소비량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2 AUG, 2014.

■ 교역량

주요 국가의 밀 수출량은 전반적으로 전월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13/14년 대비해서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러시아의 밀 수출량이 대폭 증가한 가운데, 미국의 밀 수출량 또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EU 및 인도의 밀 수출량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3/14년 대비해서는 인도를 비롯한 미국, EU, 카자흐스탄의 밀 수출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캐나다, 우크라이나, 호주의 밀 수출량 또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르헨티나의 밀 수출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 주요국의 밀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7월 (B)	2014/15. 8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32.01	24.49	25.17	-21.4	2.8
캐나다	22.80	21.00	21.00	-7.9	0.0
아르헨티나	2.00	6.50	6.50	225.0	0.0
EU-27	31.50	28.00	25.00	-20.6	-10.7
러시아	18.50	19.50	22.50	21.6	15.4
카자흐스탄	8.40	6.00	6.00	-28.6	0.0
우크라이나	9.65	9.00	9.00	-6.7	0.0
호주	19.50	19.00	19.00	-2.6	0.0
인도	5.90	3.50	3.00	-49.2	-14.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2 AUG, 2014.

주요 국가의 밀 수입량은 전반적으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2013/14년 대비해서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 대비 중국의 밀 수입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아프리카의 밀 수입량 또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밀 수입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대비해서는 중국의 밀 수입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브라질,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의 밀 수입량 또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남아시아의 밀 수입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2. 주요국의 밀 수입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7월 (B)	2014/15, 8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브라질	7.00	6.50	6.50	-7.1	0.0
중국	6.77	3.00	2.00	-70.5	-33.3
서남아시아	20.62	19.48	20.38	-1.2	4.6
북아프리카	24.85	23.30	22.80	-8.2	-2.1
동남아시아	16.41	16.40	16.60	1.2	1.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2 AUG, 2014.

■ 기말 재고량 및 재고율

주요 국가의 밀 기말 재고량은 전반적으로 전월 및 2013/14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미국, EU, 중국의 밀 기말 재고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브라질 및 캐나다의 밀 기말 재고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3/14년 대비해서는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미국, 브라질, EU,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밀 기말 재고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호주를 비롯한 중국의 밀 기말 재고량 또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캐나다의 밀 기말 재고량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르헨티나와 인도의 밀 기말 재고량 또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13. 주요국의 밀 기말 재고량(재고율)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7월 (B)	2014/15. 8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16.05 (24.3%)	17.97 (31.7%)	18.05 (31.3%)	12.5 (7.0%p)	0.4 (-0.4%p)
캐나다	8.99 (26.4%)	7.02 (22.8%)	6.72 (21.9%)	-25.3 (-4.5%p)	-4.3 (-0.9%p)
아르헨티나	2.74 (34.0%)	2.60 (20.6%)	2.60 (20.6%)	-5.1 (-13.4%p)	0.0 (0.0%p)
브라질	1.80 (15.7%)	2.50 (20.7%)	2.20 (17.7%)	22.2 (2.0%p)	-12.0 (-3.0%p)
EU-27	10.09 (6.8%)	12.05 (8.0%)	12.96 (8.6%)	28.4 (1.8%p)	7.6 (0.6%p)
러시아	5.54 (10.6%)	6.94 (13.1%)	8.24 (14.5%)	20.9 (3.9%p)	0.0 (1.4%p)
카자흐스탄	1.69 (11.1%)	2.39 (18.7%)	2.39 (18.7%)	41.4 (7.6%p)	0.0 (0.0%p)
우크라이나	3.81 (18.0%)	4.56 (22.2%)	4.91 (23.4%)	28.9 (5.4%p)	7.7 (1.2%p)
호주	5.37 (20.3%)	5.72 (22.2%)	5.72 (22.2%)	6.5 (1.9%p)	0.0 (0.0%p)
인도	17.83 (17.8%)	16.30 (16.7%)	16.30 (16.7%)	-8.6 (-1.1%p)	0.0 (0.0%p)
중국	58.27 (46.8%)	62.39 (50.7%)	63.27 (51.4%)	8.6 (4.6%p)	1.4 (0.7%p)

주: 괄호 안은 기말 재고율과 기말 재고율의 변동폭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2 AUG. 2014.

4.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 기초 재고량

주요 국가의 옥수수 기초 재고량은 전반적으로 전월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2013/14년 대비해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미국, 캐나다, EU의 옥수수 기초 재고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남아프리카의 옥수수 기초 재고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3/14년 대비해서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미국, 캐나다, 브라질,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기초 재고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EU를 비롯한 남아프리카, 중국의 옥수수 기초 재고량 또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4. 주요국의 옥수수 기초 재고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7월 (B)	2014/15, 8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20.86	31.66	30.01	43.9	-5.2
캐나다	1.55	2.45	2.40	54.8	-2.0
아르헨티나	1.32	3.53	3.53	167.4	0.0
브라질	14.15	17.45	17.45	23.3	0.0
EU-27	5.09	5.96	5.38	5.7	-9.7
우크라이나	1.19	2.24	2.24	88.2	0.0
남아프리카	3.06	3.09	3.34	9.2	8.1
중국	67.57	77.46	77.46	14.6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2 AUG, 2014.

■ 생산량

주요 국가의 옥수수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전월 및 2013/14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미국을 비롯한 EU의 옥수수 생산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대비해서는 캐나다와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생산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브라질, 남아프리카의 옥수수 생산량 또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미국, EU,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5. 주요국의 옥수수 생산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7월 (B)	2014/15, 8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353.72	352.06	356.43	0.8	1.2
캐나다	14.20	11.60	11.60	-18.3	0.0
아르헨티나	24.00	26.00	26.00	8.3	0.0
브라질	78.00	74.00	74.00	-5.1	0.0
EU-27	63.99	65.64	67.05	4.8	2.1
우크라이나	30.90	27.00	27.00	-12.6	0.0
남아프리카	14.75	13.50	13.50	-8.5	0.0
중국	218.49	222.00	222.00	1.6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2 AUG, 2014.

■ 소비량

주요 국가의 옥수수 소비량은 전반적으로 전월 및 2013/14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미국을 비롯한 남아프리카의 옥수수 소비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EU의 옥수수 소비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3/14년 대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 중국의 옥수수 소비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EU의 옥수수 소비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옥수수 소비량의 60%를 차지하는 사료용 옥수수 소비량 또한 전월 및 2013/14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미국을 비롯한 남아프리카의 사료용 옥수수 소비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EU의 사료용 옥수수 소비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3/14년 대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 중국의 사료용 옥수수 소비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캐나다를 비롯한 EU의 사료용 옥수수 소비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6. 주요국의 옥수수 소비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7월 (B)	2014/15, 8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296.69 (131.45)	295.54 (132.09)	297.45 (133.36)	0.3 (1.5)	0.6 (1.0)
캐나다	12.20 (6.80)	12.20 (6.70)	12.20 (6.70)	0.0 (-1.5)	0.0 (0.0)
아르헨티나	8.30 (5.50)	9.00 (6.00)	9.00 (6.00)	8.4 (9.1)	0.0 (0.0)
브라질	55.00 (46.00)	56.50 (47.50)	56.50 (47.50)	2.7 (3.3)	0.0 (0.0)
EU-27	77.00 (58.50)	76.50 (57.50)	74.50 (55.50)	-3.2 (-5.1)	-2.6 (-3.5)
우크라이나	9.90 (8.50)	10.90 (9.50)	10.90 (9.50)	10.1 (11.8)	0.0 (0.0)
남아프리카	11.50 (5.40)	11.40 (5.30)	11.80 (5.60)	2.6 (3.7)	3.5 (5.7)
중국	212.00 (154.00)	222.00 (162.00)	222.00 (162.00)	4.7 (5.2)	0.0 (0.0)

주: 괄호 안은 사료용 소비량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2 AUG, 2014.

■ 교역량

주요 국가의 옥수수 수출량은 전반적으로 전월 대비 증가함에 반해, 2013/14년 대비해서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미국의 옥수수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대비해서는 캐나다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의 옥수수 수출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브라질, EU의 옥수수 수출량 또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수출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7. 주요국의 옥수수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7월 (B)	2014/15. 8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48.77	43.18	43.82	-10.1	1.5
캐나다	1.55	1.00	1.00	-35.5	0.0
아르헨티나	13.50	16.00	16.00	18.5	0.0
브라질	20.50	20.00	20.00	-2.4	0.0
EU-27	2.20	2.00	2.00	-9.1	0.0
우크라이나	20.00	16.00	16.00	-20.0	0.0
남아프리카	3.00	2.20	2.20	-26.7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2 AUG, 2014.

주요 국가의 옥수수 수입량은 전반적으로 전월 및 2013/14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EU의 옥수수 수입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대비 EU를 비롯한 중국, 이집트의 옥수수 수입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의 옥수수 수입량 또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을 비롯한 멕시코의 옥수수 수입량은 2013/14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18. 주요국의 옥수수 수입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7월 (B)	2014/15. 8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EU-27	15.50	13.00	11.00	-29.0	-15.4
중국	3.50	3.00	3.00	-14.3	0.0
일본	15.50	16.00	16.00	3.2	0.0
한국	10.00	9.50	9.50	-5.0	0.0
멕시코	10.70	10.90	10.90	1.9	0.0
이집트	8.00	6.50	6.50	-18.8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2 AUG, 2014.

■ 기말 재고량 및 재고율

주요 국가의 옥수수 기말 재고량은 전반적으로 전월 대비 감소함에 반해, 2013/14년 대비해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캐나다 및 남아프리카의 옥수수 기말 재고량이 소폭 감소함에 반해, EU를 비롯한 미국의 옥수수 기말 재고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3/14년 대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EU의 옥수수 기말 재고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및 중국의 옥수수 기말 재고량 또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캐나다의 옥수수 기말 재고량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브라질을 비롯한 남아프리카의 옥수수 기말 재고량 또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19. 주요국의 옥수수 기말 재고량(재고율)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7월 (B)	2014/15. 8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30.01 (8.7%)	45.76 (13.5%)	45.93 (13.5%)	53.0 (4.8%p)	0.4 (0.0%p)
캐나다	2.40 (17.5%)	1.35 (10.2%)	1.30 (9.8%)	-45.8 (-7.7%p)	-3.7 (-0.4%p)
아르헨티나	3.53 (16.2%)	4.54 (18.2%)	4.54 (18.2%)	28.6 (2.0%p)	0.0 (0.0%p)
브라질	17.45	15.75	15.75	-9.7	0.0

국가	2013/14 (A)	2014/15. 7월 (B)	2014/15. 8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EU-27	(23.1%)	(20.6%)	(20.6%)	(-2.5%p)	(0.0%p)
	5.38	6.11	6.93	28.8	13.4
	(6.8%)	(7.8%)	(9.1%)	(2.3%p)	(1.3%p)
우크라이나	2.24	2.39	2.39	6.7	0.0
	(7.5%)	(8.9%)	(8.9%)	(1.4%p)	(0.0%p)
남아프리카	3.34	3.02	2.86	-14.4	-5.3
	(23.0%)	(22.2%)	(20.4%)	(-2.6%p)	(-1.8%p)
중국	77.46	80.36	80.36	3.7	0.0
	(36.5%)	(36.2%)	(36.2%)	(-0.3%p)	(0.0%p)

주: 괄호 안은 기말 재고율과 기말 재고율의 변동폭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2 AUG, 2014.

5.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 기초 재고량

주요 국가의 대두 기초 재고량은 전반적으로 전월 및 2013/14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아르헨티나의 대두 기초 재고량은 소폭 증가함에 반해, 브라질의 대두 기초 재고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3/14년 대비 EU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의 대두 기초 재고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브라질을 비롯한 중국의 대두 기초 재고량 또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의 대두 기초 재고량은 2013/14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0. 주요국의 대두 기초 재고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7월 (B)	2014/15. 8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3.83	3.82	3.82	-0.3	0.0
아르헨티나	22.40	28.55	28.63	27.8	0.3
브라질	15.33	17.66	17.11	11.6	-3.1
EU-27	0.25	0.64	0.64	156.0	0.0
중국	12.38	13.29	13.29	7.4	0.0
일본	0.18	0.18	0.18	0.0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2 AUG, 2014.

■ 생산량

주요 국가의 대두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2013/14년 대비해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미국을 비롯한 EU의 대두 생산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대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EU의 대두 생산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브라질 및 일본의 대두 생산량 또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의 대두 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 주요국의 대두 생산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7월 (B)	2014/15, 8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89.51	103.42	103.85	16.0	0.4
아르헨티나	54.00	54.00	54.00	0.0	0.0
브라질	87.50	91.00	91.00	4.0	0.0
EU-27	1.23	1.43	1.47	19.5	2.8
중국	12.20	12.00	12.00	-1.6	0.0
일본	0.20	0.21	0.21	5.0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2 AUG, 2014.

■ 소비량

주요 국가의 대두 소비량은 전반적으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2013/14년 대비해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EU의 대두 소비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대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EU, 중국의 대두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일본의 대두 소비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대두 소비량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착유용 대두 소비량 또한 전반적으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2013/14년 대비해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EU의 착유용 대두 소비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대비해서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미국, 브라질, EU, 중

국의 착유용 대두 소비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의 착유용 대두 소비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2. 주요국의 대두 소비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7월 (B)	2014/15. 8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47.06 (46.95)	50.78 (47.76)	50.78 (47.76)	7.9 (1.7)	0.0 (0.0)
아르헨티나	39.28 (37.23)	41.90 (39.80)	41.90 (39.80)	6.7 (6.9)	0.0 (0.0)
브라질	39.98 (37.00)	40.10 (37.10)	40.10 (37.10)	0.3 (0.3)	0.0 (0.0)
EU-27	13.43 (12.50)	13.61 (12.63)	13.64 (12.66)	1.6 (1.3)	0.2 (0.2)
중국	80.05 (68.75)	84.90 (73.50)	84.90 (73.50)	6.1 (6.9)	0.0 (0.0)
일본	3.08 (1.99)	3.01 (1.95)	3.01 (1.95)	-2.3 (-2.0)	0.0 (0.0)

주: 괄호 안은 착유용 소비량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2 AUG, 2014.

■ 교역량

주요 국가의 대두 수출량은 전반적으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2013/14년 대비해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2013/14년 대비 미국의 대두 수출량은 소폭 증가함에 반해, 브라질의 대두 수출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 주요국의 대두 수출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7월 (B)	2014/15. 8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44.63	45.59	45.59	2.2	0.0
아르헨티나	8.50	8.50	8.50	0.0	0.0
브라질	46.30	45.00	45.00	-2.8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2 AUG, 2014.

주요 국가의 대두 수입량은 전반적으로 전월 및 2013/14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2013/14년 대비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소폭 증가함에 반해, EU 및 일본의 대두 수입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 주요국의 대두 수입량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7월 (B)	2014/15. 8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EU-27	12.65	12.50	12.50	-1.2	0.0
중국	69.00	73.00	73.00	5.8	0.0
일본	2.87	2.80	2.80	-2.4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2 AUG, 2014.

■ 기말 재고량 및 재고율

주요 국가의 대두 기말 재고량은 전반적으로 전월 및 2013/14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미국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EU의 대두 기말 재고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반해, 브라질의 대두 기말 재고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3/14년 대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브라질, EU의 대두 기말 재고량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아르헨티나의 대두 기말 재고량 또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을 비롯한 일본의 대두 기말 재고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5. 주요국의 대두 기말 재고량(재고율)

단위: 백만 톤

국가	2013/14 (A)	2014/15. 7월 (B)	2014/15. 8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미국	3.82 (4.2%)	11.28 (11.7%)	11.71 (12.2%)	206.5 (8.0%p)	3.8 (0.5%p)
아르헨티나	28.63 (59.9%)	32.16 (63.8%)	32.23 (63.9%)	12.6 (4.0%p)	0.2 (0.1%p)
브라질	17.11 (19.8%)	24.06 (28.3%)	23.51 (27.6%)	37.4 (7.8%p)	-2.3 (-0.7%p)
EU-27	0.64	0.88	0.90	40.6	2.3

국가	2013/14 (A)	2014/15. 7월 (B)	2014/15. 8월 (C)	증감률(%)	
				전년 대비 (C/A)	전월 대비 (C/B)
중국	(4.7%)	(6.4%)	(6.6%)	(1.9%p)	(0.2%p)
	13.29	13.09	13.09	-1.5	0.0
	(16.6%)	(15.4%)	(15.4%)	(-1.2%p)	(0.0%p)
일본	0.18	0.17	0.17	-5.6	0.0
	(5.8%)	(5.6%)	(5.6%)	(-0.2%p)	(0.0%p)

주: 괄호 안은 기말 재고율과 기말 재고율의 변동폭임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32 AUG, 2014.

곡물 선물 7월 동향과 8월 전망

임호상(삼성선물 리서치팀 책임연구위원)*

7월 곡물 선물 시장은 7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월 대비 근월물 기준으로 옥수수 선물이 -13.4%, 대두 -6.3%, 소맥 -7.9%를 기록하며 지난 6월말 대비 추가적으로 급락하고 마감했다. 이는 1) 7월 1일 발표된 작부 면적 조사에서 대두/소맥의 작부 면적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고, 2) 미국 농무부의 6월 월간 수급전망에 이어, 7월 11일에 발표된 7월 월간 수급전망에서도 2014/2015년 곡물연도의 미국산 기말재고율이 옥수수가 6월의 12.9%에서 7월에는 13.5%로, 대두가 6월의 9.4%에서 7월에는 11.7%로, 소맥이 6월의 27.1%에서 7월에는 31.7%로 증가한 점, 3) 미국 재배지역의 작황 개선 흐름이 이어진 점 등이 곡물 선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8월 곡물 선물 시장은 최근 가격 반등은 가격 급락으로 인한 기술적 반등 수준의 움직임인 관계로, 향후 작황 개선에 따른 가격 조정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동안의 가격 급락으로 적정 가격에 대한 인식 속에 그 낙폭은 제한되며 레인지 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특히 옥수수와 대두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시장이 우려했던 정도로 상향 수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 같은 부분을 선반영 해온 부분이 가격 하락을 제한할 부분이다.

옥수수는 8월 미 농무부 수급전망에서 미국산의 2014/15년도 기말재고율이 소폭 하향 수정되고, 2013/14년도 기말재고율은 9.2%에서 8.7%로 하향 수정됨에 따라 가격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대두는 2013/14, 2014/15년도 곡물 연도 모두 글로벌/미국 기말재고율이 상향

* hosang.lim@samsung.com, 02-3707-3621.

수정됨에 따라 가격 조정 흐름은 이어질 전망. 다만 가격 하락 시에는 중국의 대형 구매 수요가 확인되고 있는 점이 가격 낙폭을 제한할 전망이다.

소맥은 2014/15년도 미국산 기말재고율 하향 수정에도 글로벌 기말재고 증가 전망이 이를 상쇄하고, 봄 소맥 작황 개선 흐름 속에 가격 반등 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1. 곡물선물 7월 동향 : 7월 미 농무부 기말재고 상황 수정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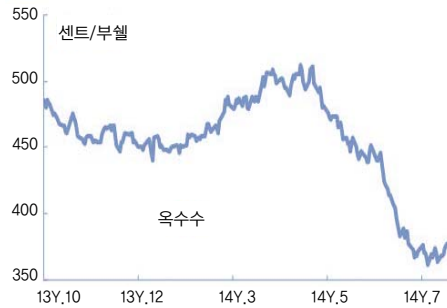
표 1. 7월 주요 상품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7.31일 종가 기준)

품목	옥수수	대두	소맥	원당	원면	원유
전년말비 (%)	-18.6%	-4.3%	-14.0%	-3.7%	-20.0%	+3.0%
전월말비 (%)	-13.4%	-6.3%	-7.9%	-8.9%	-14.5%	-6.9%

미국 곡물 선물은 7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월 대비 근월물 기준으로 옥수수 선물이 -13.4%, 대두 -6.3%, 소맥 -7.9%를 기록하며 지난 6월말 대비 추가적으로 급락하고 마감했다. 이는 1) 7월 1일 발표된 작부 면적 조사에서 대두/소맥의 작부 면적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고, 2) 미국 농무부의 6월 월간 수급전망에 이어 7월 11일에 발표된 7월 월간 수급전망에서도 2014/2015년 곡물연도의 미국산 기말재고율이 옥수수가 6월의 12.9%에서 7월에는 13.5%로, 대두가 6월의 9.4%에서 7월에 11.7%로, 소맥이 6월의 27.1%에서 7월에 31.7%로 증가, 3) 미국 재배지역의 작황 개선 흐름이 이어진 점 등이 곡물 선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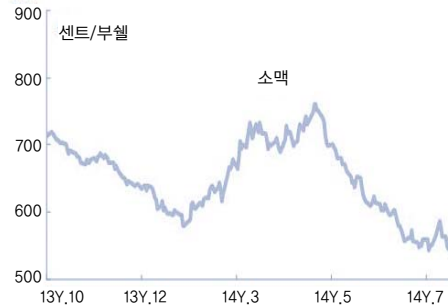
옥수수는 기본적으로 7월 말 기준 주간 Crop Progress 보고에서 1) 옥수수 작황 G/E비율이 73%로 전년도를 상회하고, 2) 受粉 진척도가 90%로 전주 78% 및 5년 평균 83% 상회, 3) Dough가 36%로 전주 17% 및 5년 평균 29% 상회 등 작황 개선이 이어지며 가격 조정 흐름이 이어졌다.

그림 1. 옥수수 선물 가격 추이



자료: 블룸버그

그림 2. 소맥 선물 가격 추이



소맥은 무엇보다도 미 농무부의 6월 수급 전망에서 2014/15년도 글로벌 기말재고율이 5월의 26.9%에서 27.0%로 상향 수정되고, 미국산 소맥의 2014/15년도 기말재고율도 5월의 25.0%에서 27.1%로 상향 수정된 상황인 가운데, 7월 11일에 발표된 2014/15년도 미국의 기말재고율이 6월의 27.1%에서 7월에는 31.7%로 큰 폭으로 상향 수정된 점이 소맥 선물 가격의 낙폭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두도 7월말 기준 Crop Progress 보고에서, 1) 개화율이 85%로 5년 평균치 83% 상회, 2) Setting Pods 진척률이 57%로 전주의 38% 상회 및 5년 평균치 48% 상회 등 전반적인 작황 개선 흐름이 이어진 것이 대두 가격의 낙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림 3. 대두 선물 가격 추이



자료: 블룸버그

그림 4. 생우 선물 가격 추이



표 2. 주요 농산물 선물 가격 및 거래량 변화 추이(8.15. 종가 기준)

상품	현재	전주말	주간 변동	주간변 동률	전원말 대비(%)	전년 대비(%)	거래량	거래량 증감	미결제 약정	미결제 약정 증감
옥수수	377	363.8	13.25	3.6%	4%	-16.4%	932,343	283,040	754,945	82,562
대두	1,049	1,080.0	-31	-2.9%	-3%	-7.2%	549,794	110,574	409,147	10,617
소맥	563.75	565.0	-1.25	-0.2%	0%	-11.9%	332,151	80,488	219,852	53,968
대두유	33.21	35.8	-2.59	-7.2%	-7%	-17.0%	256,525	72,001	204,873	6,422
원면	64.38	64.2	0.21	0.3%	0%	-17.9%	54,869	4,905	114,874	-3,561
원당	15.94	16.2	-0.21	-1.3%	-1%	-6.7%	204,185	-61,696	453,811	-2,937
커피	192.65	185.4	7.3	3.9%	4%	60.4%	82,799	24,921	90,672	21,821
돈지육	94.925	99.5	-4.575	-4.6%	-5%	13.3%	110,996	15,152	93,884	-2,379
생우	148.425	150.0	-1.575	-1.1%	-1%	13.5%	130,575	26,789	145,941	-9,220

2. 곡물 선물 8월 전망

■ 곡물 선물 시장 외부 환경: 미 달러화 강세 요인 지속은 조정 요인

외환시장은 1) 미 7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의 전월대비 6개월 연속 +20만 명 기록, 3) FOMC의 디플레이션 우려 완화 등으로 인한 금리인상 시기 우려, 3) 러시아에 대한 제재 장기화 및 이라크 공급 우려 속의 유로화 약세 전망 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달러화의 강세 흐름이 예상됨에 따라 곡물 선물의 가격 반등 폭을 제한할 요인.

그림 5. 달러화 지수 추이



그림 6. 유로화 추이



자료: 블룸버그

물론 최근 엘런 FRB 의장, 피셔 부의장 등의 여전히 고용시장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통해 FOMC의 금리인상 시기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부각되고 있는 점은 달러화의 강세를 제한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1) 기본적으로 미국 FOMC의 10월 자산매입 축소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점, 2) 미국의 고용시장 회복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0월의 테이퍼링 중단 시점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 3) 유로존의 경우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우려 속에 향후 독일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고, 이로 인해 향후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적인 자산매입 단행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 등은, 그 동안 10월간 전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듯이 큰 흐름에서의 달러화 강세를 지속시킬 요인은 이어지며 미 곡물 가격의 반등 폭을 제한할 요인임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 속에 유로존 경기의 둔화 리스크 부각은 유로화에 대한 달러화의 상대적 강세를 부각시킬 요인이라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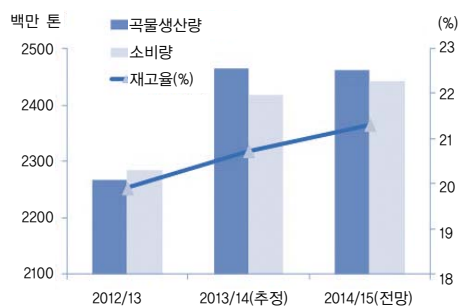
■ 미국 농무부 8월 수급 전망 요약 : 서로 相異한 기말 재고율 변화

표 3. 글로벌 곡물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항목	2012/13	2013/14 (추정)	2014/15 전망		변동률(%)	
			2014.7.	2014.8.	전년비	전월비
생산량	2267.12	2464.17	2445.77	2461.25	-0.1%	0.6%
공급량	2739.56	2919	2950.71	2962.46	1.5%	0.4%
소비량	2284.74	2417.78	2433.2	2442	1.0%	0.4%
교역량	299.46	364.17	339.01	340.28	-6.5%	0.4%
기말재고량	454.83	501.22	517.512	520.46	3.8%	0.6%
재고율(%)	19.9	20.7	21.3	21.3		

자료: USDA

그림 7. 글로벌 곡물 생산량/기말재고율



옥수수는 8월 12일 발표된 미 농무부의 월간 수급전망에서는 2014/15년도 글로벌 옥수수 기말재고율 전망치가 7월의 19.5%에서 19.4%로 하향 수정되었다. 다만 2013/14년도 전망치 18.0%에 비해서는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의 2014/15년도 기말재고율은 7월의 13.51%에서 8월에는 13.46%로 소폭 하향 수정되며 옥수수 선물 근월물 가격에는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전망이다.

표 4. 글로벌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항목	2012/13	2013/14 (추정)	2014/15 전망		변동률(%)	
			2014.7.	2014.8.	전년비	전월비
생산량	868.76	984.37	980.96	985.39	0.1%	0.5%
공급량	1003.37	1122.52	1154.38	1154.48	3.0%	0.2%
소비량	865.22	951.43	966.33	968.67	1.8%	0.2%
교역량	95.16	125.47	115.22	115.86	-7.7%	0.6%
기발재고량	138.15	171.09	188.05	187.82	9.8%	-0.1%
재고율(%)	16.0	18.0	19.5	19.4		

자료: USDA

그림 8. 글로벌 옥수수 생산량/기말재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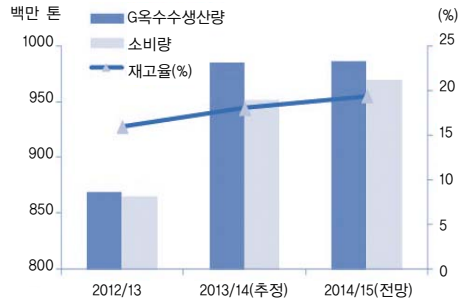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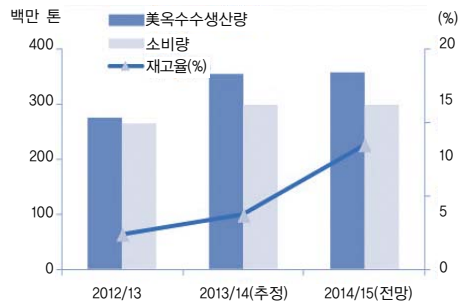


표 5. 미국 옥수수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항목	2012/13	2013/14 (추정)	2014/15 전망		변동률(%)	
			2014.7.	2014.8.	전년비	전월비
생산량	273.83	353.72	352.06	356.43	0.8%	1.2%
공급량	298.95	374.58	383.72	386.44	3.2%	0.7%
소비량	263.61	296.69	295.54	297.45	0.3%	0.6%
교역량	18.55	48.77	43.18	43.82	-10.1%	1.5%
기발재고량	20.86	30.01	45.76	45.93	53.0%	0.4%
재고율(%)	7.4	8.7	13.51	1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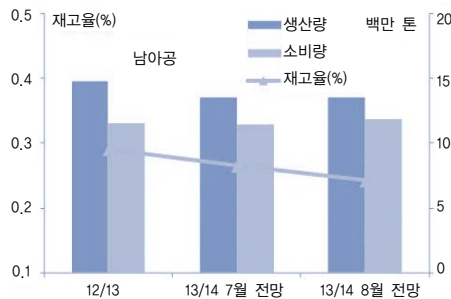
자료: USDA

그림 9. 미국 옥수수 생산량/기말재고율



한편 옥수수의 경우 지역별로 2014/15년도 기말재고율 움직임을 보게 되면, 미국이 19.5%에서 19.4%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0.26%에서 0.24%로 하락한 반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등의 기말재고율은 전월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그림 10. 남아공 옥수수 생산량/기말재고율



자료: USDA

그림 11. 아르헨티나 옥수수 생산량/기말재고율



대두는 미 농무부 8월 수급 전망에서 2014/15년도 글로벌 기말재고율이 7월의 30.1%에서 30.2%로 상향 수정 되었다. 한편 미국산은 2014/15년도 기말재고율이 7월의 11.7%에서 12.2%로 상향 수정되며 가격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 6. 글로벌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항목	2012/13	2013/14 (추정)	2014/15 전망		변동률(%)	
			2014.7.	2014.8.	전년비	전월비
생산량	267.86	283.95	304.79	304.69	7.3%	0.0%
공급량	321.4	340.78	372.03	371.78	9.1%	-0.1%
소비량	259.89	269.8	283.31	283.40	5.0%	0.0%
교역량	100.53	112.73	113.29	113.32	0.5%	0.0%
기말재고량	56.83	67.09	85.31	85.62	27.6%	0.4%
재고율(%)	21.9	24.9	30.1	30.2		

자료: USDA

그림 12. 글로벌 대두 생산량/기말재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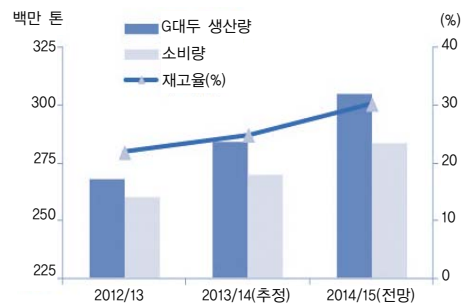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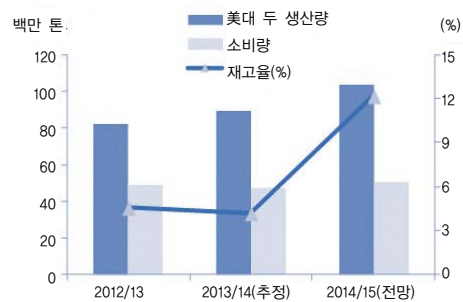


표 7. 미국 대두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항목	2012/13	2013/14 (추정)	2014/15 전망		변동률(%)	
			2014.7.	2014.8.	전년비	전월비
생산량	82.56	89.51	103.42	103.85	16.0%	0.4%
공급량	87.17	93.34	107.24	107.67	15.4%	0.4%
소비량	48.6	47.06	50.78	50.78	7.9%	0.0%
교역량	35.85	44.63	45.59	45.59	2.2%	0.0%
기말재고량	3.83	3.82	11.28	11.71	206.5%	3.8%
재고율(%)	4.5	4.2	11.7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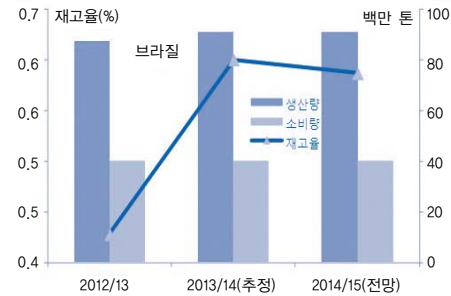
자료: USDA

그림 13. 미국 대두 생산량/기말재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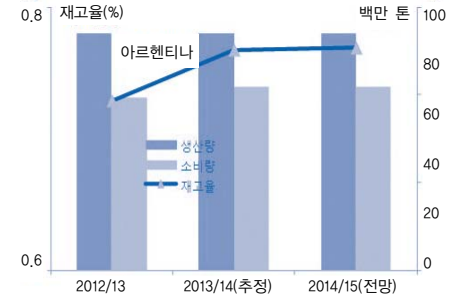
대두도 지역별로 2014/15년도 기말재고율 움직임을 보게 되면, 미국이 11.7%에서 12.15%로 상향 수정된 반면, 브라질은 0.60%에서 0.59%로 하향 수정되었다. 그 외에 아르헨티나, 중국의 경우는 전월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그림 14. 브라질 대두 생산량/기말재고율



자료: USDA

그림 15. 아르헨티나 대두 생산량/기말재고율



소맥은 미 농무부 8월 수급 전망에서 2014/15년도 글로벌 기말재고율이 7월의 27.1%에서 27.3%로 상향 수정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2014/15년도 기말재고율은 7월의 31.7%에서 8월에는 31.3%로 하향 수정되었다.

표 8. 글로벌 소맥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항목	2012/13	2013/14 (추정)	2014/15 전망		변동률(%)	
			2014.7.	2014.8.	전년비	전월비
생산량	658.16	714.07	705.17	716.09	0.3%	1.5%
공급량	855.3	889.71	889.46	899.75	1.1%	1.2%
소비량	679.66	706.05	699.92	706.79	0.1%	1.0%
교역량	137.31	165.27	151.61	151.80	-8.2%	0.1%
기말재고량	175.64	183.66	189.54	192.96	5.1%	1.8%
재고율(%)	25.8	26.0	27.1	27.3		

자료: USDA

그림 16. 글로벌 소맥 생산량/기말재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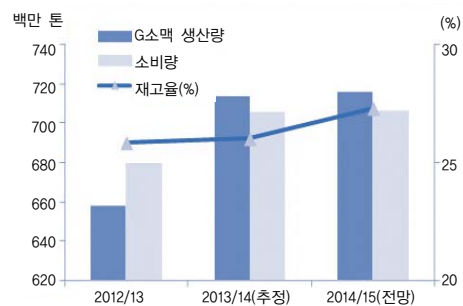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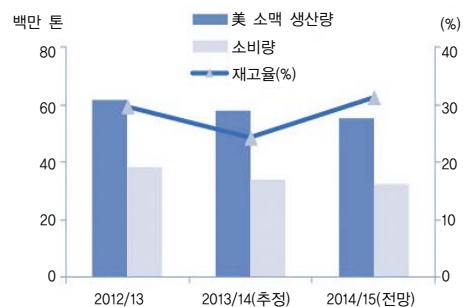


표 9. 미국 소맥 수급 전망 (단위: 백만 톤)

항목	2012/13	2013/14 (추정)	2014/15 전망		변동률(%)	
			2014.7.	2014.8.	전년비	전월비
생산량	61.67	57.96	54.21	55.24	-4.7%	1.9%
공급량	85.22	82.09	74.61	75.64	-7.9%	1.4%
소비량	38.14	34.03	32.14	32.41	-4.8%	0.8%
교역량	27.54	32.01	24.49	25.17	-21.4%	2.8%
기말재고량	19.54	16.05	17.97	18.08	12.5%	0.4%
재고율(%)	29.8	24.3	31.7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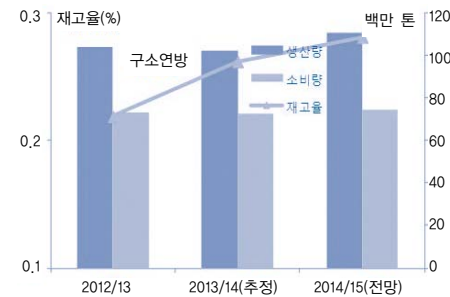
자료: USDA

그림 17. 미국 소맥 생산량/기말재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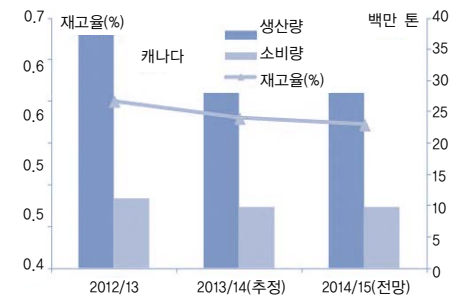
소맥의 지역별 2014/15년도 기말재고율 움직임을 보게 되면, 미국이 7월의 31.73%에서 8월의 31.3%로 캐나다가 0.72%에서 0.69%로 하향 수정된 반면, 舊소연방은 0.26%에서 0.28%로 상향 수정되었다.

그림 18. 舊소연방 소맥 생산량/기말재고율



자료: USDA

그림 19. 캐나다 소맥 생산량/기말재고율



■ 곡물 8월 전망 : 향후 단위 면적당 수확량 추가 수정 여부에 주의

기본적으로 이번 8월 12일의 미 농무부 수급전망 보고를 통해, 현지 조사를 통한 주요 곡물들의 단위면적당 수확량 조사 결과가 시장이 예상하던 대로 종전 수치에 비해 상향 수정된 점은 곡물 선물 가격의 반등 폭을 제한할 요인이다.

다만 옥수수과 대두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개선 폭이 사전에 조사된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은 곡물 가격의 추가적인 낙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단기적인 레인지 장의 전개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옥수수는 이번 8월 12일의 미 농무부 곡물 수급 전망을 통해 2014/15년도 글로벌 옥수수 기말재고율 전망치가 7월의 19.5%에서 19.4%로 하향 수정되고, 미국의 2014/15년도 기말재고율도 7월의 13.51%에서 8월에는 13.46%로 소폭 하향 수정되었다.

특히 이번 보고에서 2014/15년도 단위면적당 수확량 전망치가 전월의 165.3 부셸/에이커에서 167.4부셸/에이커로 상향 수정되었으나, 이는 사전에 조사된 시장 전망치인 170.0부셸/에이커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이 또한 옥수수 선물 가격의 추가 급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물론 이 같은 옥수수의 170.0부셸/에이커라고 하는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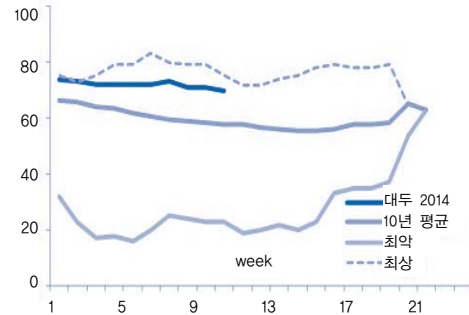
했던 것 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기본적으로 과거 최고 수준의 수치라는 점에서 옥수수 선물 가격의 반등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 20. 옥수수작황



자료: USDA

그림 21. 대두 작황



특히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3/14년도 기말재고율이 7월의 9.21%에서 8월에 8.68%로 하향 수정되는 등 단기적인 옥수수 선물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부각될 수 있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표 10. 미국 옥수수 수급 항목별 전망 변화(2014/15년도, 2013/14년도)

단위: 백만 톤

항목	단위 (백만, %)	2014/15 (2014.8.12)	2014/15 (2014.7.11)	2013/14 (8.12)	2013/14 (7.11)	2012/13 추정	2011/12
작부면적	에이커	83.8	83.8	87.7	87.7	87.4	84.0
단위면적당 수확량	부셸/에이커		165.3	158.8	158.8	123.4	147.2
기초재고	부셸	1,181	1,246	821	719	989	1,128
생산	부셸	14,032	13,860	13,925	13,925	10,780	12,360
공급합계	부셸	15,243	15,136	14,781	14,781	11,959	13,517
사료	부셸	2,520	5,200	5,175	5,175	4,325	4,557
식품/종자/공업	부셸	6,460	6,435	6,505	6,460	6,053	6,428
에탄올	부셸	5,075	5,050	5,120	5,075	4,648	5,000
수출	부셸	1,725	1,700	1,920	1,900	730	1,543
수요합계	부셸	13,435	13,335	13,600	13,535	11,108	12,528

항목	단위 (백만, %)	2014/15 (2014.8.12)	2014/15 (2014.7.11)	2013/14 (8.12)	2013/14 (7.11)	2012/13 추정	2011/12
기말재고	부셸	1,808	1,801	1,181	1,246	821	969
재고율	%	13.46%	13.51%	8.68%	9.21%	7.39%	7.89%

자료: USDA

한편 대두의 경우는 미 농무부 8월 수급 전망에서 2014/15년도 글로벌 기말재고율이 7월의 30.1%에서 30.2%로 상향 수정 되고, 미국은 7월의 11.7%에서 12.2%로 상향 수정됨에 따라 당분간 가격 조정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옥수수과 달리 근월물인 2013/14년도 기말재고율도 7월의 4.15%에서 4.16%로 소폭 상향 수정되면서 대두 선물 가격에는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두의 경우, 최근 가격 급락 흐름 속에서 중국의 저가 대량 계약 체결 움직임이 나타난 부분은 대두 가격의 하락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표 11. 미국 대두 수급 항목별 전망 변화(2014/15년도, 2013/14년도)

단위: 백만 톤

항목	단위 (백만, %)	2014/15 (2014.8.12)	2014/15 (2014.7.11)	2013/14 (8.12)	2013/14 (7.11)	2012/13 추정	2011/12
작부면적	에이커	84.1	84.1	75.9	75.9	76.2	73.8
단위면적당 수확량	부셸/에이커	45.4	45.2	43.3	43.3	39.8	41.9
기초재고	부셸	140	140	141	141	169	22
생산	부셸	3,816	3,800	3,289	3,289	3,034	3,094
공급합계	부셸	3,971	3,955	3,509	3,514	3,243	3,325
Crushing	부셸	1,755	1,755	1,725	1,725	1,689	1,703
수출	부셸	1,675	1,675	1,640	1,620	1,317	1,365
종자	부셸	92	92	99	99	89	90
사료	부셸	19	19	-94	-69	8	-2
수요합계	부셸	3,541	3,541	3,669	3,374	3,103	3,155
기말재고	부셸	430	415	140	140	141	169
재고율	%	12.14%	11.72%	4.16%	4.15%	4.54%	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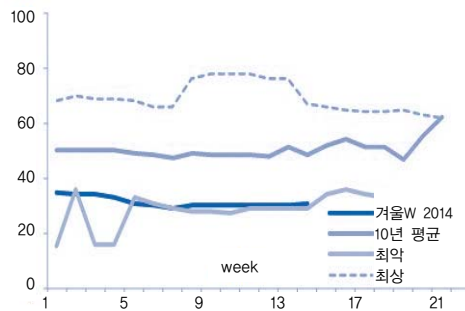
자료: USDA

소맥은 미 농무부 8월 수급 전망에서 미국의 2014/15년도 기말재고율이 7월의 31.7%에서 8월에는 31.3%로 소폭 하향 수정되고, 2013/14년도 기말재고율은 24.32%로 전월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다만 1)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잔존하고 있고, 2) EU의 제재조치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로의 식품 수입에 대해 제한 조치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충돌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은 향후 러시아산 소맥 수출 등과 관련한 불안 요인으로서는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래 차트에서 보듯 미국의 봄 소맥 작황이 지난 10년간의 평균치를 상회하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 반등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림 22. 겨울 소맥 작황



자료: USDA

그림 23. 봄 소맥 작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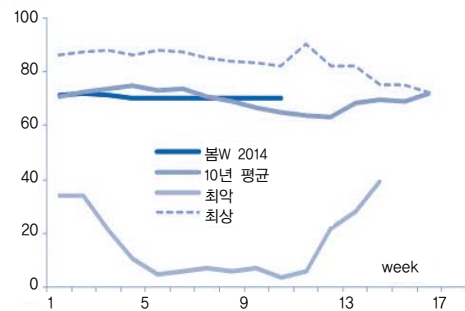


표 12. 미국 소맥 수급 항목별 전망 변화(2014/15년도, 2013/14년도)

단위: 백만 톤

항목	단위 (백만, %)	2014/15 (2014.8.12)	2014/15 (2014.7.11)	2013/14 (8.12)	2013/14 (7.11)	2012/13 추정	2011/12
작부면적	에이커	46.2	46.2	45.2	45.2	48.9	45.7
단위면적당 수확량	부셸/에이커	43.9	43.1	47.2	47.2	46.3	43.7
기초재고	부셸	590	590	7,178	718	743	862
생산	부셸	2,030	1,992	2,130	2,130	2,266	1,999
공급합계	부셸	2,779	2,741	3,016	3,016	3,131	2,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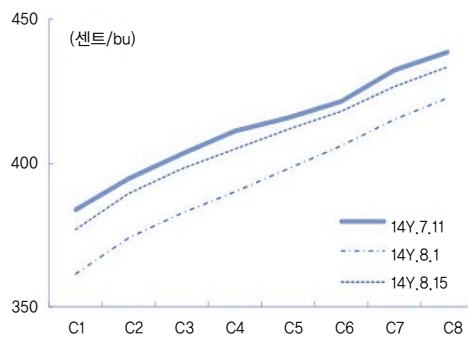
항목	단위 (백만, %)	2014/15 (2014.8.12)	2014/15 (2014.7.11)	2013/14 (8.12)	2013/14 (7.11)	2012/13 추정	2011/12
Crushing	부셸	960	960	950	950	945	941
수출	부셸	76	76	77	77	73	76
종자	부셸	155	145	223	217	384	162
사료	부셸	925	900	1,176	1,182	1,012	1,051
수요합계	부셸	2,116	2,081	2,426	2,426	2,414	2,231
기말재고	부셸	663	660	590	590	718	743
재고율	%	31.33%	31.72%	24.32%	24.32%	29.74%	33.30%

자료: USDA

■ 선물 시장의 포워드커브,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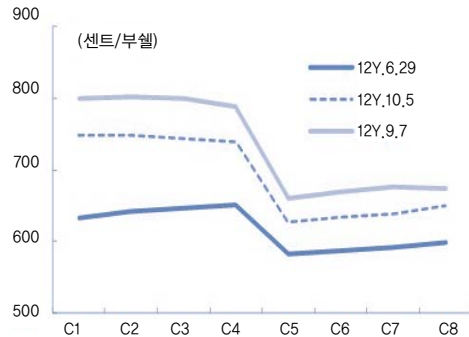
옥수수 선물 시장의 포워드커브의 추이를 보면, <그림 24>에서 보듯 1) 미 농무부 6월, 7월 수급 전망에서의 2014/15년도 기말 재고율 상향 수정, 2) 옥수수 작황의 개선 흐름 확인 등의 영향 속에 생산량 확대 전망이 강화되며 포워드커브 자체는 큰 폭으로 아래로 하향 이동을 이어갔다.

그림 24. 옥수수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자료: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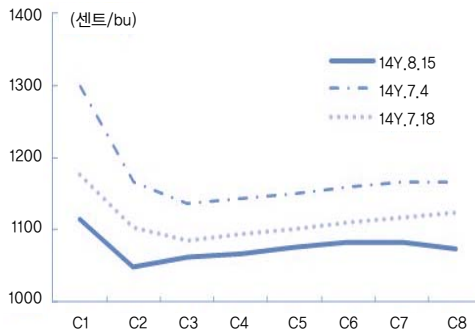
그림 25. 2012년 옥수수 포워드커브 추이



한편 대두 선물 역시 현재까지는 작황 개선 흐름 속에 근월물의 수급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7월 초와 8월 15일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근월물 가격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향후 추가적인 단위면적당 수확량 상향 수정이 이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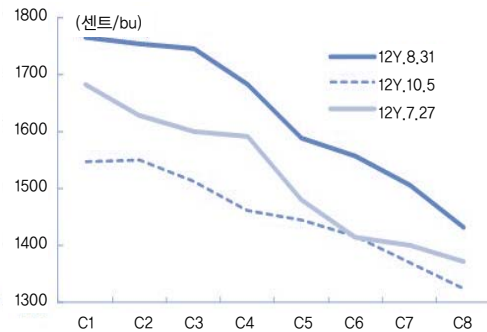
어질지 여부가 대두 선물 근월물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작황 개선 흐름 속에 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림 26. 대두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자료: 블룸버그

그림 27. 2012년 대두 포워드커브 추이



다음으로 투기적 순매수 위치선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대두 선물의 경우는 주간 투기적 순매수 위치선이 수 년 만에 처음으로 순매도로 돌아서 있는 상황이다. 옥수수나 소맥 선물이 이 같은 투기적 순매수 위치선의 축소 움직임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섯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8월 12일에 발표된 미국산 대두의 2014/15년도 기말재고율이 7월의 11.7%에서 12.2%로 상향 수정되었고, 근월물인 2013/14년도 기말재고율도 7월의 4.15%에서 4.16%로 소폭 상향 수정된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가격 조정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그림 28. 대두 선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추이



자료: 블룸버그

그림 29. 대두박 선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추이



한편 <그림 3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옥수수 선물의 경우는 대두에 비교한다면 향후 추가적인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의 축소 여력은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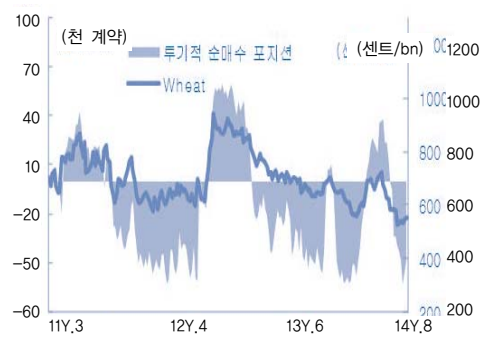
하지만 한편 미국의 2014/15년도 기말재고율은 7월의 13.51%에서 8월에는 13.46%로 소폭 하향 수정되고, 2013/14년도 기말재고율도 7월의 9.21%에서 8월에는 8.68%로 하향 수정된 점은 추가적인 순매수 포지션 축소를 완화시킬 요인들이다.

그림 30. 옥수수 선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추이



자료: 블룸버그

그림 31. 소맥 선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추이



한편 옥수수/대두 선물 가격 비율의 주간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 2.8배를 상회하는 시점에서 하단의 RSI 지표가 과열권에 진입한 후 다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은 同 가격 비율의 조정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산 옥수수의 기말 재고율 하향 수정, 이와 반대되는 대두의 기말재

고율 상향 수정 요인 등을 감안하면 同 비율의 재반등 가능성에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32. 옥수수/대두 선물 비율 주간 기준 추이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이진우(NH농협선물 리서치센터장)*

크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골디락스(Goldilocks)’ 시장…… 금융위기 이후 편안한 자산 시장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요즘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한 마디로 압축하면 위와 같이 말할 수 있겠다. 그 후유증인가? 너무 좋게 나오는 경제지표나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부진한 지표 모두 부담스러운 시장…… 그러나 그 취약한 시장을 떠받치겠다는 중앙은행들의 노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 노력이란 수시로 단행되는 말 바꾸기…… 거기에 더하여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서 발발한 지정학적 위험도 한 번 살피고 넘어갈 때가 되었다. 국내 외환시장은 여전히 불투명한 방향성을 보이지만 최근 보여준 변동성 확대는 반가운 일이다.

1. 국제금융시장 동향

■ 중앙은행들의 갈 짓자(之) 통화정책 행보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펼쳐온 초저금리 정책 및 양적 완화(QE)가 언제 종료되어 이른바 ‘금리 정상화’ 단계로 접어들 것인가? 둘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거쳐 이제는 이라크 지역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이 금융시장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인가?……

먼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짚어보고 가자면 한 마디로 갈 짓자(之) 행보의 연속이다. <그림 1>은 취임 이래 통화정책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을 술하게 뒤집어 온 끝에 영국의 한 의원으로부터 ‘못 믿을 남자 친구(unreliable boyfriend)’라는

* jopok@nfutures.co.kr, 02-3787-8290.

비아냥거림까지 받고 있는 마크 카니(Mark Carney) 영란은행(BOE)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한 최근의 말 바꾸기를 정리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향후 BOE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서 주요 변수는 근로자들의 임금(賃金) 회복세라는 점이다.

그림 1. 못 믿을 카니(Mark Carney; 영란은행 총재)

카니 영란銀 총재 "금리인상 서둘지 않겠다"

입력시간 | 2014.08.14 10:10 | 이정훈 기자

이데일리

"임금 인상을 눈에 띄게 부진..英경제 다소 어려움"

더딘 금리인상 예고..파운드화 두달래 최저로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마크 카니 영란은행(BOE) 총재가 영국내 부진한 임금 인상률과 대외 리스크를 감안해 기준금리 인상을 서둘지 않겠다고 시장에서 일고 있는 금리 인상 우려를 잠재웠다.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

카니 총재는 13일(현지시간) 영란은행의 분기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실업률이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가계 임금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영국 경제 확장세가 다소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유로존 경제구조 개혁이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에 가파르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임금 인상률이 눈에 띄게 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카니 총재는 "앞으로 영란은행은 근로자 임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또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투자자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카니 총재의 발언에 영란은행이 성장률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파운드화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외환시장에서 파운드화는 달러화대비 전일보다 0.6% 하락한 1.6713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이후 두 달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년 GDP 성장을 전망치 3.5% → 3.4%
내년 말 실업률 전망치 5.4%
(⇒ 5월 전망치 5.9%)

두 달 만에

마크 카니 "기준금리 조기에 인상할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성 훼손 가능"

입력 : 2014-06-13 오전 5:41:27

Newstomato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마크 카니 영란은행(BOE) 총재가 기준금리를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통신)

12일(현지시간) 마크 카니 BOE 총재(사진)는 런던 맨션 하우스에서 "주택 시장과 관련한 심각한 부채로 경제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마크 카니 총재는 "첫 번째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 이미 구체적인 추측이 나왔다"며 "그런데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기준금리 인상 조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GBP/USD(Daily; 8/15)

그림2. 본색 드러낸 연준(Fed)의 대원군(대원군) 스탠리 피셔(Stanley Fischer)

성장 강한 피셔...미 금리 조기 인상설 차단

양적 완화 마친 뒤 지켜본 후 인상
 옐런 의장과 경기 처방책 일치
 "두 사람 모두 비둘기파로 드러나"

입력 2014.08.13 00:07
 ① 중앙일보

이른바 'Fed(연방준비제도) 컨센서스'가 11일(현지시간) 확인됐다. Fed 2인자인 스탠리 피셔(71) 부의장과 1인자인 제닛 옐런(68) 의장의 경기 진단과 처방이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피셔는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경제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다. 연설문의 제목부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았다. 제목은 '지속하는 대침체(Great Recession: moving ahead)'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Great Depression)에 대비해 현재의 경기 상황을 대침체(Great Recession)라고 표현했다.

그는 "대침체 여파로 미국 출생률 실적이 실망스럽다"며 "성장을 회복하는 게 경제정책 담당자들의 첫 번째이자 기본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옐런이 올 2월 취임 이후 줄곧 해왔던 경기 부양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메시지와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다.

피셔는 옐런이 중시하는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노령화 탓이기도 하지만 2000년 이후 일자리를 찾아 나선 사람들의 비율(노동시장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미국 경제 성장에 우환영여라"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날 피셔의 연설은 감동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을 넘어 존재 인식과 처방이 옐런과 같음을 분명히 했다.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올 들어 Fed 내 의견 불일치는 화제 삼각해졌다. 볼로버그 통신이 최근 "전통적인 매파와 비둘기파의 논쟁이 아니라 새로운 관선이 Fed 내부에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바로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쪽(매파)일 부 비둘기)과 예정대로 양적 완화(QE)를 마친 이후 상당 기간 지켜본 뒤 하자는 쪽이다.

피셔는 매파는 아니지만 선제 대응을 중시하는 쪽이다. 그가 올 1월 부의장에 지명된 뒤 Fed의 선제 대응론자들이 힘을 얻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게다가 올 2분기 미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4%(연율)에 달했다. 이 때문에 로이터 등 언론들은 "Fed가 내년 초에 긴축을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때 피셔가 옐런의 편에 설다. 미 경제가 예상보다 회복세를 보이지 않으면 옐런의 시나리오대로 Fed가 금리를 조정할 것"이란 예측이 힘을 얻게 된다. 'QE'가 끝난 뒤 상당 기간 경제를 지켜본 뒤(내년 중순 이후)에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각본이다.



위 <그림 1>에서 파운드/달러(GBP/USD) 환율 동향이 시사 하는 바는 국제외환 시장에서 달러들은 '국가 간 금리격차(interest differential)'를 여전히 외환거래에서의 주요한 동인(動因)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통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셈이다. 이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단행이 예상되는 한국은행의 8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USD/KRW)환율이 상승한(즉, 원화가치가 약세를 보인) 현상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8월 11일 스웨덴에서의 한 경제 컨퍼런스에서 연준(Fed) 부의장으로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공식적인 연설을 할 기회를 가진 스탠리 피셔(Stanley Fischer)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 <그림 2> 또한 국제금융시장에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다. 美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QE tapering)'에 이은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굳어지고 있지만 시장의 관심은 과연 연준이 언제 기준금리 인상에 돌입하여(when),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것이며(how), 어느 레벨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릴 것인가(whether)에 집중되고 있다.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참석하는 연준 내 매파(hawks) 위원들과 비둘기파(doves) 위원들의 갑론

을박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와중에 이번 피셔 부총재의 조기 금리인상설을 차단하려는 듯 한 발언은 앞으로 금리를 올리더라도 아주 천천히 조금씩만 올릴 것이라는 기존 연준의 포워드 가이드선(forward guidance)을 확인함으로써 금리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금씩 올려야 한다는 재닛 옐런 의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피셔의 발언 중 주목할 대목은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 前 재무장관의 영구 불경기론(Secular Stagnation)과 동일한 경기 인식이다. 서머스는 MIT에서 피셔가 경제학을 가르친 제자이기도 한데, 학문적으로도 상당한 경지에 이르고 실제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도 지대한 사람들이 갖는 향후 글로벌 경기 진단이 저토록 암울하다면 과연 중앙은행들이 은근히 예고 중이고 시장 또한 마음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금리상승기가 과연 도래하기는 할 것인가 하는 회의(懷疑)에 빠져들게 된다. 이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통화정책의 변경은 금리정상화, 즉 기준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체감경기 하에서 대다수 국민이 의심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림 3. 15개월 만에 움직인 금통위... 기준금리 연 2.5% → 2.25%

금통위, 15개월만에 기준금리 인하... "심리위축 장기화 우려때문"

2014/08/14 13:18 MTN 마나투데이방송

'금리 인하' 이주열, '최경환 요청에 빠르게 '화답'

2014/08/14 16:30 MTN 마나투데이방송



이주열 "금리인하 효과 지켜볼 것"... 추가인하에 신중

기사일력 2014-08-14 15:21

연방뉴스

이주열 "금리인하, 금통위 독자적 판단"

승인 2014.08.14 13:50:59

IS 일요서울

이주열의 '보신주의'

박선미 기자 (mei@ajunews.com) | 등록 : 2014-08-14 05:14

아주경제

경기 부양 흐름에 박자 맞춰준 이주열

입력 2014.08.15 01:13 | 중앙일보

내수 활성화 정책과 시너지 기대
"예상한 일" 금융시장선 넘김

금리 추가 인하에는 유보적 입장
가계 부채 증가 걱정하는 시각도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낮춘 한국은행



적인 성장률과 소비 감소 금리 내려

단위: 전년비 %, 국내총생산 기준



안간섭

단위: 전년비 %



자료: 한국은행

이주열은 왜 김중수체제를 지우려 할까

취임 100일만에 '이주열 사단'으로 몰갈아... 패색적 현은으로 회귀 평가도

승인 2014.07.21 19:14:04

BusinessPost



한국은행(BOK) 또한 통화정책에 있어서 갈지자 행보를 펼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6월 13일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 현 정부의 실세(實勢)로 불리는 최경환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이후 이른바 ‘2기 경제팀’은 외신에서조차 ‘초이노믹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경기회복을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왔다(국가 원수가 아닌 사람의 이름에 ‘~노믹스’를 붙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와 청와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언론과 시장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가했고, 결국 지난 8월 14일 금통위에서 한은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번 금리인하의 배경이나 그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이 주열 총재의 답변은 ‘경제주체들의 심리(心理)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서 맴돌았다. 그 동안 제시해 온 자신들의 경기진단 및 금리정상화 의지에 중대한 변화를 주면서도 한은은 그에 걸맞는 자신들의 논리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 절대 변수는 못되지만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지정학적 위험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설명하는 시황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라크 등의 지정학적 위험(geopolitical risk)이다.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지정학적 위험으로 회자되는 변수들이 세계 질서와 국제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정도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지는 못하지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不確實性)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시장가격 등락의 깔끔한 이유를 찾아내기 힘든 시점에는 이 변수들을 핑계 삼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우 아래 <그림 4>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지만 <그림 5>는 경제적으로 서로 얽혀서 갈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기는 힘들다는 점을, 그리고 그림 6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는 글로벌 자산시장의 등락을 애써 지정학적 위험의 고조나 완화와 연결해 설명하려 드는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에너지 전쟁 차원에서 중요성을 지니는 우크라이나 사태



그림 5. 신(新)냉전으로 치달기에는 한계를 지닌 우크라이나 사태



그림 6 불확실성으로 남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우크라이나 사태

러, 우크라 접경에 2만여 병력 집결...무력개입 가능성 고조

2014.08.06 09:06:00 송고 news1



리도슬라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거나 침략하기 위해 국경에 병력과 군사장비를 대거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일 뉴욕타임스(NYT)도 러시아가 최근 몇 주 새 서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전투태세를 갖춘 보병 기갑 포병 방공포대 등 1만9000~2만1000명의 병력으로 이루어진 17개 대대를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에 더해 더해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증원 8개에서 14개로 늘리고 방공포대 30여대를 추가로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이글 미국방 "러시아, 우크라 침공 위험 고조"

NATO "러, 우크라이나 동부 접경지역에 병력 2만명 집결"

2014-08-07 09:54 NEWS1

폴란드 외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위협 누그러져"

2014.08.13 15:43:11 송고 news1



美 증시, 러-우크라이나 긴장 완화 분위기에 초반 상승세

입력 : 2014.08.15 22:40

Chosun1

러시아 장갑차 우크라이나 국경 침입, 우크라이나군이 격파

등록 : 2014-08-16 17:05

아주경제



뉴욕증시, '우크라이나 악재'에 혼조...유럽은 하락

데스크출판 2014.08.16 06:30:05

시애틀파이낸스

작년 시리아 정부군이 美 오바마 정부가 레드라인(red-line)으로 제시한 화학무기까지 동원하여 수니파 반군세력을 대량 학살할 때에도, 최근 이스라엘 군대가 팔레스타인을 장악한 무장 테러단체 하마스를 응징한다면서 가자(Gaza) 지구를 공격하여 사상자 1만 명을 넘어설 때에도 움직이지 않던 미국이 이라크 내에서 급격히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ISIS에 대하여 공습을 단행함으로써 이라크 사태 또한 전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아래 <그림 7> ~ <그림 10>은 이라크 사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들이다. 이슬람 세계의 동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게 된 배경부터 알아야 한다. 일반 무슬림들이야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이슬람 교리를 충실히 지키며 순박하고 정직하게 생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항상 정치적 야망을 품고 있는 자들이 일으키는 갈등과 참혹한 내전에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까지 겹친 것이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 지역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한 압축적 설명이 되겠다. 그러나 소위 이슬람국가(IS)가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정도의 상황까지 치닫지 않는다면 이 또한 금융시장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림 7. ISIL의 준동으로 격랑에 휘말리고 있는 이라크(Ir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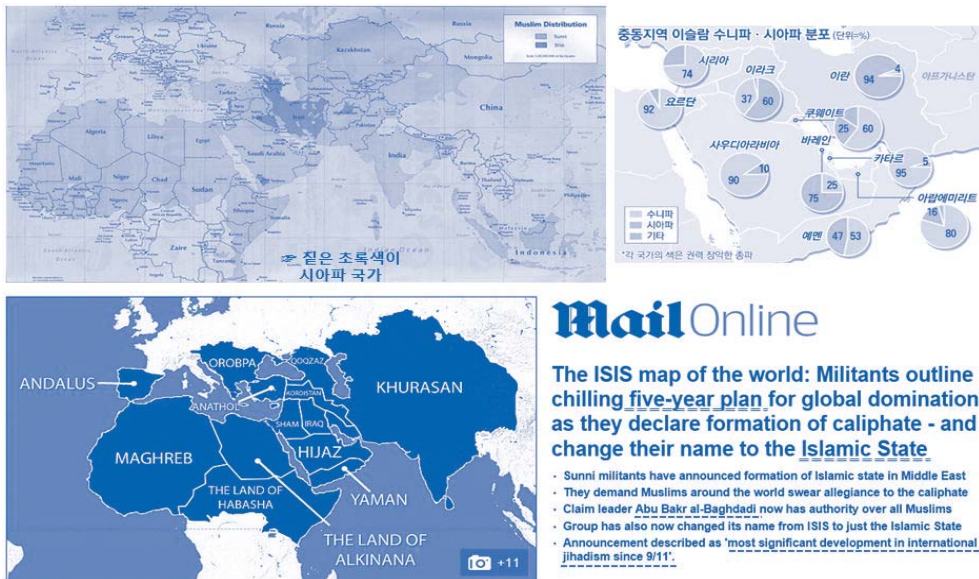
그림 8. 이슬람 국가(IS)의 수립 선언 및 미국의 공습(空襲)으로 혼미해진 이라크 사태



그림 9. 이슬람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 수니파 vs 시아파

차이점	수니파(Sunnis)	시아파(Shitis)
지지자	94천만	12천만
무슬림 중 비율	85~90%	10~15%
예언자의 대리인(후계자)에 대한 관점	무함마드가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믿으며, 무함마드의 후계자는 법이슬람 공동체인 움마(Ummah)가 슈라(Shura)라는 합의 과정을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함마드가 후계자를 지정했다고 믿으며, 무함마드의 친족만이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칼리프**에 대한 관점	예언자는 무함마드의 장인인 아부 바르크를 시작으로 하는 4명의 정통 칼리프를 인정합니다.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이며, 4명의 정통 칼리프 중 마지막 칼리프인 '알리'만이 진정한 칼리프이며, 따라서 알리의 후계자들만이 진정한 이슬람의 지도자라고 봅니다.
지도자에 대한 관점	절대적인 종교적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많은 권위 있는 학파들이 공존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이맘은 기독교의 목사나 신부처럼 평범한 지도자일 뿐이지요.	알리의 혈통을 이은 이맘들을 정통의 후계자들로 보기 때문에 이들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교황에 맞먹는 권위를 지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코란에 대한 관점	코란을 영원하다고 보고 그 해석에 충실합니다.	이맘을 무함마드에 버금가는 완전무결한 존재로 보고 그들의 코란해석을 신봉합니다. 이란에서 종교 지도자가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절대적인 정치 권력을 행사하게 된 것도 이맘에 대한 독특한 인식과 제도에서 비롯되죠.
세력	거의 전 세계적, 동남아시아, 중국, 남아시아, 아시아, 그리고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 아라비아 등 대부분의 아랍권에서 주류는 수니파	이란(전 국민의 90%정도), 이라크, 레바논,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등. - 밑에 지도를 참고 해 주세요!

그림 10. 이슬람 국가들의 현재 구도 및 IS의 5개년 계획



2. 환율 전망

■ 국제 외환시장… 은근한 달러강세

지난 6월 5일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 인하(0.25% → 0.15%), 마이너스 예치금 금리(-0.10%) 적용, TLTRO(Targeted LTRO) 등이 포함된 패키지 완화정책을 내놓으면서 Fed와 ECB간의 통화정책은 각각 긴축과 완화 쪽으로 좀 더 기울었다. 금리격차를 중시하는 외환시장으로서는 미 달러화의 강세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도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까지 시장의 주목을 끌면서 국제외환시장에서는 은근한 달러강세가 이어져 왔다. 아래 <그림 11>에서는 유로/달러(EUR/USD) 및 달러/엔(USD/JPY) 환율을 통해 그러한 시장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반면에 그림 12에서는 단기적으로 최근 달러강세에 대한 조정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감지되는가 하면 장기적으로는 美 달러화가 추세적인 강세장으로 진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방향성이 좀 더 뚜렷해지려면 연준의 QE가 종료될 가능성이 큰 10월말 FOMC를 지나봐야 하겠다.

[그림 11] 국제외환시장에서 관찰되는 은근한 달러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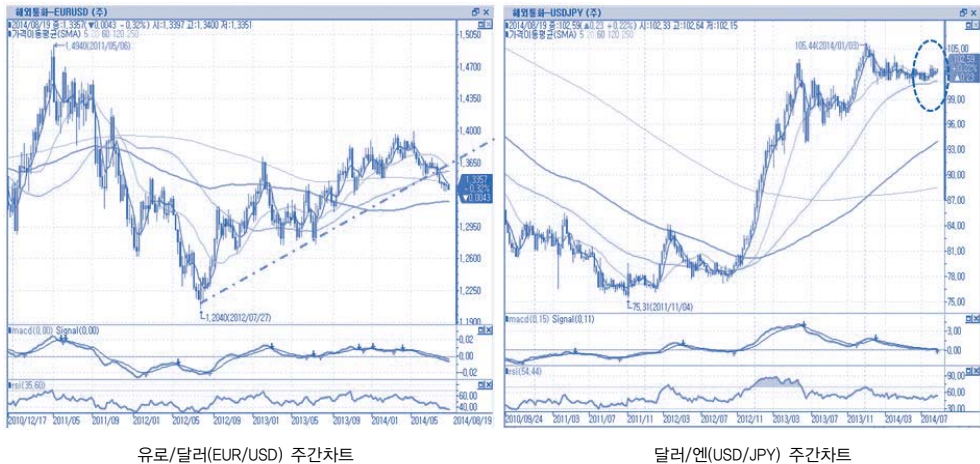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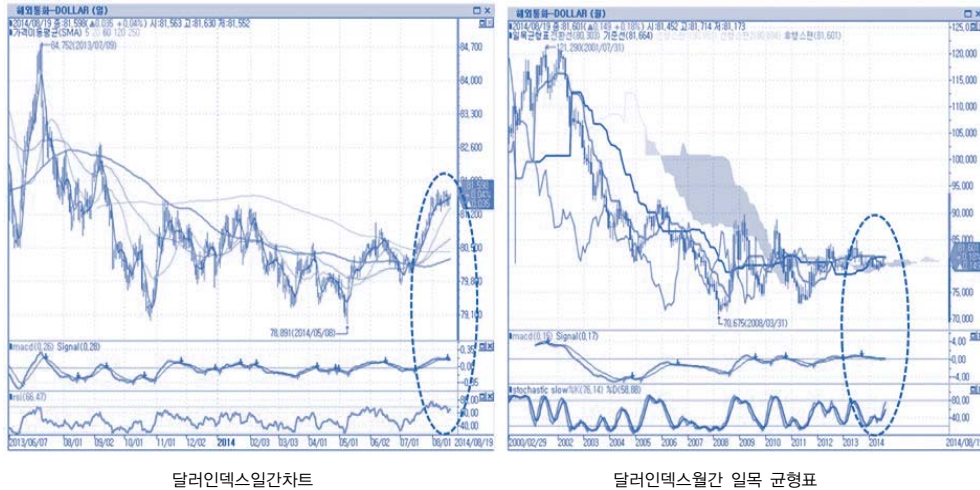


차트 인용: Infomax, 8월 19일 현재 이하 같음

그림 12. 단기 전망과 장기 전망이 엇갈리는 달러인덱스



■ 국내 외환시장 … 기준금리 인하 재료는 소멸, 다시 수급 장세로

지난 6월 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지명 이후 원화절상 추세에 속도를 더하던 달러/원(USD/KRW) 환율은 7월 4일 장 중 1,008.40원에서 연중 저점을 찍은 뒤 국제외환시장에서의 달러 강세 및 8월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기댄 역내·외 딜링 세력들의 롱 플레이로 반등에 나서 8월 8일에는 장 중 1,041.30원을 터치하기도 하였다. 기술적으로 이미 큼직한 매수 다이버전스가 형성되고 있어 단숨에 1,000원 아래 세 자리 수 환율이 되기에는 역부족이 느껴지던 상황에서 역외가 매수로 돌아선 것이 주효했고, 특히 7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국내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환 헤지 수요도 유입되면서 달러/원 환율은 위협적인 상승 랠리를 펼쳤다. 그러나 1,037원 근처에 형성되어 있던 기술적 1차

그림 13. 달러/원(USD/KRW) 일간 일목균형표



저항을 돌파하기에는 국내 외환시장의 수급(需給) 상황이 여전히 중장기적인 달러공급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데에다 8월 14일 금통위에서 막상 25bp 수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자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파는’ 시장 격언에 충실한 역외(증시의 외국인투자자에 해당) 매도세에 환율은 다시 전저점(1,008.40원) 테스트도 염두에 뒀야 하는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 와중에 엔/원(JPY/KRW) 재정환율은 결국 1000엔 당 1,000원 수준을 다시 내려서면서 이 또한 지난 7월 초 찍었던 985원 수준까지의 추가하락을 각오해야 할 판이다(〈그림 14〉참조). 수급으로만 따진다면 원화의 중장기적인 강세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최근 환율 급등으로 인해 단기적인 수급이나 시장참여자들의 포지션 상황은 상당히 미묘하게 꼬이면서 환율이 어느 정도 하방경직성을 확보한 것도 부인하기 힘들다. 찬바람 불기 전까지는 1,008 ~ 1,038원 정도의 박스권 장세를 예상해 본다. 엔/원 환율도 전저점 이하로 멀리 내다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뒀야 하겠다.

그림 14. 엔/원(JPY/KRW) 재정환율 일간 및 월간 추이



원자재 및 에탄올시장 동향

박환일(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2014년 7월 원자재시장은 곡물가격의 급락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옥수수과 대두 등 곡물의 생육조건이 개선되면서 사상 최대의 생산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원유는 국제원유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나타냈다. 원유 공급이 여전히 안정적인 가운데 원유시장을 강타할 만한 재료가 아직은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은 중국과 미국의 경기가 견고하게 회복중인 것으로 지표가 개선되면서 상승했다. 최근에 공급이 증가해서 다소 과잉공급 우려가 있지만 수요가 여전히 우세할 전망이다. 에탄올 시장은 지난달의 하락에서 벗어나 상승을 했는데 에탄올 생산과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옥수수가격 하락으로 에탄올 생산마진이 개선되고 가솔린 소비증가와 에탄올 수출증가로 가격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원자재시장 동향

■ 원자재지수 월간 동향

2014년 7월 평균 원자재지수는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CRB지수(CRB Index)는 299.5를 기록하여 전월 308.6에 비해 3.0% 하락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5.0% 상승했다. S&P 골드만삭스 상품지수(S&P GSCI)는 636.2로서 전월 657.6보다 3.3% 하락했고, 전년 동기보다는 0.5% 하락했다.

* hwanilpark@gmail.com, 02-3780-8220.

표 1. 원자재지수의 월간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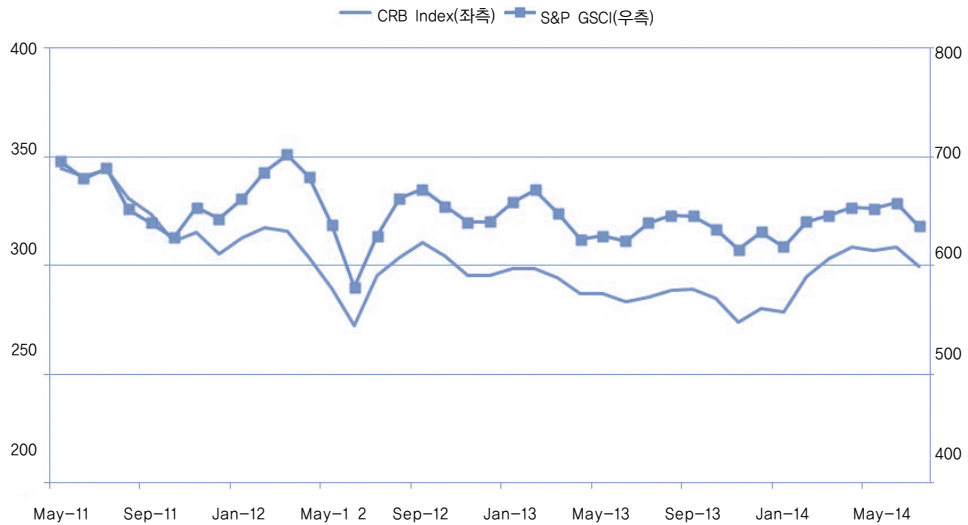
구분	2013.7	2014.6	2014.7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CRB Index	285.3	308.6	299.5	5.0	-3.0
S&P GSCI	639.3	657.6	636.2	-0.5	-3.3

주: 변화율은 2014년 7월 평균지수의 전년 동기(2013년 7월)와 전월(2014년 6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2014년 들어 꾸준히 상승해왔던 원자재시장은 7월 들어 3%대의 하락을 보이며 숨고르기 수준 이상의 약세를 나타냈다. 7월 원자재시장은 에너지와 곡물시장 모두 하락을 했는데, 에너지품목이 3% 내외의 하락을 보인 반면 곡물은 15%에 달하는 급락을 나타냈다. 7월에는 중동과 러시아 등 지역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었지만 원유공급이 안정되면서 가격이 하락했고, 곡물은 사상 최대의 생산량을 기록할 전망에 힘입어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반면 금속류와 금은 수급상황이 타이트한 가운데 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원자재지수가 그동안 지켜왔던 지지선이 쉽게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차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CRB Index 300, S&P GSCI 650은 붕괴되었지만 2차 지지선으로 제시된 CRB Index 280 부근, S&P GSCI 620부근에서의 지지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7월에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가의 경제성장이 호조세를 보이며 글로벌 경제의 펀더멘탈이 견고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미국의 2분기 GDP는 연율 기준 4% 성장하여 2013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중국도 2분기 7.5%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 미국경제의 견고한 흐름 속에 금리 조기인상에 대한 전망이 확산되면서 미국 달러화는 다른 통화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 달러화의 가치는 원자재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원자재 약세를 초래하는 현재의 달러강세의 지속여부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원자재지수 월간추이



자료: KoreaPDS

■ 주요 품목별 동향: 에너지

2014년 7월의 에너지시장은 국제수급이 안정되면서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WTI원유의 7월 가격은 102.4달러/배럴로서 6월에 비해 2.6% 하락했고, 1년 전에 비해서는 2.2%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브렌트유는 7월 가격이 108.2달러/배럴로서 전월의 112.0달러/배럴에 비해 3.4% 낮은 상태를 나타냈다. 천연가스는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7월 가격이 4.02달러/백만BTU로서 전월에 비해 12.4% 하락했으며 전년보다는 10.4%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표 2. 에너지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3.7	2014.6	2014.7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WTI원유	104.7	105.2	102.4	-2.2	-2.6
브렌트유	107.4	112.0	108.2	0.7	-3.4
천연가스	3.64	4.59	4.02	10.4	-12.4

주: WTI원유(CME선물), 브렌트유(ICE선물)는 달러/배럴, 천연가스(CME선물)는 달러/백만BTU; 변화율은 2014년 7월 평균가격의 전년동기(2013년 7월)와 전월(2014년 6월)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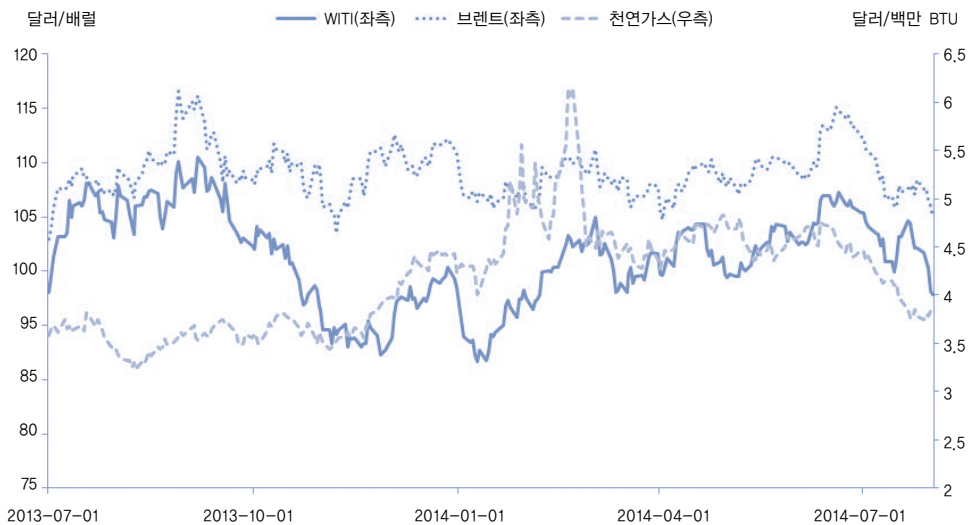
자료: KoreaPDS

7월의 국제원유 시장은 지정학적 이슈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지만 원유수급 및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원유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현재 가장 우려가 큰 지역인 이라크는 내전이 교착상태에 있는 가운데 불확실성만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잠시 주춤했던 우크라이나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이후 미국 및 유럽 등 서방세계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서방국가의 농축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등 무역보복을 가하는 것으로 맞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와 서방국가간의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등 쉽게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와 같이 원유시장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혼란스럽지만 국제원유공급은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7월 원유생산은 하루 853만배럴로 6월에 비해 7.2만배럴 늘었으며 이라크, 리비아 등 지역의 생산도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7월 OPEC생산량은 3,006만배럴/일로 전월보다 14만배럴이 증가했다. 러시아 원유생산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원유시장은 다양한 이슈들이 산재해있으나 시장방향에 영향을 미칠 대형변수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서는 생산감소와 같은 부정적 전망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영향이 지대하므로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하다.

그림 2. 에너지 품목별 가격 일간추이



자료: KoreaPDS

■ 주요 품목별 동향: 농축산물

곡물시장의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5월에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7월의 옥수수가격은 378.9센트/부셸로 전월보다 15.2% 하락했으며, 대두는 1,225센트/부셸을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14.8% 하락했다. 지난 4월을 고점으로 하락중인데 4월 평균 가격대비 옥수수와 대두는 각각 24.6%, 17.6% 하락했다. 반면 생육우가격은 지속 상승 중으로 7월에 153.5센트/파운드를 기록하면서 6월보다 5.5% 상승했다.

표 3. 농축산물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3.7	2014.6	2014.7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옥수수	533.6	446.7	378.9	-29.0	-15.2
대두	1,441.1	1,437.0	1,224.7	-15.0	-14.8
생육우	123.4	145.5	153.5	24.4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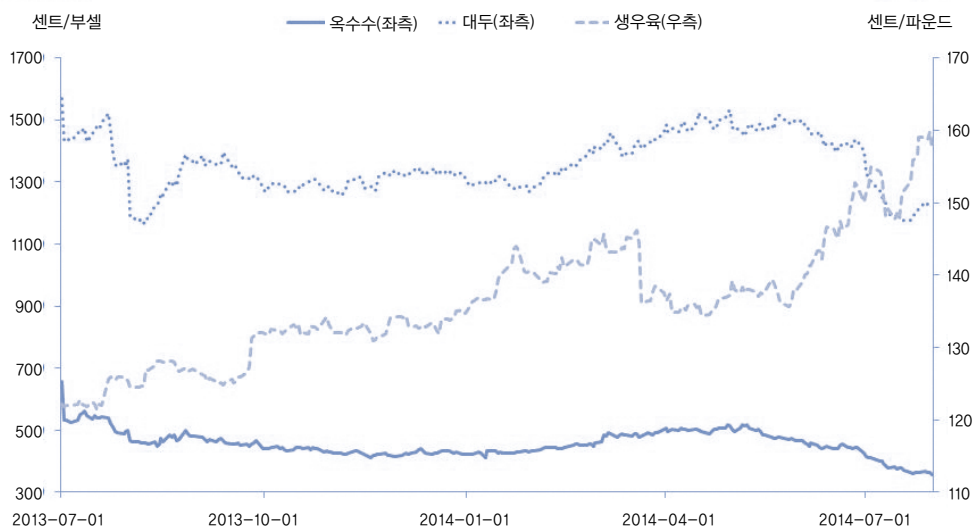
주: 옥수수(CME선물), 대두(CME선물)는 센트/부셸, 생육우(CME선물)는 센트/파운드: 변화율은 2014년 7월 평균가격의 전년동기(2013년 7월)와 전월(2014년 6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2014년 곡물시장은 이른바 몰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연초부터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5월 이후부터는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옥수수는 최근 4년 내 가장 낮은 가격수준이며, 대두는 2013년 8월 가격 수준에 근접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가격 상승률은 옥수수는 17.5%, 대두는 15.2%였으나 이후 7월까지 하락률은 그보다 큰 상황이다. 곡물시장의 약세는 무엇보다 사상 최고 수준의 수율전망과 양호한 품질 덕분이다. 옥수수 작황은 양호에서 우수 품질 비율이 7월 말 기준 75%로 작년의 63%보다 개선되었으며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171부셀을 기록할 전망이다. 대두 작황 역시 양호 및 우수 비율이 71%로서 작년의 63%에 비해 우수한 상황이다. 금년 상반기 곡물시장 강세를 이끌었던 요인 가운데 엘니노 발생 전망은 다소 완화된 상태이다. 최근 해수면 온도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예전 전망보다는 엘니노 발생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곡물시장은 사상 최대의 생산 전망과 함께 양호한 기후조건이 지속되면서 약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반대로 생육우시장은 7월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며 강세를 유지중이다. 미국의 송아지 사육두수는 6월에 비해 6%가 감소하여 생육우 공급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소고기 소비는 여전히 강한 상태로 수급불균형에 의한 가격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 3. 농축산물 품목별 가격 일간추이



자료: KoreaPDS

■ 주요 품목별 동향: 비철금속 및 귀금속

7월의 비철금속시장은 에너지와 곡물시장과는 다른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7월 구리가격은 7,067달러/톤을 기록하여 6월에 비해 4.6% 상승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1.4% 상승한 상황이다. 알루미늄은 6월에 이어 7월에도 상승을 했는데, 7월 가격은 2,047달러/톤으로 6월보다 4.4% 상승했다. 금시장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벗어나 7월에는 상승을 기록했다. 7월 가격은 1,311달러/온스로서 6월보다 2.2% 상승했으며 전년에 비해 2.0% 높은 수준을 기록중이다.

표 4. 비철금속 및 귀금속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3.7	2014.6	2014.7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알루미늄	1,921	1,962	2,047	6.6	4.4
구리	6,969	6,756	7,067	1.4	4.6
금	1,286	1,283	1,311	2.0	2.2

주: 알루미늄(LME선물), 구리(LME선물)는 달러/톤, 금(CME선물)은 달러/온스 변화율은 2014년 7월 평균가격의 전년동기(2013년 7월)와 전월(2014년 6월)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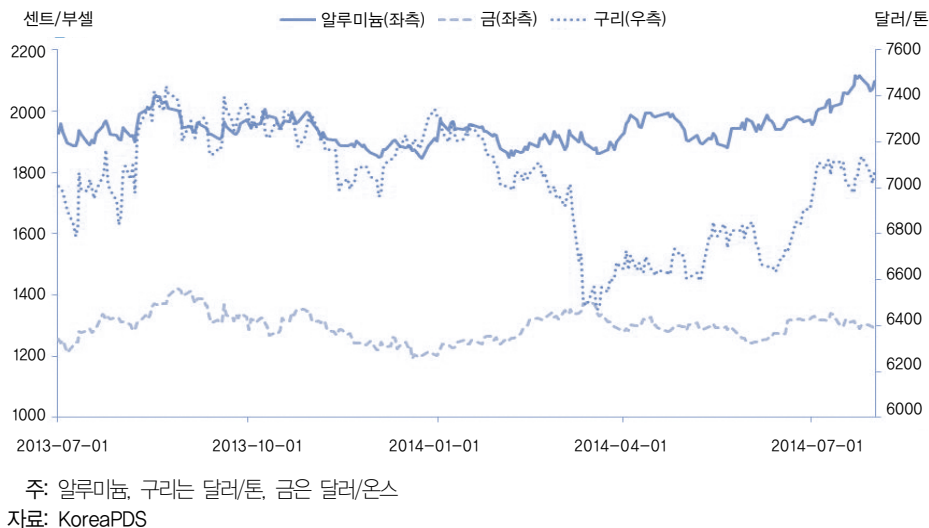
자료: KoreaPDS

구리 시장은 중국 파이낸싱 딜 비리로 인한 가격약세에서 벗어나 강세를 유지하며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월간기준 톤당 7,000달러를 회복했다. 6월의 중국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6개월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미국의 경기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으로 관심이 옮겨졌다. 이어서 7월에도 중국 제조업 PMI 지수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구리가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알루미늄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성장전망과 연비향상을 위해 알루미늄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며 2013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월간기준 톤당 2,000달러를 회복했다. LME 알루미늄 재고량은 22개월내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유럽과 싱가포르 알루미늄 프리미엄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요가 매우 건조한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과 중동 지역에서 알루미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공급과다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2014년 1~6월 중국 이외 지역의 알루미늄 생산량은 전년대비 1.8% 감소했으나 중국 생산량은 8.0% 증가하면서 세계 생산량은 전년대비 2.9% 증가했다. 구리와 알루미늄 가격은 최근의 가격상승세 지속과 공급량 증가전망으로 인한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기회복에 의한 수요증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금 가격은 이라크, 리비아, 이스라엘 등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7월 초반까지는 강세의 흐름을 이어갔다. 6월에 온스당 1,300달러를 돌파하면서 상승추세가 지속되었지만 7월 중순부터 금 실물수요가 감소하고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7월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전월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마감했다. 향후 지정학 리스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지 여부가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비철금속 및 귀금속 품목별 가격 일간추이



2. 에탄올시장 동향

■ 옥수수 가격하락과 연료 성수기에 따른 에탄올 수요 증가

미국 에탄올시장은 7월 들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월에는 전월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7월 마지막 주 가격은 213.8센트/갤런으로 6월말보다 2.9% 상승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2.9% 하락한 상태를 기록했다.

표 5. 에탄올 주간 평균가격변화 비교

	2013.7.29	2014.6.30	2014.7.28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에탄올	220.3	207.9	213.8	-2.9	2.9

주: 에탄올(CME선물)은 센트/갤런: 변화율은 2014년 7월 마지막 주 평균가격의 전년 동기(2013년 7월 마지막 주)와 전월(2014년 6월 마지막 주)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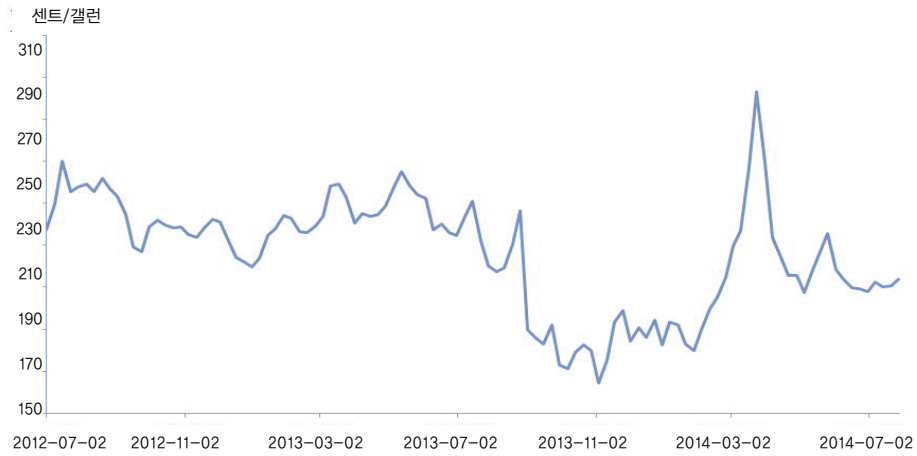
에탄올시장은 지난 6월 재고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했지만 7월에는 다시 상승으로 반전되었다. 에탄올 생산량은 6월에 이어 7월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루 95만 배럴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낮은 옥수수가격과 여름철 휴가시즌에 따른 가솔린 수요증가에 기인한다. 옥수수가격이 7월에 추가 하락하면서 에탄올 생산마진이 6월에 비해 더욱 개선되었고 이는 에탄올 생산기업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가솔린 소비량은 6월에 하루 900만 배럴 아래로 감소했지만 7월 후반으로 갈수록 소비량이 증가했다. 에탄올 생산과 소비가 모두 증가하면서 에탄올 재고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6월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었다. 2014년 들어 에탄올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2014년 8월말까지인 '13/14 마케팅연도에 141억갤런의 에탄올이 생산되어 전년 생산량 128억 갤런보다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브라질 에탄올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에탄올의 수출경쟁력이 상승했으며 미국 가솔린 가격에 비해 에탄올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자 에탄올 수요가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에탄올 생산과 소비가 모두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미국 에탄올 생산 및 옥수수 소비량 추이

주간	에탄올 생산량 (천 배럴/일)	에탄올 재고량 (백만 배럴)	가솔린 소비량 (천 배럴/일)	옥수수 소비량 (백만 부셀)
2014/4/25	898	17.1	8,693	13.62
2014/5/30	938	18.3	9,104	14.22
2014/6/27	953	18.2	9,168	14.45
2014/7/11	943	17.9	9,057	14.30
2014/7/18	959	17.9	8,792	14.54
2014/7/25	954	18.6	9,006	14.47
2014/8/1	902	18.3	9,359	1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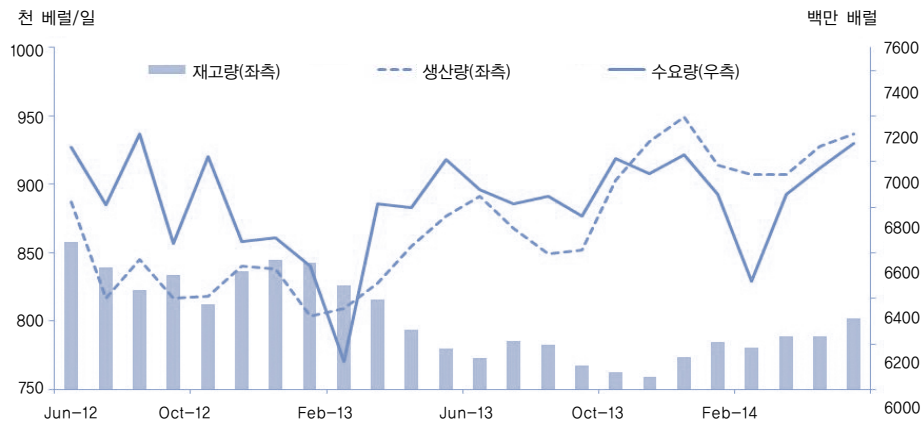
자료: Renewable Fuels Association

그림 5. 미국 CME 에탄올 주간가격 추이



자료: KoreaPDS

그림 6. 미국 월별 에탄올 수급 및 재고량 추이



자료: Renewable Fuels Association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정영두(캠코선박운용 차장)*

2014/15시즌 곡물 물동량은 소맥 물동량이 비교적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옥수수와 대두 물동량은 전 시즌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 시황은 7월에 저점을 기록한 뒤 최근 들어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특히 금년 4분기 본격적인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으로 시황 급변동에 따른 적극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1.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 세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개관)

표 1. 세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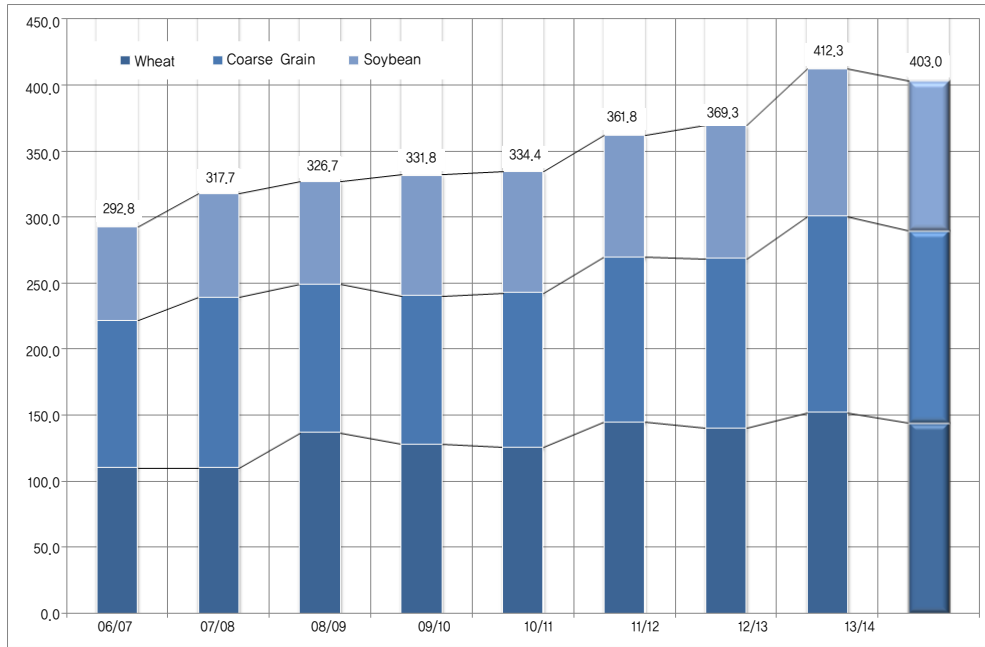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Wheat (a)	128.1	125.7	144.8	140.5	152.2	144.1
Coarse Grain (b)	112.3	117.0	124.8	128.1	148.5	145.6
Soybean (c)	91.4	91.7	92.2	100.7	111.6	113.3
Total (a+b+c)	331.8	334.4	361.8	369.3	412.3	403.0
전년 대비 증감률(%)	1.6	0.8	8.2	2.1	11.7	-2.3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JULY, 2014.

* ydjung@kamcosimc.com, 02-2189-5512.

그림 1. 세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JULY, 2014.

영국의 해운시황 전망 기관인 ‘Clarkson’은 최근 자료에서 2014/15 시즌 대두(Soybean)를 포함한 곡물 해상 물동량이 전 시즌 대비 2.3% 감소한 ‘4.03 억 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곡종 별로 보면 소맥 물동량이 전 시즌 대비 8% 가량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Coarse Grain 물동량 또한 2% 가량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대두 물동량은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월 전망치와 비교해 보면 2014/15 시즌 소맥과 대두 물동량은 전월 전망치와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Coarse Grain 물동량은 전망치가 ‘3300 만 톤’ 상향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 등 주요 곡물 수출국들의 작황이 개선되며 수출 여력이 증가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한편 U.S.D.A(美 농무성)은 8월에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서 2014/15 시즌 소맥 수출량이 전 시즌 대비 6.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같은 기준으로 옥수수는 4.6% 감소, 대두는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I.G.C(세계 곡물 위원회)는 2014/15년 소맥 물동량이 전 시즌 대비 5.2% 감소하는 한편 옥수수는 3.3% 감소할 것으로, 대두 물동량은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Clarkson, USDA, IGC 세 기관들의 2014/15 시즌 곡물 물동량 전망치는 수치상 차이가 있으나 소맥 물동량 감소폭이 가장 크고 옥수수 물동량이 소폭 감소하며 대두 물동량은 증가할 것이라는 큰 흐름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대륙별 곡물 수입량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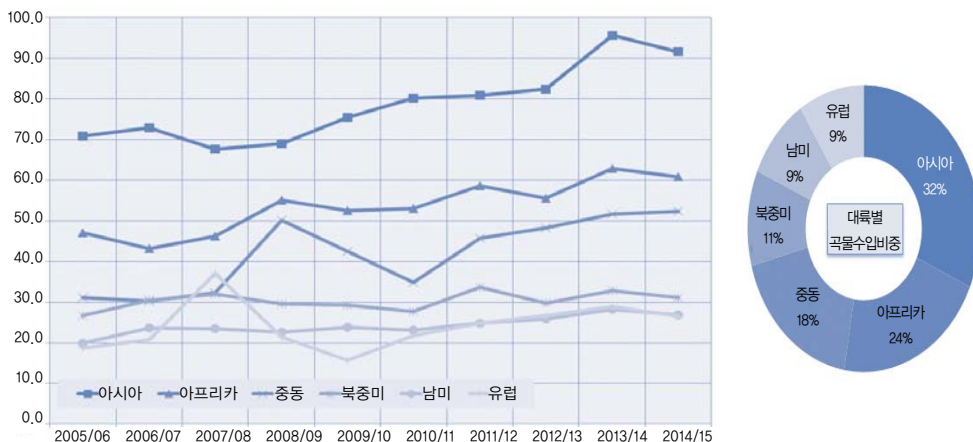
표 2. 대륙별 곡물 수입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증감률 (%)
세 계	243	270	266	297	289	-2.7
아 시 아	80.2	80.9	82.4	95.6	91.6	-4.2
아프리카	53.1	58.6	55.5	62.9	60.9	-3.2
중 동	34.9	45.7	48.3	51.6	52.4	1.6
북 중 미	27.7	33.7	29.7	32.9	31.2	-5.2
남 미	23.1	24.8	25.8	28.3	26.8	-5.3
유 럽	21.8	24.8	26.7	28.9	26.5	-8.3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JULY, 2014.

그림 2. 대륙별 곡물 수입 추이와 전망 및 수입 비중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JULY, 2014. / ※ 대륙별 곡물 수입 비중은 2014/15 시즌 기준

대륙별 곡물 수입량 추이를 보면 2014/15 시즌에는 중동 지역을 제외한 모든 대륙의 곡물 수입량이 전 시즌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 남미, 북중미 대륙의 수입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곡물 수입량의 32%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2014/15 시즌 곡물 수입량은 전 시즌 대비 4%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이 35% 가량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이는 지난 2013/14 시즌에 중국의 작황이 매우 좋지 않아 수입량을 늘렸던 것이 2014/15 시즌 들어 원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세계 최대 곡물 수입국인 일본의 2014/15 시즌 수입량은 전 시즌 대비 3% 증가한 '2430만 톤'으로 전망되며 대한민국은 4% 증가하는 반면 대만은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전 세계 곡물 수입량의 2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4/15 시즌 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3%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가장 곡물을 많이 수입하는 이집트의 2014/15년 수입량은 전 시즌 대비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알제리 등도 수입량이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지역의 경우 2014/15 시즌 곡물 물동량이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 곡물 수입의 약 18%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는 2014/15 시즌 사우디의 수입량이 전 시즌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이라크와 이스라엘 등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이란, 예멘 등은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남미 지역에서는 2014/15 시즌 브라질의 곡물 수입량이 전 시즌 대비 13% 가량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유럽 지역은 구 소련권 국가들은 곡물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른 지역은 감소하며 전체 수입량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소맥 수출량 추이와 전망

표 3. 주요 국가별 소맥 수출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증감률 (%)
세 계	125.7	144.8	140.5	152.2	144.1	-5.3
미 국	35.7	27.9	27.5	31.1	26.5	-14.8
유 럽	22.1	15.6	21.7	30.4	25.5	-16.1
캐 나 다	16.3	18.2	18.7	21.9	22.6	3.2
호 주	18.5	23.1	21.3	18.5	18.9	2.2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JULY, 2014.

그림 3. 주요 국가별 소맥 수출 추이와 전망 및 수출 비중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JULY, 2014. / ※ 국가별 소맥 수출 비중은 2014/15 시즌 기준

2014/15 시즌 전 세계 소맥 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5.3% 감소한 약 '1.4 억 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월 전망치와 거의 변화가 없는 수치이다.

전 세계 소맥 수출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2014/15 시즌 수출량이 '2650 만 톤'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 시즌 대비 15% 가량 크게 감소한

수치이며 전월 전망치 대비 ‘210 만 톤’ 하향 조정된 수치이다.

미국과 거의 비슷한 18%의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2014/15 시즌 물동량이 전 시즌 대비 16% 가량 크게 감소한 ‘2550 만 톤’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미국의 수출량 전망치와는 달리 금월 전망치는 전월 대비 ‘200 만 톤’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는 수출 비중이 각각 16%와 15%로 집계되며 2014/15 시즌 수출량 전망치는 전 시즌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금월 전망치는 전월 전망치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2014/15 시즌 소맥 물동량은 미국과 유럽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캐나다와 호주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Coarse Grain 수출량 추이와 전망

Coarse Grain 물동량의 경우 2014/15 시즌 물동량이 전 시즌 2% 가량 감소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월 전망치 대비 ‘330 만 톤’ 가량 크게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전체 수출국 중 33%에 달하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2014/15 시즌 수출량이 전 시즌 대비 4.1% 증가한 ‘4770 만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월 전망치 대비 ‘70 만 톤’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특히 2014/15 시즌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등급 또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미국의 Coarse Grain 수출량 전망치는 계속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2014/15 시즌 수출량이 전 시즌 대비 36% 가량 크게 증가한 ‘2170 만 톤’을 기록하며 지난 시즌 잠시 빼앗겼던 2위 수출국 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금월 전망치는 전월 대비 ‘10 만 톤’가량 소폭 하향 조정되었다.

우크라이나는 2014/15 시즌 수출량이 전 시즌 대비 10% 가량 줄어든 ‘2030 만 톤’으로 전망되나 전망치 자체는 전월 대비 상향 조정되고 있고 정정 불안이 계속되며 앞으로도 전망치는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표 4. 주요 국가별 Coarse Grain 수출 추이와 전망

구 분	단위: 백만 톤					증감률 (%)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세 계	117.0	124.8	128.1	148.5	145.6	-2.0
미 국	52.0	44.7	22.3	45.8	47.7	4.1
아르헨티나	18.5	20.2	28.1	16.0	21.7	35.6
우크라이나	7.9	16.1	15.9	22.6	20.3	-10.2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JULY, 2014.

그림 4. 주요 국가별 Coarse Grain 수출 추이와 전망 및 수출 비중



자료: Clarkson, Dry Bulk Trade Outlook, JULY, 2014./ ※ 국가별 Coarse Grain 수출 비중은 2014/15 시즌 기준

■ 대두 수출량 추이와 전망

2014/15 시즌 대두 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1.5% 증가한 약 '1.1 억 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월 전망치 대비 큰 차이가 없는 수치이다.

2014/15 시즌 미국의 대두 수출량은 전 시즌 대비 3.4% 증가한 '4560 만 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월 전망치 대비 '140 만 톤'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옥수수과 마찬가지로 최근 미국의 작황이 호조를 보이며 생산량이 늘고 있어 신곡 수출

전망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2014/15 시즌 대두 수출량이 전 시즌 대비 1.6% 감소한 ‘4500 만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월 전망치와 변동이 없는 수치이며 미국과 거의 비슷한 양을 수출하며 시장을 양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주요 국가별 대두 수출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증감률 (%)
세 계	91.7	92.2	100.7	111.6	113.3	1.5
미 국	41.0	37.2	35.9	44.1	45.6	3.4
브 라 질	30.0	36.3	41.9	45.8	45.0	-1.6
아르헨티나	9.2	7.4	7.7	8.5	8.5	0.0

자료: USDA

그림 5. 주요 국가별 대두 수출 추이와 전망 및 수출 비중



자료: USDA / ※ 국가별 Soybean 수출 비중은 2014/15 시즌 기준

■ 세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분기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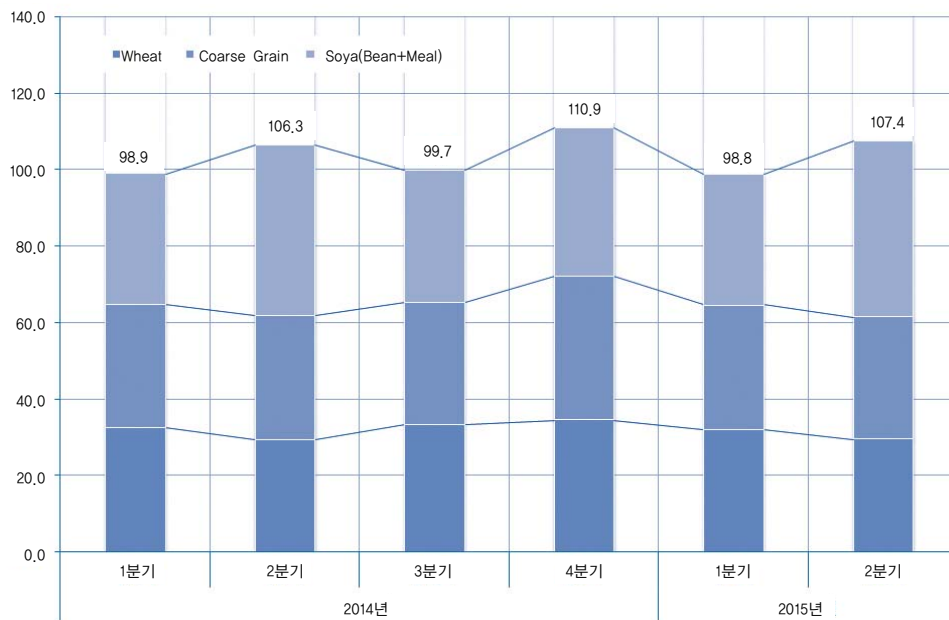
표 6. 분기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4년 1분기	2014년 2분기	2014년 3분기	2014년 4분기	2015년 1분기	2015년 2분기
Wheat	32.4	29.4	33.3	34.5	31.9	29.5
Coarse Grain	32.2	32.4	31.8	37.6	32.6	31.9
Soy(bean+Meal)	34.3	44.5	34.6	38.8	34.3	46.0
Total	98.9	106.3	99.7	110.9	98.8	107.4

자료: SSY Dry Bulk Forecaster, AUG, 2014.

그림 6. 분기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SSY Dry Bulk Forecaster, JUNE, 2014.

영국의 해운 시장 리서치 기관인 'SSY'가 집계한 분기별 곡물 물동량 추이를 살펴보면 금년 3분기 곡물 물동량은 2분기 대비 6%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대두와 대두박 물동량 감소에 원인이 있다. 반면 3분기 소맥 물동량은 2분기 대비 13% 가량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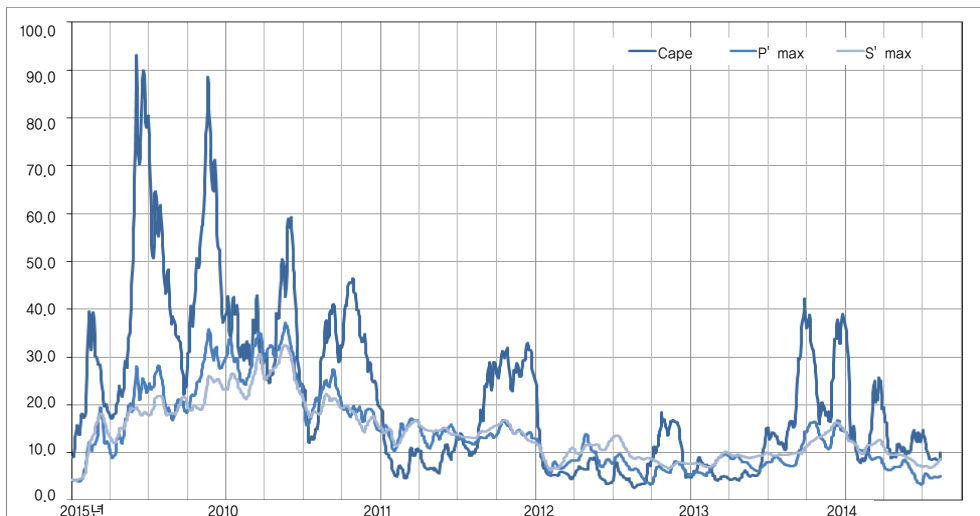
4분기에는 통상적으로 북반구 지역의 신곡 수출이 증가하면서 물동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금년 4분기 곡물 물동량은 3분기 대비 11% 가량 크게 증가하며 P'_{max} 와 S'_{max} 시황 상승 압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곡종별로는 4분기 Coarse Grain 물동량이 전 분기 대비 18% 가량 크게 증가하는 한편 대두박을 포함한 대두 물동량 또한 증가율이 12% 선에 이를 전망이며 소맥의 경우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은 3.6%로 예상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미국의 작황이 호조를 보이며 옥수수과 대두 생산량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됨에 따라 4분기 곡물 수출량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건화물선 운임 상승에 대한 선주들의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2. 곡물 해상운임 추이와 전망

■ 최근 건화물선 시황

그림 7. 최근 건화물선 선형별 용선료 변동 추이



자료: Baltic Exchange

최근 건화물선 시황은 석탄과 곡물을 주로 운송하는 Panamax 선형을 중심으로 시황 약세가 계속되며 7월에 건화물선 운임 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브라질 중국 간 철광석 화물이 조금씩 증가하며 Cape 시황이 반등하는 한편 Panamax 시황도 저점을 인식한 뒤 동반 상승세를 시현, 최근에는 모든 선형에서 상승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형선 시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철광석 물동량의 경우 상반기까지 중국의 금융 규제와 재고 부담 등으로 증가 폭이 크지는 않았으나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브라질의 수출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시황 상승 요인이 많아지며 운임 또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석탄 물동량의 경우 금년에 가장 저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의 환경 규제 등에 따른 물동량 감소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다른 선형에 비해 P'max 시황이 더 저평가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인디아의 가뭄으로 인해 수력 발전량이 크게 줄어드는 한편 화력 발전을 위한 연료탄 재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로 단기적인 물동량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곡물 물동량 또한 계절적인 영향과 동시에 중국이 곡가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수입하지 않는 등 물동량 감소 요인이 많아지며 시황 약세로 이어졌다.

8월 들어 전 선형에 걸쳐 시황 회복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Cape 시황은 최근 들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P'max 선형 또한 시황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공감대 번지며 장기 기간 용선으로 선박을 확보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S'max 시황 또한 흑해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곡물 선적량이 증가하며 전반적인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다.

금년 4분기 건화물선 시황은 상반기 대비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특히 Cape 시황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선물 시장에서는 동 선형의 용선료가 현물 대비 2배 이상 높은 약 \$27,000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 곡물 해상운임 추이와 전망

표 7. 수역별 · 기간별 곡물 운임 현황

단위: US\$/MT

기 간		USG 운임	PNW 운임
2014년	9월	50.75	27.61
	10월	52.44	29.45
	11월	52.74	30.11
	12월	51.16	29.44
	4분기	52.11	29.67
2015년		52.21	29.77
2016년		52.75	30.27

자료: 캄코선박운용(주)

영국의 다른 해운 시장 분석 기관인 ‘Drewry’는 지난 7월 미국 동부 지역에서 선적하여 일본에서 양하하는 곡물 운임(이하 USG 운임)이 톤 당 \$40.4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전월 대비 톤 당 \$1.60 낮은 수준이며 금년도 전체 평균값인 \$47.0 대비 톤 당 \$6.6 낮은 수치이다.

현재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운임도 7월 운임 대비 조금 높은 약 \$44 수준으로 계산되는데 선물 시장에서의 USG 운임은 스팟 마켓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단 4분기 시황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신곡 출하에 따른 운임 상승 예상으로 매우 큰 Contango 현상이 나타나며 4분기 USG 운임이 현물 대비 톤 당 \$8.0 가량 높은 \$52.11 선으로 계산되고 있으며 PNW 운임 또한 4분기 운임이 \$30.0 선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년 6월에서 7월에 걸쳐 해운 시장의 단기 저점은 지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금년 4분기까지 시황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중국이 작년처럼 많은 철광석을 일시에 수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시황 상승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과, 브라질의 자원 밀어내기 수출로 인해 작년 보다 더 큰 사이클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4분기 시황이 적어도 현재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상은 거의 모두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part

02

해외곡물산업 포커스

2012 World Grain Market



국제 곡물무역을 주도하는 다국적 농기업의 특성과 과제 / 83

호주 곡물 수출 유통 단계별 비용 분석 / 100

국제 곡물무역을 주도하는 다국적 농기업의 특성과 과제

임송수(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2.9%에 불과하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¹⁾ 품목별로 살펴보면, 쌀 86.1%, 보리 16.9%, 밀 0.7%, 옥수수 0.9%, 콩 9.5%이다. 사료용 곡물을 뺀 식량 자급률도 45.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자급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식량안보를 강조해 온 스위스 52%(2009년 기준)이나 일본의 23.2%(2009년 기준)보다도 낮다.

이처럼 국내 식량 수요 상당부분을 외국의 공급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또한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특성 속에서 식량안보는 농정의 중요한 우선순위이다. 이를 위해 국내생산의 유지나 확충을 강조해 왔으며, 1990년대 후반(외환 보유액과 환율 위험)과 2000년 후반(가격 폭등) 각각 경험했던 국제시장의 커다란 변동성과 수출국들에 의한 곡물 수출제한과 같은 무역조치가 식량안보를 실제로 위협할 수 요인으로 널리 인식되었다(John 2014).

이밖에도 국제 곡물무역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소수의 다국적 농기업에 의한 무역 독점 문제가 흔히 제기된다. 이른바 곡물 메이저에 의한 시장 집중화는 “농업의 산업화(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내지 “식량

* songsooc@gmail.com, 02-3290-3033.

1) 자급률 산출에 포함된 품목은 쌀, 보리, 밀,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등이다.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국내 소비량은 식용뿐만 아니라 사료용, 가공용, 종자용, 감모량 등을 포함한다.

공업화(food manufacturing)”로 대변되는 구조조정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²⁾ 또한 세계화(globalization)는 세계적으로 확대된 공급체인 속에서 식량이 마치 일반적인 상품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대규모 생산체제 아래 표준화 되어 유통되도록 기여하였다(Scanlan 2013).

이 글은 다국적 기업에 의한 곡물의 국제무역에 관련하여 국제 NGO의 비판적 관점이 반영된 Murphy et al.(2012)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들 기업의 비즈니스 형태와 특성 및 과제를 중심으로 다룬다.

2. ABCD 농기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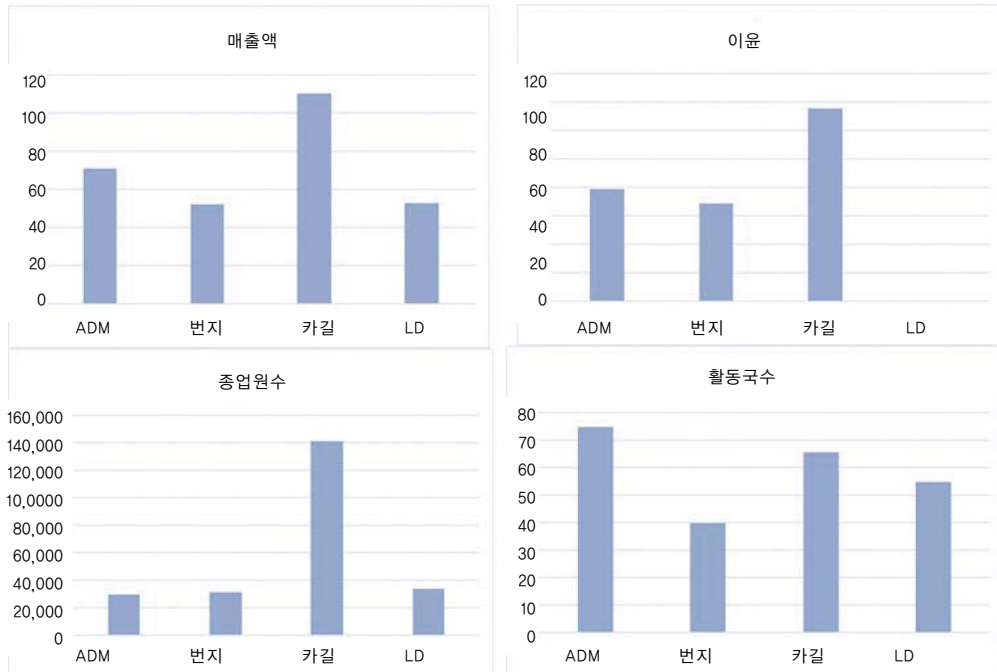
국제 곡물무역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농기업은 아처 다니엘스 미드랜드(Archer Daniels Midland: 이하 “ADM”), 번지(Bunge), 카길(Cargill), 루이스 드레퓔스(Louis Dreyfus; 이하 “LD”) 등 이른바 ABCD업체이다.³⁾ ABCD 농기업의 분석표를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ABCD 중 최대 규모의 농기업은 카길로 2011년 매출액이 1,195억 달러(약 122조 원)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의 LG 그룹 매출액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그 다음은 ADM이 807억 달러(약 82조 원), LD가 596억 달러(약 61조 원), 번지가 587억 달러(약 69조 원) 순이다.

ABCD 농기업의 경제활동 범위도 상당히 폭 넓다<표 1>. 곡물이나 기타 농산물의 직접 무역뿐만 아니라 곡물과 육류의 가공, 비료와 종자 등 농자재 공급, 자본 서비스와 보험, 운송과 보관, 금융서비스와 농지획득 등도 비즈니스 대상이다. 아래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으나, 예를 들면, 카길과 ADM 및 번지는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콩의 60% 가량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농가에 대한 종자와 비료 및 농약 등 각종 농자재 공급도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ABCD 농기업이 주도하는 시장 지배력은 무엇보다 곡물 엘리베이터와 기차와 배 등 운송수단 및 물류체제를 독점적으로 운용하는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2) <http://libertyparkusafd.org/lp/NatureFirst%20USA/food%20industry/Rising%20Market%20Control%20of%20Transnational%20Agribusiness.pdf>

3) 기업의 영문 이름에서 첫 글자를 따서 ABCD로 지칭한다.

그림 1. ABCD 기업의 분석표



주: 1. 매출액과 이윤은 10억 단위 기준임.
2. 매출액과 이윤은 2010-11년 평균임.

자료: Murphy et al.(2012)

2.1. ADM(Archer Daniels Midland)

ADM은 1902년에 설립되어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는 공개된 기업이다. 미국에 본부가 있다. 주요 품목은 밀, 옥수수, 팜유, 코코아 등인데 이들의 가공시장 규모 측면에서 세계 3위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Cropwatch 2012). ADM은 가공식품 이외에도 가축 사료, 농화학제, 에너지 관련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75개국에서 총 265개 품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농산물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품목은 콩이다. ADM은 브라질에서 대규모 콩 가공 산업을 구축하고 있으며,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에서 가공 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 제1위의 코코아 콩 가공업체로서 ADM은 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로부터 원료를 조달하고 있다. 팜유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세계 최대 팜유 무역기업인 월마(Wilmar International)가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이다. ADM는 월마 지분의 16%를 소유하고 있다.

표 1. ABCD 업체의 경제활동 영역

분야	대상	ADM	번지	카길	LD
상품	콩, 유지종자	√	√	√	√
	팜유	√	√	√	√
	옥수수	√	√	√	√
	밀	√	√	√	√
	주스(감귤류)			√	√
	코코아	√		√	
	커피				√
	설탕	√	√	√	√
	면화	√		√	√
	쌀		√		√
가공	곡물 제분	√	√	√	√
	기름 압착	√	√	√	√
	가공 식품	√	√	√	
	가축 사료	√	√	√	√
	바이오 연료 생산	√	√	√	√
	농산물 기반의 산업재	√	√	√	
	육류, 가공육, 달걀			√	
농자재 서비스	비료	√	√	√	√
	종자 판매			√	√
	계약 영농	√	√	√	√
	농가 자문서비스		√	√	√
	보험	√		√	
	축산농가 계약			√	
저장 운송	엘리베이터/저장	√	√	√	√
	운송	√	√	√	√
투자 위험관리	금융 서비스	√	√	√	√
	농지 획득	√	√	√	√

자료: Murphy et al.(2012)

이밖에도 ADM은 가축 사료, 중간재, 농화학제 등을 생산함으로써 중국에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에서 ADM은 제2위의 에탄올 생산업체이고 유럽시장에서는 바이오 디젤 생산업체로 알려져 있다.

2.2. 번지(Bunge)

1818년에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번지는 19세기에 그 비즈니스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확장하였다. 그러다가 그 본부가 1999년에 미국으로 이전되었다. 이런 연유로 세계화의 흐름에 상대적으로 늦게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남미의 곡물 무역에서 최고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번지는 남미 최대 비료 생산업체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400여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번지가 취급하는 대표적인 품목은 곡물, 유지종자, 설탕, 원당에 기반한 에탄올 등이다. 특히 콩기름의 세계 최대 생산업체이며, 주로 브라질의 원당을 에탄올로 전환하는 바이오연료 생산업체이다. 다른 농기업과 마찬가지로 번지도 중국과 인도에서 그 경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3. 카길(Cargill)

카길은 미국 최대 민간 기업이며 규모가 가장 큰 무역업체이다. 1865년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두 가계가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다양한 농산물과 농자재 및 서비스를 취급하고 있는데, 카길의 비즈니스 사업영역은 크게, ① 농업 서비스, ② 식품 재료 및 활용, ③ 가공, ④ 위험관리와 금융, ⑤ 산업 등 5개이다. 각 영역별로 여러 개의 비즈니스 단위가 구성되어 있다.

카길은 미국의 최대 곡물업체일뿐만 아니라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애완동물 식품을 다루는 주요 생산업체이며, 최대 정육업체 중 하나이다. 카길의 지점들은 곡물과 소고기를 호주에서 조달하여 가공하고, 콩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팜유와 가축 사료는 말레이시아, 팜유와 코코아는 인도네시아, 곡물과 유지종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면화는 우즈베키스탄, 코코아는 가나 등에서 공급받는다.

2.4. LD(Louis Dreyfus)

LD는 1851년에 설립되었고 오늘날 본부는 프랑스에 있다. 가족이 경영하는 기업이며 주식의 20% 가량은 종업원이 소유하고 있다. 네덜란드에 본부를 둔 산하의 “LD 상품(Commodities)”이 주로 곡물과 유지종자, 커피, 설탕, 밀, 쌀 등을 취급한다. 특히 “LD 상품”은 쌀과 면화의 주요 무역업체이며, 전세계 오렌지주스 생산량의 15%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업체 중 하나이다.

LD는 브라질의 에탄올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최대 바이오디젤 정유시설을 소유하고 있다. LD는 연간 약 136만 톤의 콩, 가축 사료용으로 100만 톤의 대두박, 3억 리터 이상의 바이오디젤 등을 각각 처리하고 있다.

3. ABCD 농기업의 경영 특성

ABCD 농기업은 그 규모나 사업 영역에서 차이를 나타내지만 곡물과 기타 식량을 무역하는 다국적 기업으로서 공통된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권력으로서 자본(capital as power)이란 관점과 식량의 정치경제 틀 속에서 주요 농기업의 독점권을 분석할 수 있다.

이를 나타내는 10가지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농가 대상의 생산 자원을 통한 곡물 확보

농기업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곡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고 이를 공급받고 있다. 농가의 의사결정 특히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나, 어느 시장에 등과 관련된 질문들을 답하는데 농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기업들은 투입요소와 다른 서비스를 농가에 직접 제공하고 수확기에 농가로부터 곡물을 확보한다.

이러한 농기업의 전략은 농가로부터 곡물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가가 어떤 곡물을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연관된다. 특히 전문적으로 훈련된 팀을 구성하여 농가와 1:1의 장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농가의 경영을 이해하고 그 수요에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해결책은 범위와 내용 측면에서

다양하나, 예를 들면, 농업인에 대한 건강관리, 집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까지 제공한다. 농기업과 연계된 농화학 및 종자회사를 통해 기술적인 패키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카길은 몬산토(Monsanto)와 연계되어 있으며, ADM은 신젠타(Syngenta, 이전의 노바티스(Novartis))를 통해 농업 투입재와 기술을 농가에 제공하고 있다.

3.2. 가격 설정과 시장 지배력

국제 시장에서 대량의 곡물을 거래할 수 있는 농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 농기업은 대규모 물량을 구입하면서 가격 설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농가와 직접 맺은 계약도 그렇지만 농가가 출하한 곡물 엘리베이터와 관계에서 이러한 시장 지배력이 형성된다. 브라질의 곡물 엘리베이터는 대부분 번지와 카길이 소유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농기업이 거래하는 다른 중간 거래상이 존재한다.

이처럼 ABCD 농기업은 아메리카와 같은 주요 수출국가의 국내 및 수출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지닌다. 또한 이전에 장악했던 시장인 호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농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 ① 수평적 권력과, ② 수직적 권력이다. 모래시계로 묘사되는 수평적 권력은 “수많은 농가와 생산자 → 다수의 엘리베이터 → 소수의 가공업체와 수출업체 → 수많은 소비자”의 구조에 의존하는 농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발생한다.

수직적 권력은 농업의 가치사슬에서 농기업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에서 비롯된다. ABCD 농기업은 엘리베이터로부터 곡물을 구입하여 그 중의 대부분을 가공한다. 농기업의 산하 업체들은 가공된 곡물의 대부분을 가축의 사료나 바이오 연료의 원재료로 소비한다. 이러한 수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의 체계아래에서는 가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데, 곡물이 내부 운영비용의 일환이지 개방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기업들은 그 규모를 통해 새로운 업체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그 시장 지배력을 키워왔다. 사업 자체도 초기 투자비용이 높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기존 농기업의 권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다국적 기업의 특성 때문에 세금 수준도 과하지 않다. 새로운 업체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은 독과점 시장이 유지될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곡물 산업은 규모의 경

제에 기반한 효율성과 경쟁력이 중요한 성공 요인이므로 기존의 독과점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독과점은 공급자에 의한 시장 가격의 설정 권한과 직결된다. 반대로 소비자들은 공급자가 설정한 가격을 단순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 시장 지배력에 근거한 지속적인 이윤 창출은 결국 규모의 경제를 확충시켜 농기업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정보의 비대칭도 마찬가지이다. 소비자가 국제시장의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독과점적 가격에 저항할 수 있을 테지만, 시장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3.3. 대규모의 곡물 무역

ABCD 농기업이 특화한 농산물은 낮은 이윤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생산되고 무역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무역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은 시장 가격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운송비, 환율, 엘리베이터 소유권과 기타 하부구조 등과 같은 시장 요인들과 수출신용(export credits), 원조 정책, 보조, 조세조치 등을 포함하는 정부 정책도 이윤에 영향을 미친다.

곡물 무역기업의 이윤은 단순히 판매가격의 일정 부분(%)이라 할 수 없다. 농기업들은 대규모 곡물 무역과 관련된 다른 활동 곧 농산물 시장을 대상으로 한 금융 투기와 인덱스 펀드(index fund), 운송, 저장 등에서도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세계시장에서 곡물가격이 농기업의 이윤에 중요하지만 가격의 등락과 상관없이 농기업들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비결은 대규모 무역을 유지하는 데 있다.

곡물기업들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바지선, 열차, 배 등의 가용도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높은 가격보다 이윤을 창출하는 데 더 중요할 때도 있다. 그 이유는 먼저, 농기업들이 곡물이 투입 비용으로 간주되는 부가가치 활동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곡물 가격이 폭등했던 2008년의 경우 ABCD 농기업의 자회사인 일부 축산기업들이 손실을 입었으나, 이는 카길이나 번지의 경우 비료사업과 같은 다른 활동을 통해 상쇄시킬 수 있었다.

둘째, 농기업들은 정보의 접근 측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지니기 때문이다. 곡물의 수급 변화와 전망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해 농기업들은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변동이 큰 가격은 지식을 갖춘 투자자에게 호재가 되기 때문이다.

3.4. 원재료와 투입재 농산물에 초점

대규모 농기업들은 최종재로서 곡물보다는 가공식품에 필요한 투입재, 가축 사료, 바이오 연료 생산, 산업용 목적의 가공 등의 활동에 중점을 둔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콩, 밀, 옥수수, 팜유 등은 특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농산물이므로 서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 이들 농산물은 주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거나 무역된다. 다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특성으로 ABCD 농기업의 자회사인 이들의 활동은 일반 소비자가 잘 알지 못한다.

3.5. 운송, 저장 및 로지스틱(logistics)

대규모 곡물의 무역에는 저장, 운송, 출하 등 상당한 수준의 계획과 관리업무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육로와 해상을 통한 다양한 곡물의 운송과 화물의 기획 및 추적 등이 포함된다. ABCD 농기업은 이런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개발해 왔으며, 이를 통해 무역업체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농기업들은 국제 곡물무역에 필요한 국제 저장 및 출하체계를 소유하고 운용한다. 이러한 곡물 체계는 식량원조의 전달에 활용되기도 한다.

ABCD 농기업이 유지하는 곡물의 재고량은 비밀로 간주되어 공개되지 않는다. 1980년대부터 미국과 EU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공공비축 제도를 차츰 완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ABCD 농기업은 재고량을 늘려왔다. 이러한 재고량의 변화는 곡물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보는 농산물 파생상품에 관한 농기업의 투자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ABCD 농기업의 저장 기능은 그들의 경영 활동과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3.6. 인수 합병을 통한 지속적인 규모 확대

ABCD 농기업의 확대와 성장은 주로 농업 투입재를 활용하여 생산하는 바이오 연료나 산업용 제품과 같은 신제품 확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다른 중요한 요소는 다른 기업에 대한 인수와 합병이다. 예를 들면, 카길은 컨티넨탈 곡물(Continental Grain)을 합병하였고 ADM은 토에퍼(A.C. Toepfer)를 인수하였다. 카길은 또한 2010년에 새롭게 민영화된 호주 밀 위원회(Australian Wheat Board)를 사

들었으며, 인도네시아의 소리니(Sorini Agro) 기업 지분의 85%도 가졌다. 소리니 기업은 세계 제2위의 소르비톨(sorbitol) 생산기업인데, 소르비톨은 인공 감미료에 사용되는 설탕 알코올이다.

이러한 인수 합병은 규모화를 통해 효율을 높이고, 가장 낮은 비용으로 투입재를 국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기업들이 당면한 스트레스는 성장에 필요한 새로운 자본을 찾는 일인데, 이러한 압박에 의해 번지는 지분을 공개하고, 카길은 비료 자회사를 공개매각하기도 하였다.

3.7. 토지운용과 원재료 확충의 신축성

농가의 생산을 지원하는 특성상 ABCD 농기업에 있어 중요한 것은 농지에 관한 접근이다. 농지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요인은 농지소유와 통제에 관한 지역 규정, 농업 노동자 문제, 농지 획득 비용 등 다양하다. 농기업에 농지에 접근하는 수단은 ① 계약 영농, ② 대규모 농업 생산자와 공급계약, ③ 직접 생산을 위한 토지 임차, ④ 직접 생산이나 임차를 위한 토지 소유 등이다.

계약 영농에 관한 사례로는 ADM가 멕시코 기업인 마세카(Maseca)의 지분 22%를 소유하고 밀 생산 계약을 체결한 것을 들 수 있다. 마세카는 멕시코의 최대 옥수수 밀가루와 토틸라(tortilla) 생산자이다. 농지를 직접 소유한 사례는 많다. 예를 들면, 카길은 인도네시아의 팜유 농장 2곳을 운용하고 있다.

3.8. 독립적 토지 접근

농기업이 소유한 토지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다. 금융 자회사가 공유한 토지일 수 있고 모기업에 토지를 임대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LD 자회사인 LD 상품(LD Commodities)은 칼릭스(Calyx Agro)를 설립하여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에서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영농 계약을 통해 이러한 토지를 관리하고 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토지의 임차 조건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농기업들이 혁신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농지에 접근하는 방식은 미래의 개발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다. 다국적 식품회사들은 플랜테이션(plantation) 형태의 생산이나 생산 위험에 직접 관련되는 것을 회피하고 있으나 물이나 토양과 같은 천연자원에 관한

접근과 이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가 상승하고 있어 이런 추세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3.9. 적극적인 위험 및 금융관리

국제 곡물 무역에는 상당한 수준의 위험이 따른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 흉작, 정치 및 경제 환경의 변화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장기 공급체인에 고정됨으로써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가격과 달리 농기업이 관리하는 곡물은 부피가 크고, 저장에 큰 비용이 필요하며, 특정 기간에 수확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따라 농기업은 수급과 관련하여 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게 된다. ABCD 농기업의 금융 및 위험관리 부서는 규모가 크고 경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을 위해 선물시장에 참여한다. 헤지펀드(hedge fund)와 다른 금융수단을 동원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수익증대를 추구한다.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율에 대해서도 헤지(hedge)하고 있다.

ABCD 농기업은 자산관리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농업이나 식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2004-11년에 카길은 작물 영양소와 사료 원재료의 세계적인 생산 기업인 모자익(Mosaic) 주식의 2/3를 소유하였다. 카길은 또한 2003년에 자산 규모가 50억 달러에 이르는 헤지펀드(Black river Asset Management)를 설립하여 세계 식품과 농지자산에 투자하였다. 이 헤지펀드의 투자 대상에는 남미의 양식장, 중국의 유제품 산업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현상은 상품시장 및 농업 생산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추세에 부합한다. 많은 민간자본, 자산관리 기업, 연기금,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들이 농산물 선물, 농지, 생산된 농작물 등 이른바 “대체 자산(alternative assets)”에 투자하고 있다. 지금까지 위험 수준이 너무 높아 투자대상에서 배제되었던 농업 관련 자산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3.10. 법규정 설정에 적극적인 참여

대규모 농기업들은 농식품 산업의 틀 안에서 제정되는 법규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직접 로비, 정부의 의사결정 자리에 자사의

직원 심기(회전문 인사(revolving door)), 로비를 위해 전직 공무원의 자사 고용 등 다양한 채널을 동원한다. 이 밖에도 무역, 생산, 투자규정에 관한 다양한 공공 토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농기업들은 산업의 민간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예를 들면, 각 ABCD 농기업은 지속 가능한 팜유 원탁회의(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에 참여하고 있으며, UN의 비즈니스와 인권 회의에도 동참한다. 자사 활동과 비즈니스에 대한 공공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 미디어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ABCD 농기업 모두 세계의 기아 종식과 환경보호가 기업 활동의 중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4. ABCD 농기업의 과제와 시사점

ABCD 농기업의 활동은 세계 농식품 체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바이오 연료에 대한 투자와 운영, 농산물 파생상품 무역의 적극적인 참여, 식량과 사료 및 연료의 생산 기반으로서 대규모 농지의 인수와 합병, 금융투자 등이 식량가격과 소농의 삶에 미치는 연계를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이처럼 ABCD로 대표되는 대규모 농기업이 세계 식량체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난 150년 동안 커져왔다. 특히 2002-12년에 AMD, 번지, 카길로 구성된 무역 기업군(Trader-Core)의 연평균 이윤 성장률은 26.7%로 소매 기업군(Retail-Core: 월마트(Wal-Mart), 테스코(Tesco), 까르프(Carrefour) 등 상위 10대 기업)의 1.6%, 식품 기업군(Food-Core: 네슬레(Nestle), 펩시코(Pepsi-Co), 크래프트(Kraft) 등 상위 10대 기업)의 농업생산 기업군(Agro-Core: 몬산토(Monsanto), 포타쉬(Potash Corp.), 디에레(Deere & Co.) 등 상위 10대 기업)의 19.9%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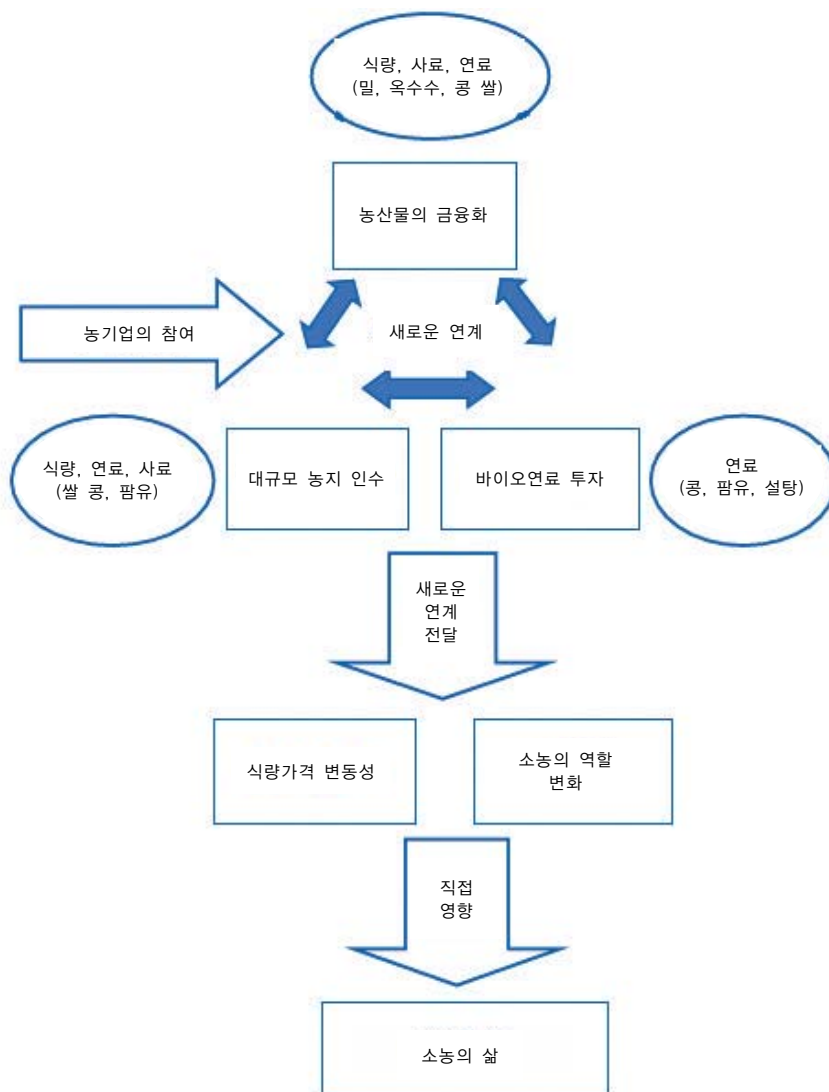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 앞으로 계속 보장된 것은 아니다. 첫째, 농기업이 기존 지위를 유지하거나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자본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둘째, 세계의 식량체제 속에서 소매부문의 영향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부문 간 경쟁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은 곡물 기업이 관여하

지 않은 신선 농산물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오늘날에는 식품 가공분야에서 경쟁이 늘고 있다. 예를 들면, 다국적 식품회사 네슬레는 초콜릿 가공에서 카길과 경쟁하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4〉은 세계 식품체제에서 식품가공 및 제조업체, 슈퍼마켓 및 식품 도매업체, 농수산업체의 이윤 분배 추이를 나타낸다. 2000년 중반까지 식품가공 및 제조업체의 이윤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에 슈퍼마켓과 식품도매업체의 비중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추이는 역전되었으나, 2011년 현재 슈퍼마켓의 이윤 비중은 30%에 육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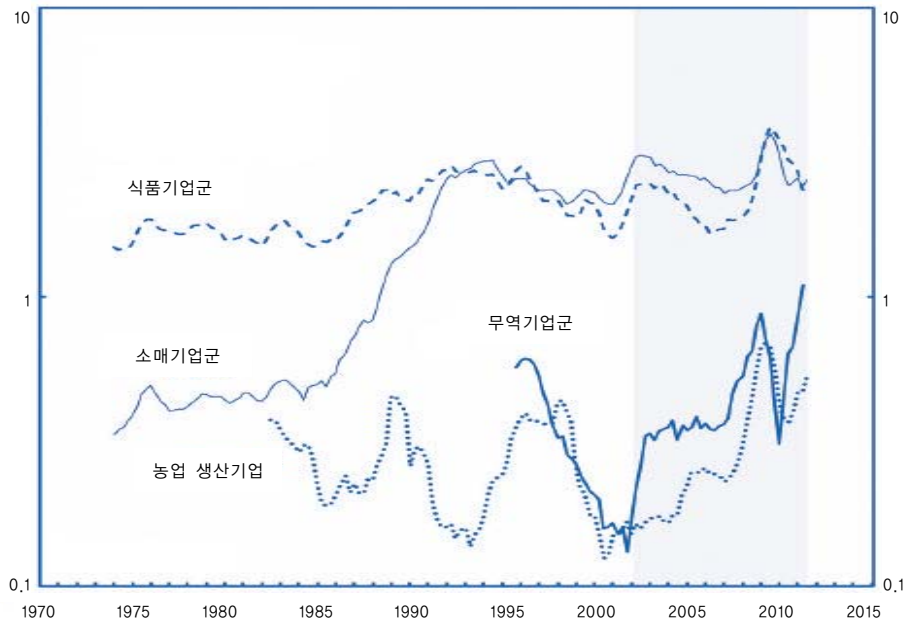
셋째, 정보기술의 세계화로 대규모 농기업이 보유한 정보의 우위가 약화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본디 ABCD 농기업이 가족 소유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적 네트워크와 곡물 시장변화에 대한 이들의 지식이 존재한다(Morgan 2000).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에 값싸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림 2. ABCD 농기업의 활동과 식량가격의 연계



자료: Murphy et al.(2012)

그림 3. 세계 농식품 체제에서 기업군별 이윤의 연간 변화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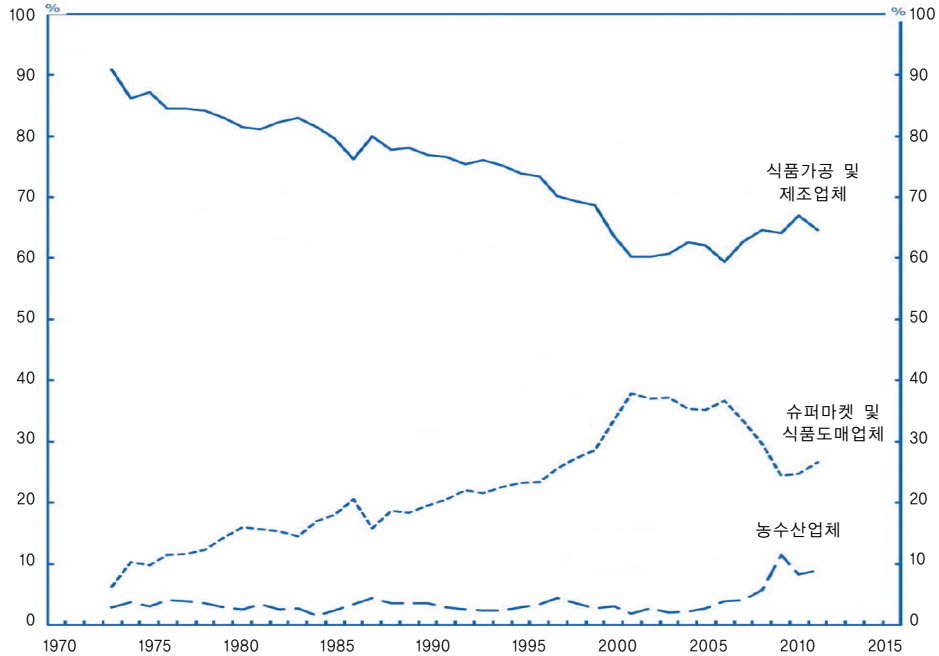
주: 1. y축은 로그(log) 값임.

2. 각 기업군은 각각 상위 10대 기업의 평균을 나타냄. 단, 무역기업군의 경우 ADM, 번지, 카길 등 3개 기업만 포함됨.

자료: Baines(2014)

끝으로, 최근에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이 기존의 식량 무역체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2000년대 후반에 나타난 금융위기와 식량가격 폭등,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조치 등은 식량안보 확충에 필요한 국제 곡물무역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WTO 도하의제(Doha Development Agenda)를 통해 많은 개도국들은 ABCD 농기업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무역자유화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신흥 개도국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국제시장 기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들이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세계 식품체제와 무역체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다원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림 4. 세계 농식품 체제에서 기업체군의 이윤 분배 비중 추이



자료: Baines(2014)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다국적 곡물기업의 전략, 국제 곡물시장의 변화, 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등은 식량안보 확충에 절대적인 요소로써 중요하다. 식량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안정적 곡물 공급을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곡물 수출국에서 엘리베이터 확보, 가격 경쟁력 보장 등의 한계에 직면하여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B CD 농기업과 같은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에는 오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쉽게 포기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외국의 경험과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단기적 시장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은 미래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식품수급표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library.krei.re.kr/dl_images/001/036/E05-2013.pdf
- Baines, Joseph. 2014. "Food Price Inflation as Redistribution: Towards a New Analysis of Corporate Power in the World Food System," *New Political Economy* 19(1):79-112.
- Cropwatch. 2012. ADM' s New Frontiers: Palm Oil Deforestation and Child Labor.
http://community.corpwatch.org/adm/pages/adm_palm.php
- John, Adam. 2014. "Price Relations between Internaitonal Rice Markets," *Agricultural and Food Economics* 2(1). <http://www.agrifoodecon.com/content/2/1/1>
- Morgan, Dan. 2000. *Merchants of Grain: The Power and Profits of the Five Giant Companies at the Center of the World' s Food Supply*. iUniverse.
- Scanlan, Stephen. 2013. "Feeding the Planet or Feeding Us a Line? Agribusiness, 'Grainwashing' and Hunger in the World Food System," *Int. Jrnl. of Soc. of Agri. & Food* 20(3):357-382.

호주 곡물 수출 유통 단계별 비용 분석*

이주관(워싱턴주립대학교 농경제학과 박사과정)**

1. 서론

기존의 곡물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주로 농가 단위의 생산에 관심을 가져왔다. 반면, 소수의 연구들은 공급 체계 수준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본고는 호주의 공급 체계에 대한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공급체계를 설명하기 위해 주로 밀의 수출 유통 단계별 비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밀은 호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수출되는 작물이기 때문이다. 밀의 수출 유통 과정은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

- (1) 농가 수준에서의 밀 생산
- (2) 유통단계별 저장 (농가, 중간 집하장, 항구)
- (3) 항구까지의 수송운임
- (4) 항구이용료 및 선적료
- (5) 해상운임
- (6) 기타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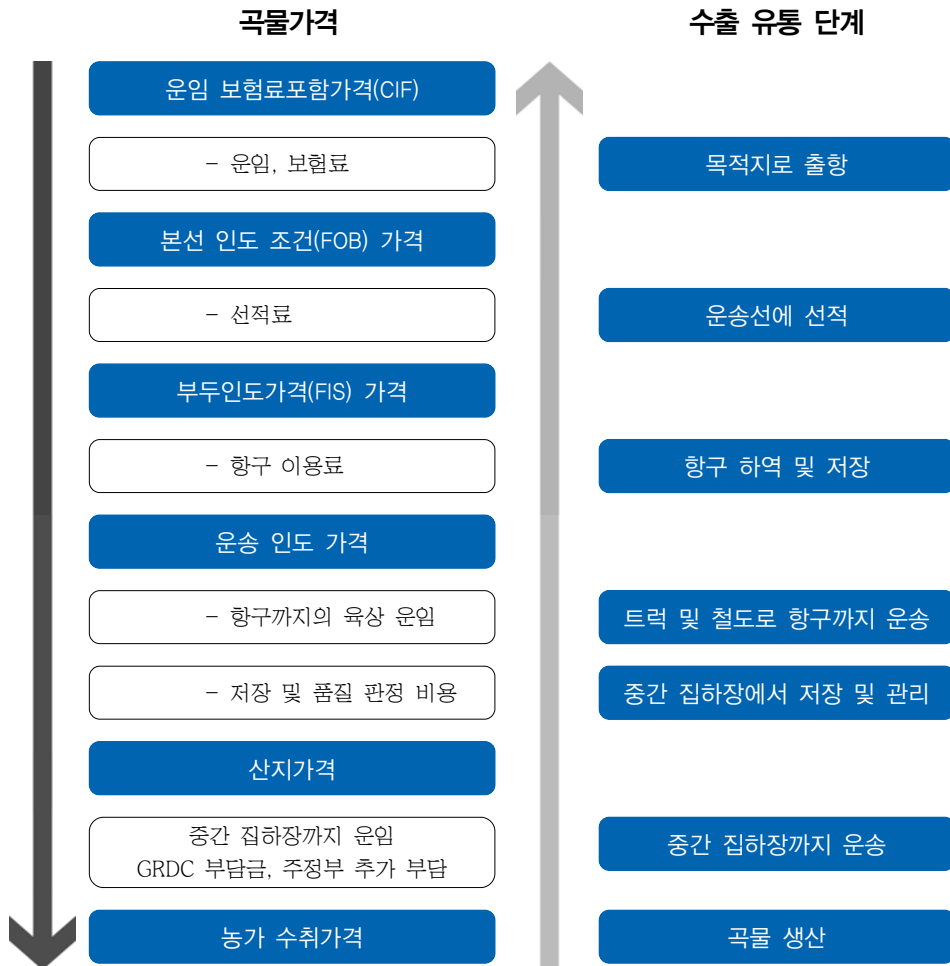
전형적인 생산에서 수출에 이르는 유통단계는 그림 1에 도식으로 나타나 있다. 우측의 화살표는 곡물이 농장에서부터 선적이 이뤄지는 부두까지의 물리적 이동 과정을 나타낸다. 곡물의 가격은 반대로 국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서, 공급

* 본 고는 AEGIC(Australian Export Grains Innovation Centre)의 “Australia Bulk Grain Export Supply Chains”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jukwan.lee@email.wsu.edu

사슬을 타고 차례로 내려오며 해당 유통단계별로 비용이 차감되어, 마지막에 농가의 수취가격이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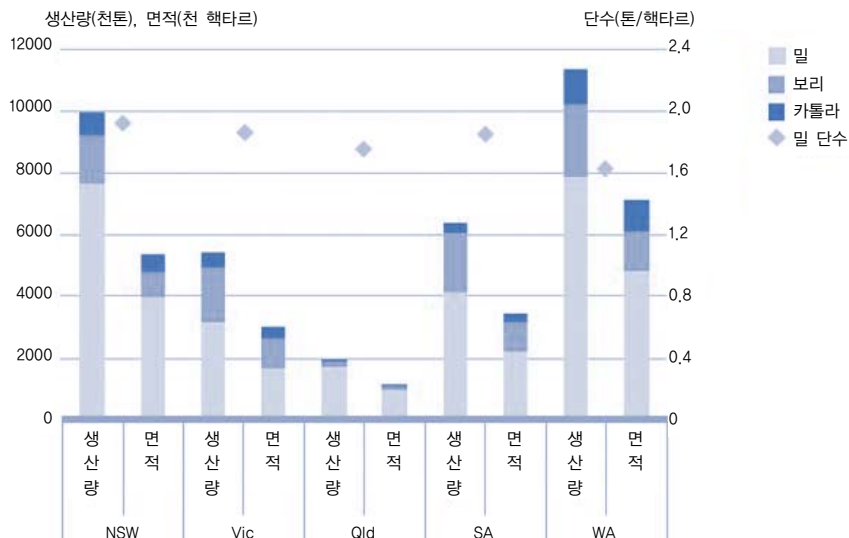
그림 1. 수출 유통 단계 및 가격 설정



2. 호주의 곡물 생산

지난 5년간 호주의 곡물생산과 착유용 종자의 생산은 연평균 3,500만 톤이었다. 곡물을 생산하는 주(州)는 대부분 해안에서 200~600km 내의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현재는 서호주(Western Australia: 이하 WA)와 뉴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이하 NSW) 지역이 곡류와 착유용 종자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 주별 생산과 생산면적,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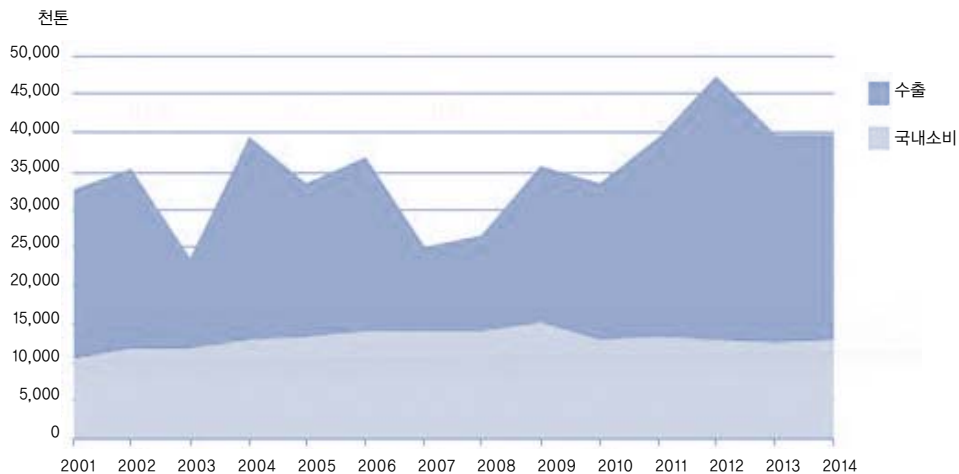


주: NSW : New South Wales, Vic: Victoria, Qld: Queensland, SA: South Australia, WA: Western Australia.
 자료: AEGIO(2014)

2.1 국내 수요와 수출

매년 생산되는 3,500만 톤의 곡물 가운데, 1,000~1,100만 톤가량이 호주 국내에서 소비되며, 나머지 2,500만 톤이 수출되고 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곡물은 주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소비된다. NSW, 빅토리아 주(Victoria: 이하 Vic), 퀸즈랜드(Queensland: 이하 Qld)에서 생산된 곡물은 지난 10년간 평균 약 1,950만 톤이었고, 이중 절반가량이 수출되었다. 동부 지역에서는 내수용 소비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공급체계가 국내 소비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해외 수요를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업자들은 곡물 수요자인 국내의 제분업자나 축산농가와 경쟁관계에 놓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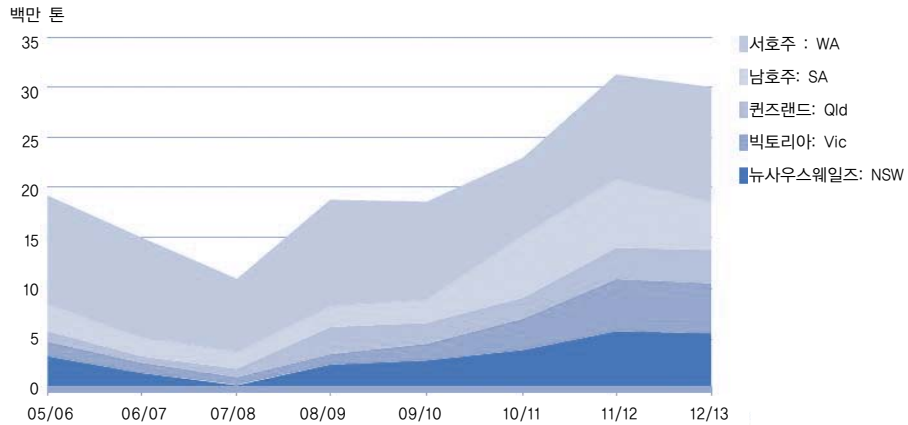
그림 3. 호주의 곡물과 착유용 종자의 수출과 국내 소비량 추이



자료: AEGIC(2014)

서호주(WA)와 남호주(South Australia:이하 SA)지역에서는 내수용 곡물시장의 규모가 작고, 수출이 85~95%를 차지하고 있다. 곡물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SA와 WA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내수요와의 경쟁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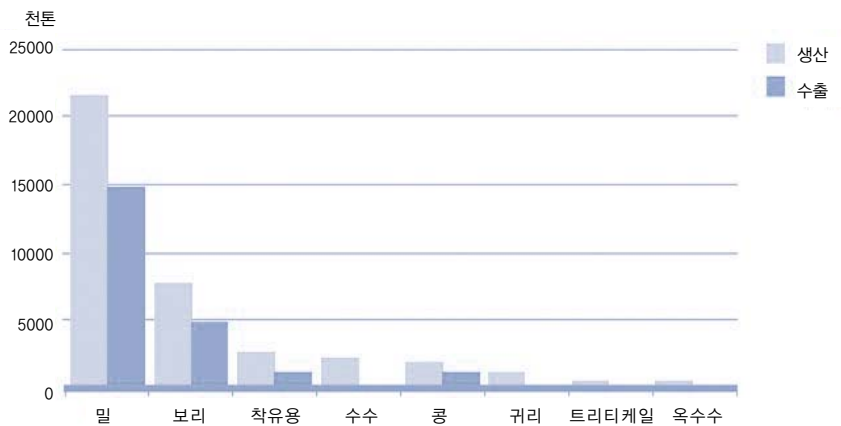
그림 4. 호주의 지역별 곡물 수출 규모



자료: AEGIC(2014)

호주에서 주로 수출되는 곡물은 밀과 보리 그리고 유지식물이며, 이중 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밀의 수출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호주의 곡물 수출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

그림 5. 호주의 주요 곡물 생산량과 수출량



자료: AEGIC(2014)

2.2 주요 수출업체

호주에서 곡물을 수출하는 주요 업체로는 서호주(WA)의 CBH(Cooperative Bulk Handling), 남호주(SA)의 Viterra, 그리고 호주 동부에 거점을 두고 있는 GrainCorp을 꼽을 수 있다. 각 업체들은 해당 지역 별로 자체 저장고와 운송 시스템, 부두를 운영하고 있어 수출에 이르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경쟁은 적은 편이다. 표 1은 각 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저장용량, 보유 항구를 나타내고 있다.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CHB와 Viterra가 서호주(WA)와 남호주(SA)지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이들 지역에서는 부두나, 철도 운송에서 경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부두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곡물의 대부분을 처리하여 수출하게 된다. 특히 CHB의 독점적 지위는 공고히 유지되고 있어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동호주(Eastern Australia)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출선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 지역에서는 GrainCorp이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9개의 주요 수출항 중에 7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항구에서 동 호주 곡물 수출의 75%를 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GrainCorp과 경쟁 관계에 놓인 CBH나 Viterra에 비해 독점적이 약한 편이다. 왜냐하면 경쟁 회사인 Emerald 사(社)도 15개의 사일로 및 철도차량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수출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카길 사(社) 역시 뉴사우스웨일즈, 남호주, 빅토리아주, 퀸즈랜드 지역에 걸쳐 22곳에 사일로와 철도차량을 가지고 있으며, Wilimar Gavilon 사(社) 역시 퀸즈랜드(Qld)에 연간 5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수출 항구를 소유하고 있다.

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El Zorro 사(社)는 Vic와 NSW의 곡물을 운송해 왔으나 2013년에 합병되어, 현재로는 Pacific national 사(社)만이 빅토리아(Vic) 주의 독립적인 철도 운영회사이다. Aurizon 사(社)는 NSW와 Qld에서 철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Qube사(社)도 NSW에서 철도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표 1. 호주 주요 곡물 기업 현황

	CBH (WA)	GrainCorp (Eastern Australia)	Viterra (SA)
연평균 수확량 (백만 톤)	10.3	20.0	6.0
국내 소비량 (백만 톤)	1	9.5	1.2
수출 비중 (%)	92	50	90
중간집하장 (개)	197	270	92
해당 주 시장 점유율 (%)	90	75	80
저장 용량 (백만 톤)	20	20	10
산지 저장량 (백만 톤)	2.6	11.8 (NSW: 6.4, Vic: 3.5, Qld: 1.9)	1.2
보유 수출항	4	7	8
해당 주 항만시설 점유율 (%)	100	80-90	100
해당 주 수출 점유율 (%)	48	28	46

자료: AEGIO(2014)

호주의 곡물시장에 대한 탈규제 정책으로 새로운 곡물 수출업자들의 시장에 진입 하고 있다. Viterra와 CBH가 각 주에서 대부분의 곡물을 수집하고 있지만, 이중 45%정도만이 수출에 이용된다. GrainCorp은 국내 유통 과정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수출 점유율은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나머지 50~70%에 해당하는 수출이 이들 주요 거대 곡물 기업을 제외한 중소 수출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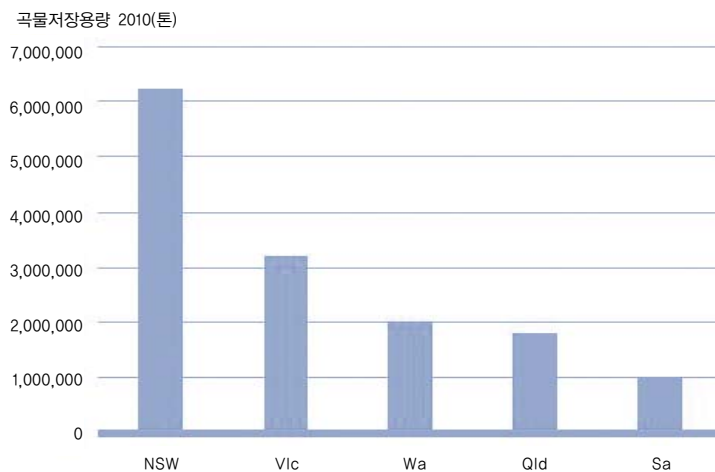
CBH는 서호주(WA)지역에서 항만 터미널을 독점하고 있으나, 번베리(Bunbury)에 Bunge사가 새로운 항구를 건설하고 있으며, Albany 지역에 헤이룽지앙 평(Heilongjian Feng) 농업 회사가 항구건설에 나서 독점적 지위가 조만간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Bunge사는 이미 번베리 항구를 통해 수출하기 위해 2013-14 시즌에 밀과 보리를 구입했으며, 뉴사우스 웨일즈(NSW) 지역에서는 뉴캐슬 농산물 터미널이 건설 중에 있으며 2013년 12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3. 곡물 저장

호주에서는 충분한 저장시설이 대부분의 곡물 재배지역에 분포해 있으며, 수확량의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 약 623개 지역에 곡물 저장고가 있어 약 5천5백만 톤을 저장할 수 있다. 이 수치는 호주의 5대 곡물 회사인 CBH, GrainCorp, Viterra, Emerald, Cargil이 소유한 항만과 국내에 분포해 있는 저장고의 수용량을 포함한 것이다. 이 수용량은 국가의 평균 곡물 생산량인 3,300만 톤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서호주와 남호주 지역에서는 수출업자 선정에 관한 협약이 생산자부터 운송업체까지 저장과 운송을 Viterra와 CBH사와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농장 수준에서의 곡물 저장능력은 약 1,430만 톤을 초과하는 것으로 2010년 호주 통계국 농업조사에 의해 파악되었다. 서호주 지역의 산지 저장량은 235만 톤으로 나타났고 2012년까지는 420만 톤으로 연간 생산량의 35%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동부지역의 산지저장용량은 1,100만 톤으로 연간 평균 생산량의 60%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곡물 산지 저장 능력 (2010년)



자료: AEGIC(2014)

산지저장량과 곡물기업의 자체 저장량을 합한다면 호주의 최대 곡물 저장량은 7,000만 톤에 이르며 이는 호주 곡물생산의 2년치에 해당하는 양이다. 곡물의 등급이 차별화 되고, 많은 중간집하장들이 최대 수준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이다. 평균적인 중간집하장의 처리량과 수용가능량의 비율은 1:1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경쟁 수출국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산지 부근에 중간상이 하나씩 독점적으로 존재하고, 호주에 비해 6~7배까지 집하장의 처리비용이 높다. 또한 대부분의 곡물이 산지에서 저장되며, 저장 비용도 호주에 비해 더 높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한 사실이다. 그리고 생산량의 변동 폭 역시 호주에 비해 적다.

최근 호주에서도 중간 집하장 보다는 산지저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서호주 지역에서는 곡물기업의 집하장과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산지 집하장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 서호주에서 산지저장량은 2010년에 240만 톤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기에 서호주 지역에 가문의 피해가 커 산지 저장고에 대한 투자가 줄었다. 하지만 2011년과 2013년 풍년으로 수확량이 늘어 기존의 곡물기업과 거래하는 것보다 산지저장고를 이용하는 대안적인 경로가 다시 관심을 받게 되었다.

또한 더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저장과 관리시스템을 찾는 추세에 따라 2013/14 시즌에 Viterra사는 집하장의 효율성에 따라 두 가지 요금체제를 도입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3.1 중간 집하장의 통합

호주에 분포하고 있는 중간 집하장들의 효율성은 제각각이다. 우선, 각 집하장의 저장 용량이 다르며, 둘째, 집하장에서부터 항구로 철도운송이 이뤄지는 빈도 역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CBH 사는 2009년에 197곳의 집하장 중 37%인 73곳에서만 최대저장량의 80%를 수용했고, 나머지 124곳에서는 저장용량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운용되었다. 이를 볼 때 집하장 시스템은 합병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집하장의 통합은 통합 후 남은 집하장의 곡물 처리율을 높이고, 고정비용을 절감시켜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10년간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집하장의 통합이 빠르게 이뤄져 왔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중간 집하장이 2000년에는 626개가 넘었지만, 2012년에는 반 이상 줄어들어 271개로 통폐합되었다. 그 결과 농장에서 중간집하장까지의 평균 화물 운송거리는 80km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주의 경우에는 현재 623개의 중간 집하장이 운용되는데, 산지에서 중간집하장까지의 평균 운송거리가 현재 20km에 불과해 캐나다의 2000년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곡물회사들이 중간집하장들을 통폐합 할 경우, 인프라 전체의 처리율이 높아지고 운영비가 절감 될 것으로 보인다.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생산자들은 중간집하장까지 곡식을 옮기는데 더 먼 거리를 가야하고, 적기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저장료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곡물회사들이 더 많은 곡물을 처리하게 됨으로써 이윤 역시 증가할 것이다.

통폐합에 따라 운송거리와 저장 시간이 길어지며, 또한 저장 비용도 많아지게 되면서, 산지 저장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거리 운송으로 인해 도로에 부하가 늘어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증가해 교통당국과, 운송업체의 비용부담 역시 늘어날 것이다.

중간집하지의 합병에 따른 비용은 곡물회사로부터 일반 생산자로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생산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산지저장이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폐합에 따라 도로를 이용한 운송과 그 거리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작용 예를 들어 도로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와 곡물의 부피 감소, 오염, 해충에 의한 피해 등으로 곡물의 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러한 현상에 대한 산업계와 정부의 대비가 필요하다.

산지저장의 경우에 중간집하장의 운영시기에 관계없이 작물 수확을 적기에 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수확금지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산지에서 곡물회사의 중간집하지에서 물량을 확보하기 쉬워진다. 산지저장고들은 생산자들이 곡물의 가공이나 건조 등 수확후 처리의 적기를 기다리는데 더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농민들이 생산한 곡물이 더 좋은 등급을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조기 수확과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수확 시기를 조절 할 수 있어 기후에 의한 생산량이나 품질의 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이 있지만 중간집하장의 통폐합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

3.2 저장료 및 부과금

현재 각 곡물 회사별로 항구까지의 운송비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생산자가 부담해야할 곡물회사의 중간집하장 사용 비용은 톤당 6.9달러에서 12달러 수준이다. 또한 판매가능한 곡물의 부피에 영향을 주는 곡물의 중량감모와 비실(非實) 비율 등을 고려한 저장비용 또한 부담해야 하는데, CBH를 제외하고는 저장비는 톤당 매달 1달러에서 1.6달러 수준이다. 이들 기업은 첫 2~3달까지는 저장 비용을 받지 않는다(Emerald, GrainCorp, Cargil)

표 2. 2013/14 시즌 중간 집하장 이용 및 저장 비용

항목	곡물 회사별 요금 (\$/t)					
	CBH	GrainCorp	Viterra	Cargill/ Grainflow	Emerald	Aver.
중량 손실 비율(%)	0.5	0.7	0.6	0.7	0.6	0.62
감모 차감액	1.5	2.1	1.8	2.1	1.8	1.86
집하장 이용료	10.00	6.90	11.85	8.86	12.00	9.92
월간 저장료	0*	1.50	1.10	1.55	1.60	1.15
출하비용	9.9**	6.18	2.6**	4.43	2.05	5.03
항구도착전 총 저장비용	11.5	16.68	14.75	16.94	17.45	15.46

주: * CBH사는 이듬해 10월 1일까지 저장료를 부과하지 않음

** 국내 판매시만 고려됨

CBH사는 저장비용을 수확 후 10월까지 저장비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9월 30일까지의 저장비는 집하장 이용비에 포함되어 있다. 저장료가 부과체계는 산지 저장을 고려하는 농민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생산자가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수확후 6개월 이후로 판매를 미루고 싶으면, 서호주 지역의 곡물회사들은 톤당 11.5달러의 비용을 부과하지만, 다른 주에서는 18~23달러를 부과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관할 수 있다. 보관 요금과 곡물가격 변동성 때문에 동부 지역에서는 산지저장고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발생하지만 서부지역에서는 산지저장시설을 갖추는 것 보다는 CBH의 저장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다.

CBH는 조합원들에게 톤당 1~2달러 수준의 리베이트를 받지만 이는 표에 제시

되어 있지는 않았고, 또한 이윤배당이나 세금도 다른 회사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비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 출고 비용은 남호주에서는 톤당 2.6달러이고, 동호주에서는 9.9달러로 차이가 발생한다. 다른 수출 라인이 없고, 내수 시장이 작아 이들 지역에서는 곡물의 내수/수출 전환의 수요가 작다.

4. 항구까지 운송

호주에서 수출용 곡물의 국내 운송은 철도와 도로가 담당하고 있는데, 철도가 중간 집하장에서 항구까지의 운반되는 대부분의 물량을 담당하고 있다.

중간집하장에서 항구까지의 평균 수송 거리는 약 250km이다. 철도 시스템은 호주 전역의 항구와 연결 되어 있는데, 그 각 선로의 교통량은 상이하다. 대부분 항구로 곡물을 실어 나른 기차는 빈 기차로 되돌아오고 있다. 도로 체계는 전국의 중간집하장을 항구로 연결시켜주고 있으며, 주도와 주간 고속도로로 이어져 있다. 각 주마다 여러 수출항구가 있는데, 대부분 도로와 철로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

표 3. 육상 운송 인프라와 비용

	NSW	Qld	SA	Vic	WA
주간 철도 이용료 (c/t/km)	3.9	-	3.9	3.975	2.7
지선 이용료 (c/t/km)	5.22	4-5	-	-	-
평균 운송 거리 (km)	412	303	130	273	207
철도 이용률 (%)	85	46	50	53%	60%
도로 이용률 (%)	15%	54%	50%	47%	40%

자료: AEGIC(2014)

모든 항만 지역에서 트럭을 통한 화물 수송보다는 철도를 이용한 수송이 비용 효율적이다. 철도를 이용한 수송 비중은 일정한 데 비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비중은 매우 변동성이 크다. 대부분의 중간집하장이 수출항으로부터 200km이상 떨어

저 있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한 수송은 날씨와 계절, 그리고 도로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서호주와 남호주 지역에서는 도로 수송의 한계 거리가 집하장에 항구까지의 거리의 중위값보다 더 넓어 도로 사용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표 3>. 도로를 이용한 수송의 이점은 수요 증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과 규제가 엄격하지 않고, 수출이 어려울 때 다른 부분으로 재분배하기 용이하다는 점이다.

호주의 철도 운송 체계는 지역화 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각 주 내에서 독자적인 체계를 구성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각 주의 선로 너비가 제각각이어서 주간 철도는 표준 철도 너비를 유지하지만, 특정 선로는 좁거나 넓은 선로를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약은 철도에 대한 최적 투자를 어렵게 한다. 지역화된 철도 운송 시스템은 철로 보수 정책, 화물차에 대한 정책과 도로 수송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호주의 농업 수출량은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그 변동폭이 3배 이상 크다. 북미에 비해서 수출량 변동은 11%에 그쳤으나 호주의 경우에 수출 물량이 3년간 27%나 변동했다. 이에 따라 호주의 곡물 운송 체계도 이러한 물량 변화에 수송능력을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 공급 물량의 불확실성은 장기적인 계획 설정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운송비용도 증가시켰다.

수출업자들도 수확 전에 정확한 물량과 곡물의 품질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때에는 기본적인 물량을 계약한 후, 수확 후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구매를 한다. 수출비용의 변동성은 철도를 보유하지 못한 무역업자의 경우에는 철도를 보유한 곡물회사에 의존해야하기 때문에 더 크게 나타난다.

광업회사들은 날씨나 생산량에 변동이 적어서, 수출물량과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운송계약을 사전에 확정할 수 있다. 이에 곡물운송에 비해 광산물의 운송비는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호주의 철도 중 차축이 좁은 선로는 미국, 캐나다 혹은 호주 내에서 주와 주 사이를 잇는 선로에서 사용되는 표준선로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선로는 기차 당 2,000~3,000천 톤 가량을 운반할 수 있는 반면, 현대화된 선로의 경우에는 2만 9,000톤을 한 기차에 운송할 수 있다.

열차의 크기 역시 호주에서는 몇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우선 전반적으로 곡물 수송 중심의 철도는 속력에 따라 차축하중에 제약이 가해진다. 둘째, 선로 폭이 달라서 연결망을 구축하기 힘들며, 단선 구간이 많고 기차의 길이를 늘이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서 기차의 길이와 수송량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미

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곡물을 선로가 좁은 지역에서 넓은 지역으로 옮겨야 할 경우 수송에 비효율성이 더 높아진다. 호주에서는 각 선로가 거의 독립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각 주 내에서 경쟁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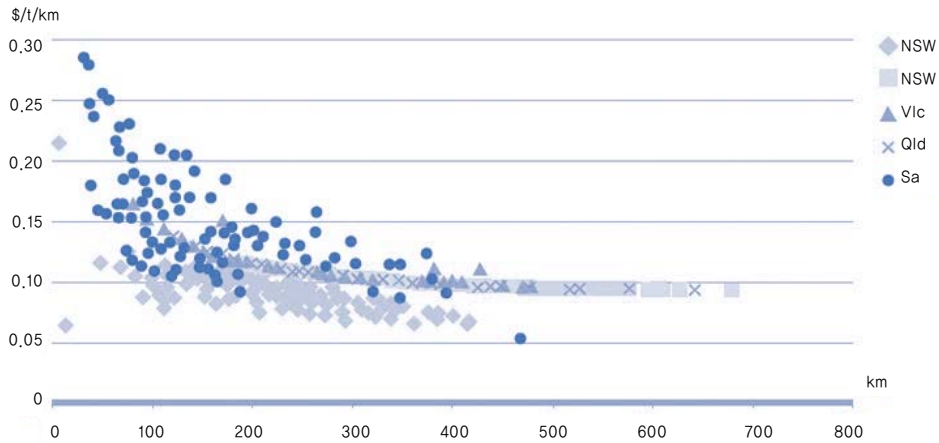
또한 운임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 역시 문제인데, 수송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수확기가 되면 임시 열차를 투입하여 초과 수송 수요를 해소시킨다. 그러나 이 경우 높은 운임이 적용되어 비용 상승을 초래해, 석탄이나 광산물도 항구로 수송해야하기 때문에 수송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4.1 중간집하장의 효율성

호주 내에서 철도의 수송량은 시간당 120톤에서 1,000톤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저장과 관리비용은 각 지역의 적재 효율성이 다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까지도 집하장 이용요금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Viterra사가 2013/14시즌에 지역별 요금 체계를 도입하였다. 곡물업체가 이용료를 모든 집하장에 걸쳐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집하장 별로 적재속도가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화물기차에 곡물을 적재하는 시간이 긴 경우에는 노동비용과 철도 운용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해당 지역으로부터의 운송료를 상승시킨다. 화물적재가 효율적인 중간 집하장은 더 운영비가 낮춰져서 더 많은 생산자들이 이용하게 되며, 무역업자 역시 이로 인한 이득을 얻게 된다..

〈그림 7〉은 호주 곡물 무역협회(Grain Train Australia)가 제시한 곡물 1톤을 집하장에서 항구까지 운송하는데 드는 견적 비용을 1km 단위로, 각 주별로 비교해 놓은 그림이다. 예를 들어 항구로부터 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집하장의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나 7~10센트의 비용이 1톤을 1km 운송할 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항구에서 가까운 것이 효율성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지만, 다음으로는 집하장의 위치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7. 주별 운송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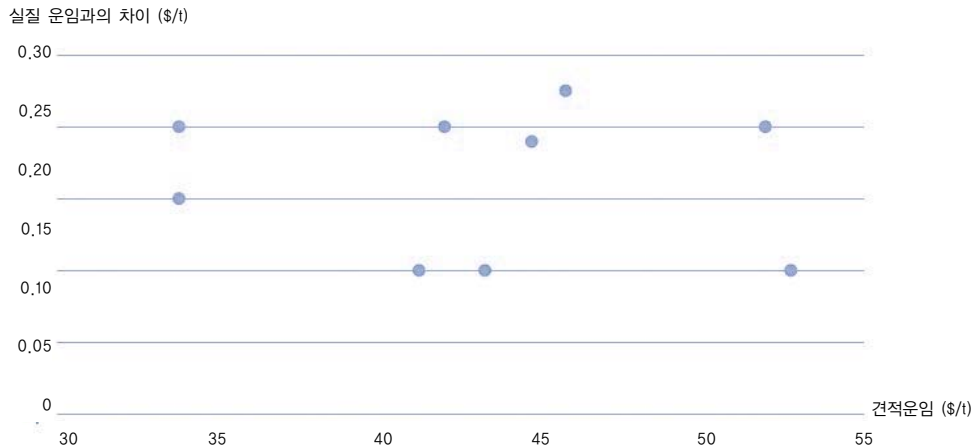
자료: AEGIO(2014)

중간 집하장의 비용 체계 역시 항구까지 직접 배송하는 경우의 효율성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1톤당 운송료는 항구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실제로 운송경로가 경유지를 거치게 되면서 더 증가한다.

서호주와 남호주 지역에서는 항구까지의 거리가 가격 변화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반면 뉴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 퀸즈파크 지역에서는 원거리 차감이 된 운임료가 부과된다.

호주 동부지역의 주들의 경우에는 운임료와 거리의 함수로 표현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200km 떨어진 지역의 경우에는 운송 효율성에 상관없이 단위 비용이 12센트이다. 따라서 각 중간 집하장의 효율성은 저장이나 관리 운송비용 등에 반영되지 않고 수출업자에 의해 국가 수준에서 일괄적으로 제시되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빠르게 기차로 운송을 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수출업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항구까지의 수송시간을 줄일 수 있어 선적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적재시간이 오래 걸려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감안해 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 있다.

그림 8. 견적 비용과 실제 운임 차이 비교



자료: AEGIC(2014)

호주곡물무역협회에 제시한 견적 운임과 실제로 호주밀협회의 곡물 생산지에서 적용된 실제 운송비를 비교하면 <그림 8>과 같다. Vic나 NSW지역에서의 실제운임은 견적운임에 비해 약 2~5달러 가량 낮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운임 차이를 이용하는 것은 수출을 하지 않고 다른 무역상에게 다시 곡물을 파는 유통상 들이다. 이러한 경우 생산자가 수출업자가 아닌 상인에게 판매를 할 때 실제보다 더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생겨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서호주 지역에서 지역별 차등가격체제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 생산자에게 제시되는 모든 가격은 항구에서의 부두인도가격(Free In-store Price)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는 항구에 저장, 보관 및 화물 운송을 주선해야하고, 이 비용은 부두인도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CBH사는 자체적으로 이 수출 과정을 주선하고, 송장을 조합원인 생산자에게 건넨다. 반면 ACCC는 CBH에 의해 사용되던 Grain Express모델을 폐기하고, 생산자로 하여금 항구로의 운송방법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대신,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산자는 기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남호주지역의 곡창지대는 항구에서 200km내에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장은 130km 정도 떨어진 곳에 분포하고 있다. 이 정도 거리에서는 장거리 선로 운송의 효율성이 쉽게 달성될 수 없었다. 선적과 하역에 드는 시간과 비용 또한 SA지역의 운송비용을 높이는데 관계되어 있고, 또한 이지역의 철도 시스템이 독점된

상태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다. 킬로미터 기준으로 항구까지의 운송료가 비용이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남호주 지역의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0km 떨어진 중간 집하장에서 항구까지 비용은 서호주 지역에서는 1톤/1km 당 9.5센트인데 반해, 남호주 지역은 13센트이다. 표준적인 수출 유통경로에 따랐을 때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이는 이용가능한 철도 시스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높은 가격은 대부분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로 운송을 선택해야 하는 부분과, 철도 시스템의 경쟁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항구까지의 거리에 따른 운송비 비교

항구까지 거리	집하장 수	운송료 (\$/t)			운임 (c/t/km)		
		2012-13	2013-14	% 변화	2012-13	2013-14	% 변화
남호주							
100 km (± 10km)	11	16.13	15.55	-3.61%	0.164	0.159	-3.52%
200 km (± 10km)	7	28.21	27.54	-2.40%	0.141	0.138	-2.29%
300 km (± 20km)	4	30.95	29.55	-4.54%	0.104	0.100	-4.46%
전체 집하장	110	21.75	20.51	-5.70%	0.166	0.156	-5.91%
서호주							
100 km (± 10km)	2	10.01	10.22	2.01%	0.097	0.099	2.02%
200 km (± 10km)	11	18.81	19.25	2.31%	0.093	0.095	2.32%
300 km (± 20km)	11	23.63	24.30	2.8%	0.079	0.082	2.81%
전체 집하장	190	18.74	19.19	2.39%	0.092	0.094	2.00%

자료: AEGIC(2014)

5. 항구

각 주에 분포해 있는 항구별로 저장용량과 선적률이 상이하다. 또한 모든 항구가 모든 크기의 배를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남호주지역의 항구들은 수심이 얇기 때문에, 큰 화물선들은 수심이 깊은 링컨항을 주로 이용한다.

CBH는 4개의 곡물 수출항을 서호주 지역에 가지고 있다(Kwinana, Geraldton, Albany, Esperance). Bunge 사는 최근 Bunbury 지역에 새로운 항만시스템을 건설했다. Viterra사는 SA지역의 모든 항구를 소유하고 있다(Adelaide의 내·외항, Wallaroo, Giles, Lincoln, Thevenard), GrainCorp은 동호주의 9곳의 주요 곡물 수출항 중 7개를 소유하고 있다(Mackay, Gladstone, Fisherman Island, Newcastle, Port Kembla, Geelong, Portland). Emerald 사는 빅토리아 주에 하나의 수출항을 가지고 있고, Wilmar Gavilon은 퀸즈랜드 지역에 하나의 항구를 소유하고 있다. GrainCorp사에 따르면, 이들 항구들은 곡물 수출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1,3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표 5>.

표 5. 곡물 회사별 항만 운영 비교

지역	항구 수 (소유회사 수)	5년간 수출물동량 범위 (백만 톤)	5년간 평균 수출량 (백만 톤)	저장용량 (천톤)	선적속도 (t/hr)	선박 용적
WA	4 (1)	7.7-11.4	9.9	1000	1000-5000	60,000c
SA	6 (1)	2.3-6.8	4.5	-	600-2000	60,000
NSW	2 (1)	2.5-5.7	4.1	424	4000-5000	120,000
Qld	4 (2)	2-3.3	2.6	315	900-2200	70,000
Vic	3 (2)	1-5.3	3.2	413	650-2500	70,000

현재 빅토리아 주에서는 Emerald 사와 GrainCorp사가 항구 시설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호주 지역에서는 각 주마다 하나의 곡물기업이 수출 시설을 독점하고 있다. 머지않아 이러한 경쟁 구도는 새로운 항구 운용자들이 등장함에 따라 조금씩 변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WA지역에서는 Bunge 사와 헤이룽지안펑(Heilongjian Feng Agricultural) 사가 항구를 새로 항만시설을 건설했고, 뉴사

우스 웨일즈 지역에서는 뉴캐슬 농업회사가 진입했다. 모든 수출업자는 수출항을 선택해야 하는데 수출항의 소유는 선택된 곡물기업에게만 권리가 주어지며, 이는 호주공정거래 위원회(ACCC)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수출물동량은 북미국가에 비해 그 진폭이 큰 편이다. 이러한 변동성은 호주의 곡물생산 변동성이 큰 데에서 기인하며, 이는 항만의 계획 수립과 경영에도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위협은 궁극적으로 농작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경쟁자들 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대신 수확량이 작은 시기에 높은 이윤을 얻어 위협에 따른 비용발생을 완화시킨다.

Kwinana와 Kembla항이 국제적인 항만 경쟁력 비교를 통해 보았을 때 시간당 처리물량이 5,000톤으로 가장 빠른 터미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경우 최대 처리속도가 3,400톤인데 비해 더 경쟁력 있는 수치이다. 빠른 선적 처리율은 선적 소요시간을 줄여 항구이용비와 선박 운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Kwinana 항의 경우에는 연간 처리량이 400만 톤에 달하며 백만 톤의 저장고를 가지고 있어 저장량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장용량에도 불구하고 Kwinana나 기타 항구들 모두 철도로 운반되는 물량에 의존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연초에 북반구에서 곡물 공급이 감소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시기를 이용해 계약을 맺는 마케팅 방식을 이용해왔다. 이 시기가 되면 수출업자들은 물량과 항구의 확보를 위해 공격적으로 경쟁하게 된다. 그 결과 공급유통망에 혼잡이 발생하고, 반면 비수기에는 상대적으로 곡물 유통 관리가 용이해지는 구조가 된다. 이러한 병목 현상은 화물선이 위생검역에 불합격하면 더욱 심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수출지체는 수출업자에게 위협으로 작용해, 결국 이 비용이 생산자에게 전가되어 수취가격이 낮아진다.

5.1 항만세

〈표 6〉은 최소 항구 이용비용을 보여주고 있다. 각 항만 운영자들은 서로 다른 운임을 적용하고 있지만, 호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소 항만 이용료는 톤당 18달러에서 22달러 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물선 선적 비용이 4만 톤 급 화물 선기준으로 대당 70만에서 90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럭을 이용하는 경우 부가되는 추가요금은 톤당 최대 1.87 달러가 부가

되며, 곡물회사 저장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곳을 이용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역비가 톤당 최대 3달러까지 부가된다. 또한 여기에 선적 프리미엄과 취소 수수료 등은 아래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표 7〉은 2013/14 시즌에 멜버른에 항구를 보유한 Emerald의 저장 처리 비용과 Portland와 Geelong에 항구를 가진 GrainCorp사의 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Emerald 사의 경우에는 GrainCorp사에 비해 톤당 처리비용이 약 2.5달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항만이용료는 뉴사우스 웨일즈(NSW)지역보다는 저렴한 편이다.

단순히 연간 자료만을 가지고 유용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에는 더 긴 시계열 관찰을 통해서 곡물의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하여 매년 항구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표 6. 철도 이용시 항만 이용료 비교

최저 요금	서호주 (CBH) (\$/t)	Kembla 항 (GrainCorp) (\$/t)	Adelaide 외항 (Viterra) (\$/t)	멜버른 (Emerald) (\$/t)
철도 하역료	0	5.29	3.00	5.70
선박 지명	4.00	8.00	5.00	8.00
선적	15.30	3.49	13.20	3.30
선적대기시 저장비	0	1.14	0.125	1.10
검사료	0	0.25	—	0.25
기타비용	1.85	2.07	—	2.46
비실 발생률	0.25%	0.25%	0.15%	0.10%
본선인도가격 (320달러/톤) 기준 항만료	21.90	20.99	21.78	21.11

자료: AEGIC(2014)

표 7. 빅토리아 주 항만의 2013/14 시즌 저장 및 항구이용료

저장비용		GrainCorp (\$/t)	Emerald (\$/t)
중량손실율		0.70%	0.60%
중량손실에 따른 감액 at \$320 FOB/t		2.11	1.81
중간집하소 비용		6.90	12.00
월간 저장비		1.50	1.60
출하비		6.18	2.05
총저장 비용(1개월)		16.68	17.45
항구이용료	GrainCorp (Geelong) (\$/t)	GrainCorp (Portland) (\$/t)	Emerald (Melbourne) (\$/t)
철도하역료	5.29	5.29	5.7
선박지명료	8	8	8
선적료	3.49	3.49	3.3
선적대기시 저장비	1.14	1.14	1.1
검사료	0.25	0.25	0.25
기타비용	2.07	1.42	2.46
비실/ 손실 감모율	0.25%	0.25%	0.10%
톤당 항구이용료	20.99	20.34	21.11
저장비	16.68	16.68	17.45
톤당 총 저장 및 항구이용료	37.67	37.02	38.56

자료: AEGIC(2014)

5.2 중량손실과 비실(非實)

Viterra에 따르면 중량 손실은 일반적인 저장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량과 수분함량의 변화에 따른 중량 손실, 그리고 버려지는 부분을 의미한다. 중량 손실에는 낱알이 부서져 상품가치를 잃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Viterra 는 비실(Dust)을 생산자들로부터 곡물을 수집할 때 수집회사의 집진 설비를 통해 모아진 비실과 밀에서부터 떨어진 먼지로 정의한다. 이러한 비실은 손상된 낱알이나 중량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량손실과 비실 비율에 대한 차감 비중은 작물에 따라 다르고, 해당 곡물 회사에 따라서도 다르다. CBH의 경우에는 귀리와 완두콩에 대해서는 비실에 의한 차

감을 적용하지 않지만, 다른 곡물에 대해서는 약 0.25%의 차감을 인정한다. 반면 완두콩, 귀리, 병아리콩(chickpea), 루핀(lupin), 카놀라의 경우에는 중량 손실을 각각 1%, 1%, 0.75%, 0.5%, 0.5%씩 부과한다. 2013/14 시즌 GrainCorp의 경우에는 곡류와 카놀라의 중량 손실 비중을 0.6%에서 0.7%로 높였고 다른 콩과 작물의 경우에는 0.8%에서 1%까지 높였다.

일반적으로 곡물의 부피는 운반하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중량 손실에 대한 적용은 적절한 측정 장치가 없지만 관행적으로 유통 업체를 바꿀 때 발생한다고 본다. 만약 생산자가 단일한 곡물 기업을 통해 유통을 하게 되면 0.5~0.7% 가량의 감모만을 적용 받지만, 항구까지의 유통단계를 서로 다른 기업을 통해 진행하게 되면 추가적인 중량 손실분을 적용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밀의 중량손실 차감분은 호주전역에서 0.5~0.7%의 범위에서 나타난다. 이의 재무적 함의는 밀 가격의 본선인도가격이 톤 당 320달러라고 할 때, 중량손실에 따른 차감 금액은 톤당 1.5달러에서 2.1달러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량손실에 의한 비용은 최종 시점의 로열티(end point royalty)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생산 후 로열티 지급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적은 편이다.

나아가 곡물의 부피를 감소시키는 것은 항구에서 먼지로 인해 발생한다. <표 8>에서와 같이 이 수치는 약 0.1 ~ 0.25% 수준인데, 중량감소와 먼지발생으로 인한 차감의 비중이 종과 지역별로 다른 기술적이고 재무적 측면의 합리적인 이유는 부족한 편이다.

표 8. 2013/14 시즌 밀의 중량손실과 비실 비율에 따른 가격차감

	CBH*	GrainCorp	Viterra	Emerald	Cargill
	(%)				
중량 손실					
중간집하장	0.5	0.7	0.6	0.6	0.7
항구(다른기업집하장 출하분)	–	0.25	0.25	0.3	n/a
항구(동일기업집하장 출하분)	–	0.25	0	0	n/a
비실발생					
비실발생률	0.25	n/a	0.1	0.1	n/a

중량 감소와 비실로 인한 차감을 합하면 그 비용이 약 본선인도가격의 0.7%에서 0.95%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밀의 경우로 살펴보면, 본선인도가격이 톤당 320달러라고 할 때, 손실과 먼지로 인해서 약 2.1에서 2.85달러 가량 차감하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곡물 R&D협회 추가 부담금은 밀의 경우 농가 수취 가격의 1.02%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 생산자는 톤당 2.6달러만 지불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가 해당금액 만큼을 추가로 지원하여 곡물에 대한 연구개발에 사용한다. 결국 비실과 중량손실에 따라 생산자와 공급유통참여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연구개발에 드는 비용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5.3 선적

남호주와 서호주의 경우에 Viterra와 CBH사는 수출업자들이 특정시간대의 선적량에 입찰하는 경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추가적인 프리미엄은 매우 낮아서, 평균적인 수준의 프리미엄이 부피를 기준으로 수출업자에게 리베이트로 돌아간다. 수출업자들은 오직 약속한 물량을 완전히 배에 선적 했을 때, 리베이트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동호주의 경우 GrainCorp 회사는 선착순 시스템을 이용한다. 따라서 경매에 따른 프리미엄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최근에 중장기 협약을 맺어 수출업자는 1년간의 수출 선적권을 사전에 배정 받는다. GrainCorp을 제외 하고는 1백90만 톤의 선적량이 사전에 배정되어 있으며, 이는 동부 해안에서 수출되는 양의 20%에 해당한다.

표 9. 3년간 GrainCorp사의 항구 시설 예약 현황

고객사	선적 분배량(톤)
GrainCorp	1,920,000
Viterra	573,000
Emerald Grain	360,000
Alfred C. Toepfer International (Australia)	360,000
Noble Resources	273,000
Pentag Nidera	180,000
Queensland Cotton Corporation	150,000

자료: AEGIC(2014)

화물 선적권 경매에 따른 프리미엄은 농가 수취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호주 지역의 생산자들이 Kwinana 항을 이용할 경우에 더 높은 가격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수출업자가 20달러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게 되면 선적 가격에 미리 20달러를 포함하여 가격을 설정하게 된다. 반면 이 프리미엄을 손해 본다면, 4만 톤 배에 대해 80만 불을 손해 볼 수도 있게 된다.

현재 곡물 무역상 간에 선적권을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위험을 분배할 수 없어서 무역업자가 처하는 위험의 정도가 더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수집 가능한 곡물량이 불확실 한 상태에서 선적권을 사전에 구매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곡물 가격이 수확 후에 다시 증가할 여지를 주게 된다. 무역 상인들은 자신들이 입찰한 선적권에 해당하는 양의 곡물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물량이 확보 되지 않으면, 사전에 구매한 선적권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무역업자들은 페널티를 물게 된다. 잠재적인 페널티와 위험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진입은 억제 되고 있고, 기존의 국내 곡물을 소비하는 시장 참여자와의 경쟁은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6. 항만운송

호주는 항만 운송에서 다른 북아메리카 해안지역에서 극동아시아로 운송하는데 큰 경쟁력이 약하다. 항만운송을 통해 한국이나, 중국, 일본으로 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미국과 캐나다의 서부해안에서 출발하는 경우와 비슷한 수준이다. 운송에 걸리는 시간은 호주에서 12노트로 항해할 경우 한국, 중국, 일본까지 약 14일에서 17일 정도 소요되는데 미국의 경우 운송 기간은 15일에서 17.5일 소요된다. 이 기간은 항구에서 대기하고 선적을 기다리는 시간은 제외한 기간이다. <표 10>에 국가별 운송 소요 시간이 제시되어 있다.

표 10. 항만 운송 소요 시간(12 노트 기준)

	호주 Kembla, NSW	호주 Kwinana, WA	캐나다 벤쿠버	미국 포틀랜드	미국 멕시코만 데스트레한	우크라이나 니콜라에브
	(days)					
인도네시아(자카르타)	13.4	6.4	25.1	25.7	40.8	22.2
일본(도쿄)	15.8	15.8	14.6	15.2	32.1	31.5
한국(서울)	16.9	15.2	16.9	17.5	34.4	30.3
중국(상하이)	16.3	14.0	17.5	17.5	34.4	29.2

자료: AEGIC(2014)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항만 운송 소요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항만 운송비 역시 비슷하다. 호주의 동부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으로 운송할 경우 운송비는 톤당 21~22달러 수준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톤당 21~25달러이다. 호주의 선박 운임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2달러 저렴하며, 또한 서호주 지역에서 수출 경우 동부지역보다 운임이 약 5달러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아시아 수출 비용

Destination	호주 동부해안	호주 서부해안	캐나다 서부	미국 태평양연안	미국 멕시코만	우크라이나
	(US\$/t)					
일본	22	25	23	25	45	30
중국	21	19	22	23	44	43
인도네시아	16	9	31	31	42	41
한국	23	21	23	24	45	40

자료: AEGIC(2014)

하지만 미국 멕시코만이나 우크라이나에서 극동아시아로 수출하는 것에 비해서는 호주가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항만 운송 거리와 시간이 미국이나 우크라이나에 비해 2배 이상 짧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호주에서 출발하는 곡물의 선박료가 톤당 23

달러 더 저렴하다. 이에 미국 멕시코 만에서부터 아시아로의 수출은 그 규모가 작다.

호주는 국제적으로 동남아시아 즉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 대해서 항만 수출에 우위가 있다. 서호주에서 인도네시아 까지는 6.5일이면 도착을 하게 되고 뉴사우스 웨일즈에서 출발한다면 13.5 일이 소요된다. 이는 미국이나 캐나다,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25~50%까지 짧은 기간이다. 그 결과 이들 지역에 대한 선박비용은 미국에 비해 1/3에서 1/2 수준에 불가하다.

벌크운임지수(Baltic Dry Index)는 선박 운임이 이용가능한 선박과 무역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지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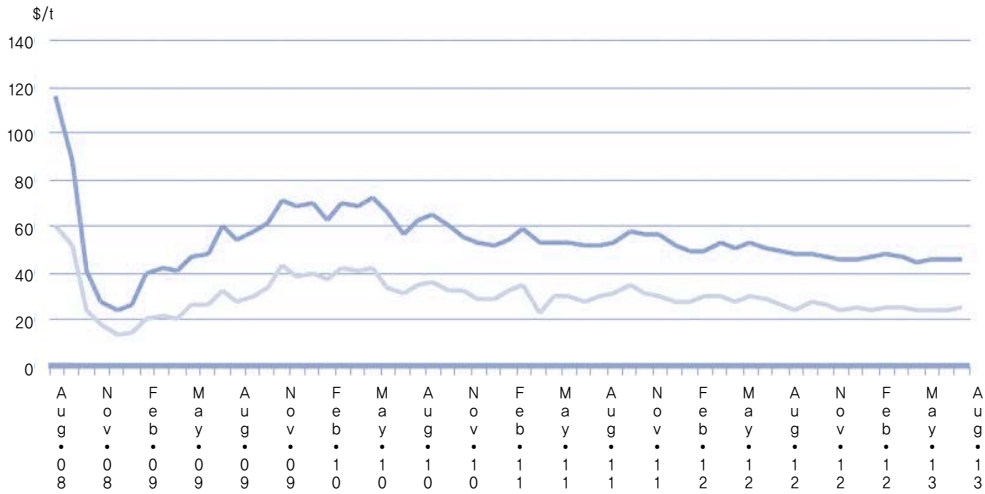
그림 9. 벌크운임지수



자료: AEGIO(2014)

이 BDI지수의 지난 4년간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에 661에서 1500까지 상승하였는데, 여전히 2009/10년 시즌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표는 2008년 5월에는 11,793까지 치솟았던 기록이 있는데 이때는 세계 금융위기가 있기 바로 직전이였다. 선박운임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선박 공급이 과잉을 이루면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BDI가 3,000~4,000 포인트 주순으로 2010년 중반에 유지되었는데, 이때 미국 멕시코 만에서 일본까지의 운임은 톤당 70달러였고, 미국의 태평양연안지역에서 운송할 때에는 톤당 40달러 수준이었다. 이는 현재보다 최대 25달러 ~ 최소 15달러 더 높은 수치이다. 만약 세계무역이 더 활성화 된다면, BDI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0. 분기별 해상 운임(일본-미국: 멕시코만/태평양 연안)



자료: AEGIO(2014)

7. 기타비용

■ 곡물연구개발조합(Grains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추가부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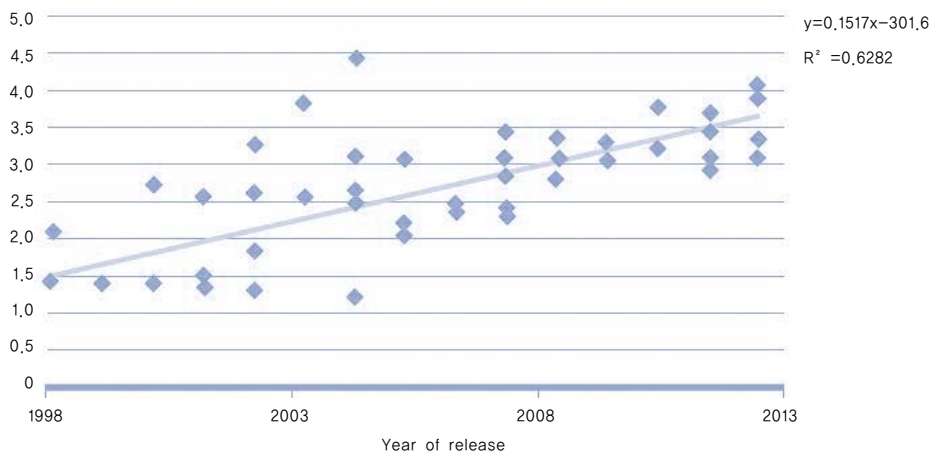
GRDC 추가부담금은 법정 추가부담금으로 농가수취가격의 1.02%로 책정된다. 농가의 최종 수취가격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생산자가 곡물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은 농가의 이익에서 차감된 후, 나머지 최종 이윤에 대해서 부과된다. 이는 농가가 항구나 중간집하장에 더 가까울수록, 그리고 좀더 저렴한 집하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톤당 조금더 높은 추가부담금을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록 모든 지역에서 생산자에게 부담되는 세율이 최종수취가격의 1.02%로 동일하지만, 생산자가 지불하는 절대 액수는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수출유통체계의 비용 효율성이 높으면, 농가가 동일한 부두인도가격(FIS)을 받더라도 더 많은 GRDC 추가부담금을 지불함을 의미하게 된다. 이부담금은 농가의 최종수취가격에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에 판매하는 생산자의 경우에도 수출하는 생산자와 동일한 부담금을 부

담해야한다.

■ 최종단계의 로열티(End point royalties)

밀에 대한 최종 단계 로열티(End point royalties)는 품종에 따라 톤당 0.95~4 달러로 다양하다. 생산자들은 새로운 종자에 대한 로열티를 종가세가 아닌 고정요금으로 지불하게 되면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생산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하지만 1990년에 수확 후에 종가세 개념인 최종 단계 로열티 납부가 도입된 이후에 꾸준히 이 방식이 늘어났다. 또한 향후에도 로열티 지급액은 일반적인 물가 상승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그림 11>.

그림 11. 최종 로열티 지급액과 밀의 품종 개발의 상관관계



자료: AEGIO(2014)

수확 후 최종단계 로열티 지급이 이뤄지기 전에는 품종 개발의 모든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했고, 주정부의 농업관련 기관과, 대학이 협력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시험했었다. 정부의 정책과 지식재산권의 변화에 따라 식물 종자 분야에서 민간 영역의 성장이 활발해지면서, 주정부의 농업관련 기업들은 점차적으로 주요 곡물에 대한 품종 개발을 포기했다. 그 결과 현재 생산자들은 대부분 사용료를 지급해야하는 민간종자회사의 품종을 사용하고 있다. 수확 후 로열티 지급체계가 도

입되기 전에는 생산자들이 원칙적으로 신제품 도입에 따른 생산량과 품질향상에 따른 이익을 모두 가져갔다. 하지만 현재는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함에 따라 신제품 도입의 이익을 종자회사와 공유하게 되었다.

■ 식품안전성(Biosecurity)

호주의 항만에서 이뤄지는 검역 비용은 톤당 .25달러이다. 비록 조사에 사용되는 서비스 비용은 연방정부에 의해 0.11 달러로 규정되어 있지만 서호주와 남호주 지역에서는 선적 비용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GrainCorp과 Emerald사가 다른 회사보다 더 높은 검역,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 주별 추가 부담금

- 서호주: Biosecurity and Agricultural Management Act(BAMA) 부담금(\$0.3/톤)

식품안전성과 농업관리 법안(BAMA)에 따라 서호주 정부는 CBH를 통해 판매되는 모든 곡물에 대해서 이 부담금 납입을 적용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곡물, 종자, 건초 거래시 톤당 30센트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성된 펀드로 잡초와 해충 방역에 사용하고 있다.

- 서호주: COGGO 자율세(농가의 순수익의 0.5%)

곡물 생산자 조직위원회(Council of Grain Growers Organisations LTD:COGGO)는 1997년에 설립되어 10여개 서부 호주 곡물 생산자 조직이 참여하여, 생산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협회에 멤버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농가 순 수입의 0.5%를 지불해야한다.

- 남호주: 곡물 연구개발 펀드 부담금(\$0.3/톤)

곡물 연구개발 펀드는 남호주 곡물 산업 협회가 농작물의 성장·추수·수확·수확 후 관리와 마케팅을 위해 설립한 자조금이다.

- 남호주: 곡물 산업펀드 부담금(\$0.2/톤)

곡물 산업 펀드는 곡물 산업 펀드 관리 계획에 부합하여 곡물산업에 관련된 프로젝트 수행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동호주

동호주 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이 없다.

■ 리베이트와 할인

- 서호주

CBH는 협동 조합이기 때문에 세금 할인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조합원들에게 낮은 비용으로 공급유통망을 제공하고, 리베이트 형태로 이윤을 분배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CBH는 아래와 같은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첫째, 마케팅 및 무역 리베이트이다. 2010년에 도입된 마케팅 및 무역 리베이트는 조합원이 CBH의 마케팅 및 무역 파트에 10월 1일부터 이듬해 9월 30일까지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리베이트 규모는 CBH의 재무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2013-14 시즌에 지급 리베이트는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CBH를 통해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톤당 1달러 수준에서 제공되었고, 이는 중간 집하장 이용에 대한 리베이트로 지급되었다.

둘째, 투자리베이트이다. 투자리베이트는 2013년에 새롭게 도입된 리베이트인데, 이는 CBH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베트남에 있는 밀가루 제분공장에 투자한 수익으로 조성되었다. 생산자는 판매한 곡물에 대한 리베이트를 다음 시즌에 받게 되는데, 그 액수는 9월에 결정된다. 2013/14시즌의 리베이트는 톤당 0.75 달러 수준이었다.

8. 호주의 농산물 수출 비용

2013/14 시즌 곡물 생산자가 수출을 할 경우 지급해야할 비용을 세분화 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항구까지 200km를 운반해야하며, 선적 가격은 톤당 320달러로 모든 항만 터미널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또 부두인도가격은 중량손실과 먼지로 인한 차감비용, GRDC 부담금을 포함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중간집하장에서 3개월 동안 저장된다고 가정하며, 다른 특별한 선적상 요구나 프리미엄은 없다고 본다. 또한 수확후 로열티 지급액은 톤당 3달러로 가정한다.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농민이 지급해야하는 비용은 그림 16과 표 13에 제시되어있다. 서호주에서는 유통비용이 가장 낮아 톤당 58.93 달러였다. 가장 높은 유통비용을 보이는 곳은 퀸즈랜드로 농가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톤당 72.64 달러에 달했다. 이는 퀸즈랜드지역의 생산자들이 적어도 14달러 즉, 25%이상의 유통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장 기간을 3개월로 가정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곡물 생산자들이 생각하는 평균 저장 기간 중 가장 짧은 시간이다. 내륙 운송 거리가 200km라는 가정은 앞서 통계적으로 분석된 평균 거리를 기준으로 설정했다. 거리가 달라질 때 나타나는 운송비 부담금액은 <표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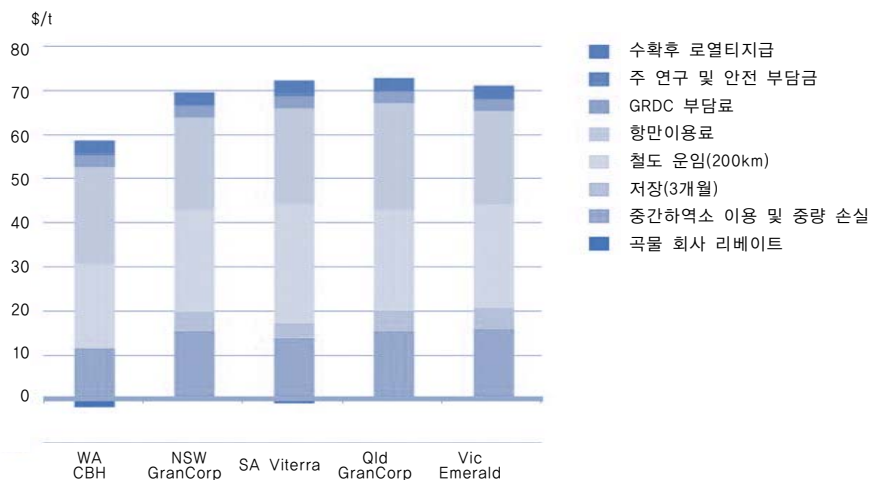
표 12. 지역별 거리에 따른 운송비 변화

항구까지거리	100 km (± 10km)	200 km (± 10km)	300 km (± 20km)	400 km (± 20km)
남호주				
\$/t	15.6	27.5	29.6	-
\$/t/km	0.16	0.14	0.10	-
서호주				
\$/t	10.2	19.3	24.3	-
\$/t/km	0.10	0.10	0.08	-
동부지역				
\$/t	14.5	22.7	31.0	39.3
\$/t/km	0.14	0.11	0.10	0.10

자료: AEGIO(2014)

2013/14시즌에 수출 유통 비용에 변화가 예상된다. 그림 16은 주요 곡물 기업들이 부과하는 요금체계를 2012/13 시즌과 2013/14 시즌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저장과 항구 이용비용이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호주 지역에서는 0.2% 상승하고 서호주 지역에서는 2.7% 상승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저장과 항구 이용료에 따라 다르다. 2013년 CBH는 중간집하장 이용비를 4%가량 낮췄으나 항구 이용비는 6.8% 높였다. GrainCorp과 Viterra의 경우에는 중간집하장 비용을 3.6~4.2%가량 낮추고, 기본 항만 이용료도 2.6~3%까지 낮추었다.

그림 12. 주별 곡물회사의 요금 구조 비교



자료: AEGIC(2014)

표 13. 유통단계별 가격

2013/14	WA — CBH	NSW — GrainCorp	SA — Viterra	Qld— GrainCorp	Vic — Emerald
	(\$/t)				
본선인도가격(FOB)	320	320	320	320	320
항만이용료	21.90	20.99	21.78	24.11	21.11
부두인도가격	298.10	299.01	298.23	295.89	298.89
중간집하장이용료 및 중량손실	11.49	15.18	13.64	15.39	15.85
저장료(3개월)	—	4.50	3.30	4.50	4.80
화물열차운임 — 200 km	19.00	23.00	27.20	23.00	23.40

2013/14	WA — CBH	NSW — GrainCorp	SA — Viterro	Qld— GrainCorp	Vic — Emerald
	(\$/t)				
GRDC 부담금	2.73	2.71	2.59	2.64	2.64
주 연구 및 안전 부담금	0.30	—	0.50	—	—
최종 로열티	3.00	3.00	3.00	3.00	3.00
기타					
리베이트 전 총 유통비용	58.42	69.38	72.01	72.64	70.80
리베이트	-1.75	—	-1.10	—	—
리베이트 후 유통비용	56.67	69.38	70.91	72.64	70.80
농가수취가격	263.33	250.62	249.09	247.36	249.20

자료: AEGIO(2014)

9. 주요 시사점

첫째, 유통비용이 총생산비의 30%를 차지한다. 호주의 밀의 경우, 항구까지의 내륙 운송 거리가 200km라고 할 때, 유통비용이 최저 톤당 60~75달러 수준이다. 이러한 유통비용은 곡물 생산자에게는 가장 큰 지출항목이다.

둘째, 주요 곡물 기업이 유통단계별 재무 지표를 완전히 공개를 하지 않아,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항만 이용비용도 수출단계상 3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항만이용비용은 다른 유통단계의 비용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넷째, 생산의 불확실성이 유통 비용을 증가 시키고 있다. 풍년일 때의 수확량이 평균이상으로 많아지는 등의 변동성까지 고려하면 추가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하게 되고, 이는 유통 비용으로 전가된다. 최근의 유통비용상승은 대부분 생산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기인한다.

다섯째, 중량손실과 비실로 인한 차감률 설정에 투명성이 부족하다. 곡물을 유통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중량 손실과 비실로 인한 감모가 일어나고 이는 곡물의 품종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기술적, 재무적으로 감모율을 엄밀하게 도출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R&D 부담금, 수확 후 로열티

지금 체계의 도입으로 인해 더 엄밀하게 이를 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언론의 관심도 필요한 상태다.

참고문헌

Stutch, Tamara, Chris Carter and Ross Kingwell(2014). Australia Bulk Grain Export Supply Chains, Australian Export Grains Innovation Centre(AEGIC).



part

03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2014 World Grain Market



World Grain 곡물시장뉴스 / 137

해외곡물시장 뉴스 / 151



World Grain 곡물시장뉴스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유럽연합은 평균 이상의 곡물 수확을 예상

유럽 연합의 2014년 여름 단기 농업 전망에 따르면, 2년째로 유럽연합의 곡물 수확이 평균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된 2013/14년의 수치들이 평균 이상인 3.02억 톤의 곡물 수확량을 확신하고, 수출 레벨이 기록적인 4,200만 톤에 다다를 것을 뒷받침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로 인해, 이월 재고량은 제한되고 이용될 재고량 비율이 부분적으로 10%에서 12%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15년의 새로운 수확량은 2년째 평균 이상으로 3.03억 톤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곡물 생산량은 5년 평균보다 5% 높으며 2012-13의 생산량보다 8% 높다. 이것은 밀 수출량 2900만 톤을 포함하며, 이는 평균보다 43% 높다.

연질밀이 유럽연합 최고 작물로 남으며 1.35억 톤의 최종 생산량을 기록했고, 이 뒤로 옥수수가 6,500만 톤 그리고 보리가 5,900만 톤을 기록했다. 듀럼밀은 780만 톤으로 2007년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곡물이 파종된 토지 평균은 지난해보다 약간 낮은 0.2%감소를 보였고, 이는 주로 연질밀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약간의 감소로 인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호의적인 기후 조건으로 인해 산출량은 이전 해에 비해 8% 증가를 보였고, 특히 연질밀은 7.3%의 증가, 보리는 10%의 증가 그리고 옥수수는 11%의 증가를 보였다. 듀럼 밀 생산량의 감소는 주로 감소한 토지비율로 인한 것이며, 특히 프랑스에서 두드러졌다.

곡물 수출량은 기록적인 4,200만 톤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2,900만 톤은 연질밀이고 보리가 850만 톤을 차지한다. 이는 유럽연합의 전통적 선적 국가들과 한국 그리고 이란으로의 더 많은 선적량을 초래한다. 프랑스와 독일을 뒤따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가 각각 제3 국가들로 밀을 수출하는 세 번째와 네 번째

국가들이 되었다.

국내적으로 사료용 이용도가 지난해에 비해 약간 증가해 1% 증가를 보였고, 이는 사료용 밀과 옥수수의 낮은 가격과 마케팅 연도 하반기에 증가한 유제품의 수요가 뒷받침 했다.

최종 곡물 재고량은 470만 톤 증가해 3,2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여전히 5년 평균보다 24% 이하지만 이용될 재고량의 비율을 10.3%(2012 말)에서 12.0%으로 증가시킨다.

2013/14년의 지방종자 생산량 전망은 3,120만 톤으로 총합되었다. 이 수치는 낮았던 2012/13년 수확량 보다 12.7% 증가한 것이다. 특히 유채 씨는 기록적인 8.4%의 파종 토지 증가율을 기록하며 곡물 파종 토지의 감소를 벌충했고, 총 생산량이 2090만 톤에 다다랐다. 해바라기 생산량은 25% 증가하여, 900만 톤에 다다랐고, 이는 파종 토지의 2.5%증가와 22.3%의 산출량 개선으로 달성된 것이다.

총 단백질 작물 또한 토지 감소에도 불구하고 2,400만 톤으로 생산량 증가를 보였다. 새로운 유럽연합의 곡물 수확량에 대한 전망은 약 3.03억 톤의 생산량을 가리키며, 이는 2013/14년보다 약간 높고, 2년째로 평균보다 5.5%가 증가한 수치이다. 총 곡물 파종 토지는 거의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연합 농부들의 선호도가 연질밀과 옥수수의 토지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보리 파종 토지는 6.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듀럼밀의 부정적 유행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 OECD-FAO 농업 전망에서 곡물 가격 하락 예상

최근 주요 작물들의 가격 감소는 2008년 이전 기간의 수준 이상이지만 최근 최고 가격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되기 이전에, 앞으로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와 식량 농업 기구(FAO)가 생산하는 최근 농업 전망이 전했다.

농업 상품들에 대한 수요는 지난 십 년보다 느린 추세로 성장세를 누리며 안정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곡물은 여전히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의 중심에 서있지만, 수입이 늘어나고 도시화가 증가하며 세계 많은 곳들에서의 식단들이 더 많은 단백질, 지방 그리고 설탕을 포함한다.

OECD-FAO의 농업 중장기 전망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세계 인구 성장과 통합되어, 앞으로 다가오는 신년간에 걸쳐 상당한 생산량의 팽창을 필요로 할 것이라

고 전했다.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가 이끌어, 개발도상 지역들이 앞으로 십 년간 75%이상의 추가 농산물 산출량을 차지할 것이다.

이 보고서를 로마에서 발표하며 OECD의 사무총장 Angel Gurría는 “이례적이지 않게 높은 가격들 이후 농산물 시장들은 더욱 안정된 환경으로 되돌아 가고 있다. 이것은 정부들이 무역 조치 이용의 제한 노력을 보여 도움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무역, 생산량 그리고 빈곤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정부들은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해 사회적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농부들이 위험요소를 관리하도록 도울 수 있는 도구들을 개발하고 농업 생산성에 투자해야 한다.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이익을 달성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문제로 남는다.”

FAO 단체장인 Jose Graziano da Silva는 “올해의 전망의 메시지는 더욱 긍정적이다. 농부들은 높은 가격들에 재빨리 반응했고 그들의 생산량을 증가시켜, 이제 우리는 더욱 많은 재고량을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는 곡물과 관련된 가격들은 앞으로 최소한 2년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수요의 증가를 대면하는 육류와 어류에 대한 경우는 다르다. 특히 개발 도상국들에서의 농업 부문의 좋은 실적이 기아와 빈곤의 박멸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초점을 맞춘 인도의 경우, 이 전망 보고서는 유제품 생산과 수경재배와 같은 부가가치 부문들이 이끄는 지속되는 식량 생산과 소비 성장을 전망했다. 생산 기술과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여러 부문들 보조들과 함께 지난 십 년간의 거센 산출량 팽창에 기여했다고 이 보고서는 전하며, 자원에 대한 압력이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해들에 걸쳐 생산량 증가 비율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채식주의자로 지속되겠으나, 인도의 식단은 다양화 될 것이다. 곡물, 우유 그리고 유제품, 생선 류, 콩 종류, 과일 그리고 채소의 소비가 증가하며, 영양소들의 섭취가 개선될 것이다. 인도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식량 부족 인구 보유 국가이다.

이 농업 전망은 세계적 곡물 생산량이 2011-13 기간에 비해 2023년까지 15%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장 빠른 생산량 증가는 지방종자에서 일어날 것으로,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26% 증가할 것이다. 조립 곡물과 지방종자 생산량의 팽창은 특히 선진국들에서의 바이오 연료의 높은 수요와 개발 도상 지역들에서의 사료 필요 조건 증가로 인해 초래될 것이다.

식용 작물의 팽창은 앞으로 다가오는 십 년간 부진해, 밀 산출량 증가가 약 12%

그리고 쌀은 14%으로 이전 십 년의 성장 비율보다 매우 낮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설탕 생산량은 앞으로 다가오는 십 년간 20% 증가하며, 주로 개발 도상국들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 전망 보고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십 년간 넓은 범위의 상품들에 대한 개선을 전망했다:

곡물은 주요 곡물들의 세계적 가격들은 전망 기간 초에 완화되어, 세계 무역을 북돋을 것이다. 아시아의 쌀 재고량이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에 다다르며 재고량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지류의 경우 파종된 토지의 국제적 비율은 식물성 기름의 증가하는 수요가 가격을 상승시키며 지난 몇 년간의 비율에 비해 느리지만 증가를 지속 할 것이다.

설탕은 2013년 말의 약화 이후, 거센 세계적 수요로 인해 가격들은 회복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우세한 설탕 수출국인 브라질에서의 수출은 에탄올 시장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바이오 연료는 설탕을 원료로 한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로 인해 바이오 연료의 소비와 생산 수준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탄올 가격 증가는 원유 증가를 따를 것이고, 바이오 디젤은 식물성 기름 가격의 형태를 더욱 가깝게 뒤따를 것이다.

■ 미국의 2014/15년 밀 이월 재고량 8,600만 부셸 증가

미 농무부는 이들의 7월 11개국 농업 공급량과 수요 전망에서 미국 내 2015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이월 재고 밀의 양을 6.6억 부셸로 예상했고, 이는 6월의 전망보다 8600만 부셸 또는 15% 증가한 것이며, 2014년 6월 1일의 5.9억 부셸에서 7000만 부셸 또는 12% 증가한 것이다.

2015년 미국 이월 밀 재고량은 업계가 예상한 평균인 5.85억 부셸 보다 매우 높다. 2014년의 총 밀 생산량은 19.92억 부셸로 예상되었으며, 이는 6월 예상한 19.41억 부셸과 2013년의 12.3억 부셸과 비교할 수 있다. 밀 수입은 1.6억 부셸로 예상되며, 이는 6월의 전망과 같고 작년의 1.68억 부셸보다 800만 부셸 감소한 것이다. 총 밀 공급량은 27.41억 부셸로 전망되며, 이는 6월의 전망보다 4,600만 부셸 증가했지만 작년의 30.16억 부셸에서 2.75억 부셸 또는 9% 감소한 것이다.

2014/15년의 총 밀수요량은 20.81억 부셸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6월보다 4,000만 부셸 감소 한 것이고 2013/14년의 24.26억 부셸과 비교할 수 있다. 밀 수출량

은 9억 부셸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6월의 9.25억 부셸에서 2,500만 부셸 감소한 것이며 2013/14년의 11.82억 부셸에서 2.82억 부셸 감소한 것이다.

건질 적색 겨울 밀의 2015년 6월1일 이월 재고량은 1.85억 부셸로 전망되었고 이는 2014년의 2.35억 부셸에서 감소한 것이다. 연질 적색 겨울 밀의 이월 재고량은 1.98억 부셸로 전망되며, 이는 올해의 1.14억 부셸에서 증가한 것이다. 건질 적색 봄 밀의 이월 재고량은 2014년보다 2,200만 부셸 증가한 1.91억 부셸로 전망된다. 듀럼 밀 이월 재고량은 3,300만 부셸로 전망되었으며, 2014년 보다 1,100만 부셸 증가하였다.

미국의 2015년 9월 1일 옥수수 이월 재고량은 18.01억 부셸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6월보다 7,500만 부셸 증가한 것이며, 2014년 9월 1일 이월 재고량으로 전망된 12.46억 부셸 보다 5.55억 부셸 또는 45% 증가한 것이다. 미 농무부의 2015년 전망은 업계 평균 전망이었던 17.73억부셸 보다 높았으며, 2014년의 수량은 업계 평균인 12.25억 부셸 보다 높았다.

2015년 9월 1일 미국 대두 이월 재고량은 4.15억 부셸로 전망되었으며, 6월에 전망된 3.25억 부셸보다 9,000만 부셸 또는 28% 증가한 것이며, 2014년 9월1일 이월 재고량을 위해 전망된 1.4억 부셸보다 2.75억 부셸 또는 196% 증가한 것이다. 2015년 미 농무부의 전망은 거의 4.08억 부셸이었던 업계 평균 전망보다 높았으며, 2014년의 재고량은 평균 전망이었던 1.3억 부셸보다 높았다.

미 농무부는 2014/15년 세계 연말 밀 재고량을 1억 8,954만 톤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6월에 전망했던 1억 8,861만 톤과 2013/14년을 위해 전망되었던 1억 8,429만 톤과 비교할 수 있다.

2014/15년의 세계 밀 생산량은 7억 517만 톤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6월의 7억 162만 톤과 2013/14의 7억1,420만 톤과 비교할 수 있다. 소비량은 6억 9,962만 톤으로 6월의 6억 9,906만 톤과 이전 연도의 7억 552만 톤과 비교할 수 있다.

2014/15의 세계 연말 옥수수 재고량은 1억 8,805만 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6월에 전망된 1억 8,265억 톤과 2013/14년의 1억 7,342만 톤과 비교할 수 있다.

■ 무역 제재가 러시아산 밀의 범람을 초래할 수도

러시아에 대한 더욱 엄격한 세계적 무역 제재가 세계 시장으로 밀의 범람을 초래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호주의 가장 큰 곡물 수출 경쟁

국들이다. 시장 분석가들은 올해 러시아산 밀 산출량이 5,000만 톤이 될 것이며, 이 중 2,000만 톤은 수출용이라고 예상했다.

말레이시아 비행기의 추락 이후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더욱 엄격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현재, 곡물의 수확은 진행되고 있다.

시드니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Mark Melatos는 러시아 밀 수출가들이 만약 제재들이 그들의 수출을 제한 시킬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전에 그들의 상품으로 시장이 범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써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여름 작물량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 많은 곡물들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량을 감소하려고 할 수도 있으며, 특히나 그들이 생각하는 더 큰 무역 제재들이 가해지기 전에 판매하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적으로 가격들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제재들은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Melatos박사는 제재는 주로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 두 국가들 간에 무역 장애로써 또는 경제적 거래의 제한.

그는 미국이 말레이시아 비행기 추락 단 몇 일전 크렘린, 은행들 그리고 사업체들에 친밀한 관계를 갖는 러시아 개인들에게 제재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Melatos박사는 “러시아 편에서는 이에 대한 피해는 뻔하다. 그들의 무역, 또는 만약 경제적 제재들의 경우 그들의 사업체들과 은행들이 지불하는 값은 매우 크며 그들이 세계적인 범위로 거래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부과하는 국가들이 지불하는 값은 여러 방면에서 나온다. 첫째로, 만약 누군가가 러시아가 판매하는 수출품을 구매한다면 그 나라들은 더 이상 수출품을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 그들이 러시아산 가스를 구매하거나 러시아산 밀을 구매한다면, 그들은 대체 공급 상품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그들이 이 상품들을 러시아로부터 구매했다고 추정한다면, 그들은 이제 그 상품들을 아마도 더 비싸게 파는 공급원으로부터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값비싼 가격을 대면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Melatos박사는 더욱 엄격한 제재들이 가스와 금융적 거래를 가장 크게 영향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제재들이 유럽, 미국 그리고 러시아 사이에 완벽한 무역 통상 금지령을 가한다면 밀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말한다.

“만약 제재가 밀의 무역을 막는다면, 시장에 밀 공급량이 낮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Melatos박사는 말했다.

“이것은 호주와 다른 큰 무역 수출국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다. 그들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성장하고 그들은 더욱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는 그들의 곡물 산출량 중 절반 정도를 북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그리고 동남 아시아로 수출한다. 호주는 2013년에 약 2,700만 톤의 밀을 생산하였고 2014년에는 약 2,500만 톤을 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2013년 밀 산출량은 약 5,000만 톤이었고, 이들은 2,000만 톤을 수출했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5번째로 큰 밀 수출국이다.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지역은 약 600만 톤의 곡물을 매년 수출하고, 이는 이 나라의 총 곡물 수출량 중 약 절반이다.

올해 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기 위해 싸웠던 크림반도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량 중 약 5%를 수출했다. 5월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이 오데사 지역의 폭동으로 이끌어 40명 이상의 사망이 초래되었다. 이 폭동들은 이 지역들이 그들의 항구 출입과 곡물 수출의 제한이 일어날수 있다는 두려움을 초래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은 가격 폭등을 유발해, 밀은 1톤당 약 300달러에 판매되었다. “우리는 이 지정학 요인을 갖고 있었지만, 미국산 겨울 작물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가뭄이 든 남부 평원 지역에서 실제로 얼마의 밀이 생산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다.”고 Profarmer의 상품 분석가인 Hanna Janson이 말했다.

“이러한 혼란이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으로 인해 초래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번 시즌에 세계적으로 충분한 밀이 실제로 생산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혼동을 가져왔다.”

이후로 한달 후, 밀은 1톤당 약 220달러로 거래되었으며, 말레이시아 비행기의 추락은 단 5달러/톤의 급등만을 초래했다.

이러한 증가는 바로 다음날 하락하였고, 그 날이 후 가격은 비교적 변함없었다. 국가들은 그들이 계속 러시아산 곡물을 이용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3월의 급등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분쟁이 처음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이후 잠시 시장은 겁먹었지만, 이들은 이에 대해 숙고하였고 제재가 사실상 무엇

을 뜻 하는 지와 이들이 식품 수출에 영향을 끼칠 것 인지 아닌지에 대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Janson씨가 말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우리는 무역 활동들이 다시 회복되어 근본적인 요인들 바탕으로 거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Janson씨는 통상 금지령 또는 러시아 내의 정치적 폭동이 일어나야 시장들이 이 지역에서 곡물 구매를 멈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러시아 전체적으로 수확이 계속되며, 산출량 전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낮은 품질이 프랑스산 밀을 사료 시장으로 내몰다

낮은 품질의 프랑스산 밀 작물이 “상당한” 수량이 사료용으로 수출되며, 이에 대한 결과로 이외의 유럽 국가들이 이 부문에서 강한 경쟁이 있을 것이란 생각에 긴장을 높이고 있다.

“프랑스산 밀 작물에 완전한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주요 유럽 상품시장의 거래가가 말했다.

“들판에서 일부 작물이 땅에 눕고 최아 한다는 뉴스 이후 우리는 상당한 양의 프랑스산 사료용 밀이 수출 시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요 세계적 브로커 업체의 한 분석가가 Agrimoney.com에 관측을 확인해주었다.

“확실히 일어나는 일이다. 프랑스 시장은 판매를 원한다,”라고 그 분석가는 말했고, 프랑스 곡물 부문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 “협동조합으로 인한 판매”가 월요일의 프랑스 선물 시장의 급격한 하락에 부분 기여했다.

프랑스산 사료용 밀은 톤당 4유로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런던에 사료용 선물이 거래되고 습한 기후로 인해 가축에 할당되는 곡물의 공급에 더욱 자연스러운 이웃 국가인 영국보다 낮다.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제분용 밀의 제공하지만, 수확 기간의 비가 최아와 단백질 함유량을 감소시켜 사료용에 더 알맞게 한다.

곡물을 사료 공급량으로 판매하려는 생산자들의 열의가 유럽 산 작물의 품질 저하의 조짐 중에 하나로 보이며, 이는 앞으로 대량 생산될 것으로 보이나, 제분용에 알맞은 수량이 대폭 감소될 것이다.

“수확이 유럽을 통해 북쪽으로 진행되자 좋은 산출량의 그림이 그려지나 품질의 문제가 있다,” 유럽 상품 거래소가 말했다.

한 영국 거래자는 Agrimoney.com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럽에 사료용 밀의

부족은 없어 보이고, 이는 옥수수 작물들에 손을 대기도 이전이며, 그리고 대량의 미국산 옥수수 또한 준비 중이다.

“앞으로 가격을 상향하게 해줄 부족 현상을 보려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기왕에 최악의 상품들을 지금 판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야 한다.”

유럽 중부의 밀 품질은 비교적 높다고 이 브로커 업체의 분석가는 말하며, 독일이 유명한 경질 밀 공급량이 좋은 징조를 보이며, 체코 공화국 또한 일부 괜찮은 수확 결과로 15% 또는 이상의 단백질을 포함한다. 그러나 더욱 동부 지역인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고 헝가리의 문제들은 이미 INTL FCStone의 해설자로부터 미 농무 성까지 잘 보고되어, 상인들이 수출 주문들을 맞추기 위해 좋은 품질의 공급량을 찾는 것을 북돋고 있다.

루마니아는 이번 달 초, 세계 최고 밀 수입자인 이집트의 곡물 당국인 GASC에 의해 두 개의 유명한 입찰 건들을 낙찰 받았다. 그 동안 유럽 서부의 프랑스 북동쪽에서는 파리에서 독일 국경까지의 들판에서 자라는 밀들의 30% 발아율이 보고되었다.

“이제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가격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 하는가 이다,”라고 이 분석가는 말하며, 공급에 대한 압박에서 품질 할증료에 대한 지원을 예측하나, 이미 하락한 정도를 보았을 때 사료용 밀에도 또한 적용 될 것이다.

유럽의 옥수수 선물을 특히나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이는 사료용 밀에 대한 경쟁 증가 때문이 아니라, 수확 가능성의 증가와 아직 성장기에 있는 가을 수확 작물들의 품질을 더욱 약화 시키기 때문이다.

11월의 옥수수 선물 가는 화요일에 파리에서 0.8% 하락한 1톤당 158.50유로에 거래되었으며, 이는 지난 한 달간 10.1% 하락했고 이는 11월 6.0% 하락한 제분 밀 선물 가였던 1톤당 177.00유로와 비교할 수 있다.

■ 이집트 밀 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하다

경작 가능한 토지와 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밀 산출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이집트는 수입 비용을 줄이고 식량 보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그들의 곡물 공급 망의 저장고와 물류 연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 중 이다.

이집트의 연간 밀 소비량은 1,500만 톤에서 2,000만 톤이며, 정확한 수치는 재배자들이 그들의 수확량 절반을 개인용 소비 용도와 다가오는 시즌의 파종을 위

한 씨앗 재고량을 위해 출하는 억제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총 소비량 중, 이집트는 주기적으로 1,000만 톤 또는 이상의 밀을 연간 세계 시장에서 수입해, 이들을 세계에서 가장 큰 곡물 수입국으로 만든다.

이러한 수입량은 이집트의 외화 보유고에 상당한 소모를 부과한다. 정부가 연간 식량 수입에 지출하는 46억 달러의 상당량이 곡물 구입에 이용된다. 밀은 연료 가격 보고 이후 가장 큰 지출 단일 보조금을 대표하고, 이것은 7월초 예상치 못하게 삭감되어 자동차 연료의 가격과 천연 가스 가격을 70% 이상 증가시켰고 식품 가격을 20% 이상 증가 시켰다고 경제학자들은 밝혔다.

이 정부는 수입품에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더 큰 국내 생산량을 격려하고 있지만, 이 농업 부문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되어있다.

“농부들은 기후, 시장 가격, 농업 투입 물 가격, 노동비용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대면한다,”라고 영농사업 그룹인 Syngenta의 이집트 지사 대표, Nasser Abu alrous가 OBG에게 말했다. “생산 비용은 증가하고 있고 소득이 높은 농사법을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은 기술을 도입하고 최고의 농사법을 도입해 산출량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라고 그는 더했다.

밀 경작을 위해 알맞은 경작가능 토지들 대부분은 이미 일구어졌고, 거주지와 산업 지 확장이 이용 가능한 토지에 추가 압력을 가하며, 부족한 수자원, 뺏어가는 도시들의 들판 비율 차지가 증가하고 있다.

생산량 용량 제한을 완충하기 위해 이집트는 각 수확의 최대량이 제분소에 안전하고 좋은 상태로 도착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강화시킨다. 저장과 운반 도중 초래되는 손상물의 추산은 연간 100~160만 톤으로 5억 달러까지의 가치가 있는 손해이다. 국가 곳곳의 저장고 망을 개선시키고 물류 서비스들에 개선을 계획하면 이러한 손해의 많은 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5월에는 합산한 용량이 45,000톤인 9개의 저장고들이 항구 도시인 Alexandria에 개관되었고, 각각 5,000톤 용량의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18개의 추가 저장고들이 내년 6월에 완공 될 것이다.

이 저장고들은 작년 말에 발표된 식량 안전 보장을 보강하고 손상을 줄이기 위해 이 국가의 곡물 저장 용량을 300만 톤에서 450만 톤으로 증가 시키기 위한 더 큰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다.

이 프로그램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의해 지지 받고 있고, 이들은 합산 용량의 150만 톤인 25개 저장고들의 건설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Amiriya의 북부와 Damietta

지역에 건축될 이들 저장고들의 첫 건설을 위한 계약서들은 5월 말에 수여되었다.

이집트의 저장고들은 이미 올해의 수확물로 채워지고 있다. 정부 곡물 기관들은 이번 시즌에 목표한 구매량을 거의 충족 시켰고, 이들은 올해 초 그들의 총 수확량의 약 절반으로 예상되는 국내산 밀을 440만 톤까지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예상되는 수요량의 나머지는 다시 한번 수입을 통해 충족될 것이다. 2013년에 이집트는 외화 보유 부족과 악화된 환율이 구매력에 영향을 끼쳐 수입을 감소시키며 세계 곡물 시장에서 낮은 프로필을 유지했다. 올해에는 더욱 안정적인 정국과 세계적 지원이 시장으로의 귀환을 복돋았다.

가장 최근에는 곡물 수입을 책임지는 정부 기관인 the General Authority of Supply Commodities(GASC)가 5월에 우크라이나와 상당한 크기의 밀 구매 협정을 맺었다고 발표하며, 6만 톤이 6월 말 열흘간 선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구매는 4월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루마니아로부터 계약한 23만 톤에 추가로 구매된 것이다.

이집트는 또한 작년의 수분 함유량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어, 올해 이들의 수입 망을 넓힐 수 있다. 이집트는 수입 곡물의 수분 함량을 13%로 제한해, 이전에는 이 국가의 선두 밀 공급원이었던 프랑스를 제외한 모두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약 13.5%의 수분 함량으로 인해 프랑스 산 밀은 2013년의 엄격한 조건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만약 이집트의 평균 100만 톤의 밀 수입량의 약 절반을 책임지는 GASC가 이들의 기준을 완화 시킨다면, 이것은 더 많은 수입 기회를 제공하고 이집트의 구매 프로그램의 기본을 넓힐 수 있다.

■ 미국 옥수수 가격 하락으로 농부들 자금난에 직면

무너지는 옥수수 가격들이 많은 미국 농부들이 수 년 만에 처음으로 고난을 겪을 것이며 농업경제가 십 년 만에 첫 슬럼프를 겪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퍼뜨리고 있다. 옥수수 가격들은 거의 완벽한 기후가 중서부가 2년 연속 풍년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을 복돋아, 지난 3개월 간 거의 30% 하락해 201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 다른 작물들의 가격들 또한 급격히 하락하였고, 대두는 거의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밀은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가격을 하락시키는 과잉 수량의 옥수수는 정육업자, 가축 업 농부들 그리고 에탄올 생산자들과 같은 동물 사료 또는 이외의 용도를 위해 곡물에 의존하는 업체

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낮은 세계적 곡물 가격 또한 소비자들을 돕고 있으며, 특히 빵 또는 이외의 주식들이 지출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들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국제 연합 식량 농업 기구가 발행하는 월간 식량 가격 지수는 6월에 3개월 째 1월 이래로 가장 낮게 하락했고, 이는 대부분 곡물과 식물성 기름의 하락 때문이다.

낮은 상품 가격들은 미국 식료품점의 시리얼, 쿠키 그리고 곡물과 대두를 포함하는 상품들의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일부 가공 식품 업체들 또한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하지만 옥수수 가격의 하락은 옥수수가 미국의 가장 큰 작물이고 35만 개 농장들에서 재배되며 작년의 농부들의 수익 중 약 600억 달러를 산출하기 때문에 미국 옥수수 지역의 소득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예상된다.

현재는 옥수수는 기록적으로 높았던 2012년 가격에서 57% 하락해, 일반적으로 농부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 필요한 부셸 당 4달러의 한계 밑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것은 2006년 이래로 처음으로 많은 농부들이 그들의 재배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농업 경제학자들은 말했다.

이러한 조짐은 이미 중서부에서는 완연하다. 일부 지역들의 농업토지 가치는 수 년 간 지속된 호황 이후 하락하기 시작했고, 농장 시설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농장 시설 판매업체인 Deere&Co.는 이들의 5월 2분기 수익 보고에서 9.5% 하락을 전하며, 올해 미국 내 농장과 조경 시설들의 판매는 5%에서 10%사이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부들이 지출을 감소하면서 트랙터, 씨앗 그리고 이외의 농업 물자들의 판매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돈이 사라져버렸다,”라고 일리노이주에서 3,000에이커 농사를 짓는 Matt Bennett이 말했다. “농부들에게만 어려움이 닥친 것이 아니라 헛간을 짓는 이들이 계도” 그리고 “트럭을 판매하는 이들에게도 어려울 것이다.”

39세인 Bennett씨는 그가 이미 예상했던 수확물의 절반 정도를 부셸당 5달러에 판매했기 때문에, 올해 이익을 남길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마진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며 2015년은 더욱 힘들어 질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목요일의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9월 배달을 위한 옥수수의 front-month contract(선물시장에서 가장 단기간 계약으로 구매 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계약한 날짜에서 만료 날짜가 가장 가까운 계약)이 1센트 또는 0.3% 하락해 부셸당 3.615 달러에 거래되었다.

농업 지역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가는 동안, 경제학자들과 농업 금융업계는 농부들이 비교적 낮은 채무 수준을 갖고 있고 최근 호황 기간 동안 쌓여진 현금 보유액이 있기 때문에 1980년대의 농업 위기처럼 심각한 쇼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농무성은 농장 자산에 비교한 경영 채무의 수준 전망은 올해 10.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이는 1954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옥수수과 대두 가격들은 만약 건조한 기후가 재배 기간 말에 중서부를 덮친다면 다시 반동할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하지만 만약 호의적인 기후가 지속된다면, 옥수수 선물은 부셸 당 3.25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미니아폴리스에 소재한 Northstar Commodity 브로커사의 분석가 Mark Schultz가 말했다. “이 시장은 올해와 내년까지 부진할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미 농무성은 지난 2월 미국 농부의 순 소득이 올해 27% 감소해 958억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고,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낮다. 그 이후 재배 환경이 뛰어났기 때문에 일부 경제학자들과 금융업계는 소득 하락이 더욱 급격하고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농업 소득은 마지막으로 2005년과 2006년 연속으로 떨어졌다.

심각한 가뭄 이후 2년 만에 미국 옥수수의 풍부한 공급이 이루어져 가격을 부셸 당 8.31달러 이상까지 끌어올렸다. 작년의 40% 하락 이전에 에탄올 업계와 중국과 같은 해외 시장의 성장하는 수요로 인해 옥수수 가격은 이전 3년간 부셸당 6달러 이상을 맴돌았다. 미국 농업 소득은 작년에 높게 지속되어 1조 3,050억 달러를 달성했고, 이는 1973년 이후로 조정 인플레이션 바탕 중 가장 높았다.

미 농무성은 올해의 옥수수 수확량을 138.6억 부셸로 예상하며, 작년의 기록인 139.3억보다 약간 낮다.

트랙터, 콤파인, 토지, 비료 그리고 씨앗의 가격들 또한 대부분 작물의 가격들과 최근 증가했기 때문에, 옥수수 가격이 부셸 당 4달러 이하로 떨어질 때 많은 옥수수 재배자들이 손해를 대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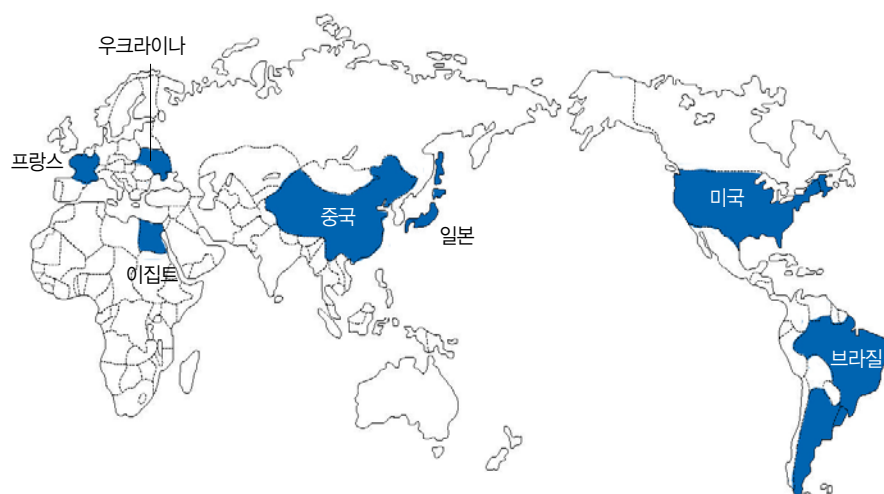
“우리가 몇 년 전 겪었던 상황과 매우 다르다,”라고 미주리 대학의 식량 농업 정책 연구원의 책임자 Patrick Westoff가 말했다. “우리는 지금 순 수익을 반으로 자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금융업계는 재배 기간 이후 농업 용자들을 검토하며 조심스럽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경작을 위해 농경지를 임대하는 농부들은 미국 농경지의 약 38%를 차지

하며, 이들은 토지를 소유하는 이들보다 지출이 더 높기 때문에 낮은 가격들로 인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일리노이주립 대학의 농업경제학자인 Gary Schnitkey가 말했다.

39세인 아이오아주 농부인 Doug Adams는 그와 그의 사업 파트너가 그들이 작년 경영에 추가시킨 약 400에이커의 대한 임대료를 재협상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곡물시장 뉴스



북아메리카	아시아
미국 미국산 대두·옥수수 작황, 1개월래 첫 하락 미국산 대두박 수출, USDA 사상최고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미국산 옥수수작황은 2% 포인트 하락, 밀과 대두는 일정	일본 일본, 올해 엘니뇨 발생가능성 하향전망 중국 중국, 2013/14년 대두수입 사상최고치 기록
남아메리카	
브라질 브라질 농가, 금월 옥수수가격 보조금 수령전망	
아프리카	
이집트 이집트, 러시아산 밀 175,000톤 구매	유럽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500,000~550,000톤의 곡물손실 우려 우크라이나 밀 품질, 강우로 인해 하락 우크라이나, 2014년 곡물수확량 63백만 톤 이상으로 최고치 기록전망 프랑스 프랑스산 밀, 알제리 수출에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1. 미 국

■ 미국산 대두 · 옥수수 작황, 1개월래 첫 하락

USDA에 따르면, 미국산 옥수수 및 대두작황은 최근 5주래 첫 하락했다고 한다. 7월27일 기준, 대두의 71%가 좋음/아주좋음 등급으로 전주대비 2%포인트 하락했으며 옥수수는 75%가 좋음/아주좋음 등급이라고 한다. 이러한 두 곡물의 작황수준 하락은 이상적 작황을 전망했던 전문가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다. 옥수수 및 대두 작황하락은 노스다코타, 네브래스카, 위스콘신, 인디애나 주 등에서 언급되었다. USDA 국립농산물통계원 인도지사에서는 “서늘하고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기후 때문에 많은 농가들은 호우를 기대했었다” 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작황부진에도 불구하고, 대두작황은 80%가 좋음/아주좋음 등급이었던 1994년 7월말 이후 최상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옥수수작황은 2010년 7월과 동일한 수준이며 최근 가장 이상적이었던 작황시기는 2004년 7월이라고 한다. 이러한 건조한 기후에 따른 아이오와 등 주요 대두 생산지역의 수확감소 우려는 28일 11월신곡 시카고선물가격에 하방압력을 가해 2.2% 하락마감했다. USDA 국립농산물통계원 미네소타지사는 “남부 미네소타 농가들은 곡물수분 재보충을 위해 비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고 전했다. 한편, USDA에 따르면 봄밀은 70%가 좋음/아주좋음 등급으로 전주와 동일하며 겨울밀수확은 83% 완료로 2009-13년 평균보다 3%포인트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2014.7.29.)

■ 미국산 대두박 수출, USDA 사상최고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USDA는 올해 미국산 대두박 수출이 10.7백만 톤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이미 예전에 전망했으나, 만약 국내사료업자들이 비싼 대두박에서 값싼 주정박(DDG)으로 원료사용을 전환하고 더 많은 대두박을 수출시장에 공급하게 된다면 대두박 수출추정치는 USDA 예상치도 뛰어넘을 것이다. 주정박 가격은 수출수요 부진 및 국내생산 가속화로 4년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대두박은 타이트한 국내공급으로 가격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몇몇 주요시장에서 대두박과 주정박 간 가격차는 커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가축사육 구매책임자들은 원료를 전환할 유인을 얻고 있으며 더 많은 대두박이 해외구매자들에게 선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산 대두박 수출업자들은 향후 남미수출업자들과 수출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나, 사상최대 수출수요로 2014/15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11백만 톤 수출이 가능할 것이다. (2014.7.30.)

■ 미국산 옥수수작황은 2% 포인트 하락, 밀과 대두는 일정

USDA에 따르면, 미국산 옥수수작황은 건조한 기후로 인한 스트레스로 최근 예상치보다 더 하락했으나 수확전망치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한다. 한편, 대두 및 보밀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8월초 대두작황은 1994년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8월3일 기준 옥수수의 73%가 좋음/아주좋음 등급으로 전주대비 2%포인트 하락했으며, 애널리스트들 예상평균치인 74%도 하회하는 수준이다. 작년의 경우는 64%가 같은 등급에 속했다. 한편, 대두는 71%가 좋음/아주좋음 등급으로 전주대비 변화 없으며 작년에는 64% 수준이었다. 또한, 애널리스트 전망치인 70%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보밀도 70%가 좋음/아주좋음 등급으로 변화 없으며 작년에는 68% 수준이었다고 한다. (2014.8.5.)

2. 브라질

■ 브라질 농가, 금월 옥수수가격 보조금 수령전망

브라질 농업부 장관에 따르면, 농가들은 최근 낮은 옥수수가격으로 인해 금월 말 정부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보조금 221백만 달러가 농업부 및 재무부 장관에 의해 승인이 되었으며, 8일이내에 기획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후, 실행되는 데는 10일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농업부 장관에 따르면, 옥수수 Pepro 경매는 8월에 열리며, Pepro는 정부가 농가나 협동조합에게 시장가와 정부가 설정한 최저가격 차를 지불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한다. 2013년에 농가들은 옥수수 8.86백만 톤에 대해 Pepro적용을 받았으며, 이번에 추가로 440백만 reais가 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4.8.2.)

3. 일 본

■ 일본, 올해 엘니뇨 발생가능성 하향전망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말 엘니뇨 발생가능성을 이전 전망치보다 더 낮게 예측했다. 월간 온라인게시판에서 일본 기상청은 엘니뇨 발생가능성을 50%로 예측했으며 폭우 및 가뭄을 동반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일본 기상청은 올 가을 엘니뇨 발생가능성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일본 뿐만 아니라 지난주 미국 기상청도 이상기후 발생가능성에 대해 하향전망했으며, 지난달 호주기상청도 만약 엘니뇨가 발생한다고 해도 강도가 세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엘니뇨는 태평양 해수면 온난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동남아시아 및 호주에는 가뭄을, 남미에는 홍수를 야기하여 주요식량인 쌀, 밀, 원당생산에 차질을 줄 우려가 크다.(2014.8.11.)

4. 중 국

■ 중국, 2013/14년 대두수입 사상최고치 기록

중국의 2013/14년 대두수입은 전년대비 17% 상승한 70백만 톤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대두수입 증가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의 팽창에 따른 결과인데, 중국국립곡물원유정보센터의 전망치는 USDA 전망치인 69백만 톤도 상회하는 수치라고 한다. 센터는 “대두수입의 대폭적인 증가는 지속적이고 강한 국내수요로부터 기인한다. 가공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다량의 값싼 대두수입분이 가공에 쓰이고 있다고 한다.(2014.8.13.)

5.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500,000-550,000톤의 곡물손실 우려

금요일, 우크라이나 농업부 장관에 따르면 동부지역 전쟁으로 60백만 톤 수확 전망 중 500,000-550,000톤의 곡물손실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생산자 및 교역자들은 수출곡물 공급경로 변경압박 하에 있다고 한다. 7월24일 기준, 곡물 총 20.5백만 톤을 수확했으며, 이 중 밀은 14.2백만 톤, 보리는 5.9백만 톤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수출의 경우 7월23일 기준(2014/15년 시즌 첫째달) 1.3백만 톤 가량의 곡물을 수출하였으며 이 중 보리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한편, 2013.14년 곡물 수출량은 32.3백만 톤으로 옥수수 20.3백만 톤, 밀 9.2백만 톤, 보리 2.4백만 톤이라고 한다. (2014.7.25.)

■ 우크라이나 밀 품질, 강우로 인해 하락

우크라이나는 올해 강우피해로 인해 동물사료용 밀을 더 많이 생산하고 높은 품질의 제빵용 밀은 더 적게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품질균형 변화로 국제곡물가격은 하방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사료용 밀을 많이 생산하는 유럽국가와의 강한 경쟁도 예상된다. 지난 주 파리의 밀 싹곡 선물가격은 올 여름 반복되는 강우로 인한 풍부한 동물사료로 인해 4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4.8.6.)

■ 우크라이나, 2014년 곡물수확량 63백만 톤 이상으로 최고치 기록전망

우크라이나 농업부 장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2014년 곡물수확량은 작년 최고치인 63백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널리스트들은 우크라이나가 최대 곡물 생산국 및 수출국으로서 올해 59-61백만 톤의 곡물을 수확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금주 UkrAgroConsult사도 밀과 보리의 높은 생산량으로 인해 올해 곡물 수확량전망을 58.5백만 톤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러한 높은 곡물수확량 전망은 러시아와의 긴장관계에도 불구하고 지속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은 흑해를 통해 수출하는 주요 밀 수출국으로서 2년연속 높은 수확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8.13.)

6. 프랑스

■ 프랑스산 밀, 알제리 수출에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독일 ADM은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프랑스산 밀 신곡은 주요 밀 수입국인 알제리에게 적절한 품질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수확기간동안 강우로 밀 신곡의 품질하락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ADM은 “프랑스산 밀의 호화도(falling number)는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알제리로 수출계획되었던 상당부분 물량의 선적이 불가능 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호화도는 제분용 밀의 품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ADM은 “이는 단백질 11%함량인 독일과 폴란드산 밀 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다.” 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수출업자들은 수출물량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주 독일 및 폴란드산 밀을 구매했다고 한다. 올여름 흑해지역 및 북부유럽의 밀수확 물량은 매우 이상적이나 품질면에서 단백질 함량이 낮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ADM은 이에 대해 “이것이 최근 단백질 11%함량 독일 및 폴란드산 밀에 대한 수출수요상승 원인이다.” 라고 전했다. (2014.8.1.)

7. 이집트

■ 이집트, 러시아산 밀 175,000톤 구매

이집트 국영수입업체 GASC에 따르면, 이집트는 9월11-20일 선적분 러시아산 밀 175,000톤을 구매했다고 한다. GASC 부의장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구매내역을 제시하였다: 올람으로부터 60,000톤, 카길로부터 60,000톤, 글렌코어로부터 55,000톤. 한편, 평균 수입가격은 톤당 260.14달러로 구체적인 가격사항은 다음과 같다: 올람은 FOB기준 톤당 246.99달러에 톤당 화물비용은 11.88달러, 카길은 톤당 249달러에 화물비용은 11.70달러, 글렌코어는 톤당 249달러에 화물비용은 11.94달러. 7월1일 이후 현재까지 이집트의 총 밀 수입량은 890,000톤으로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산 밀이 대부분이다. 이달 초 밀 재고량은 6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집트 공급부장관에 따르면 이 재고량수준은 2014년 말까

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집트정부의 2013-14년 총 밀 구매량은 국내 산 밀 3.7백만 톤에 더해 해외수입량 5.46백만 톤이라고 한다. (2014.7.31.)



part

04

세계 농업기상 정보

2014 World Grain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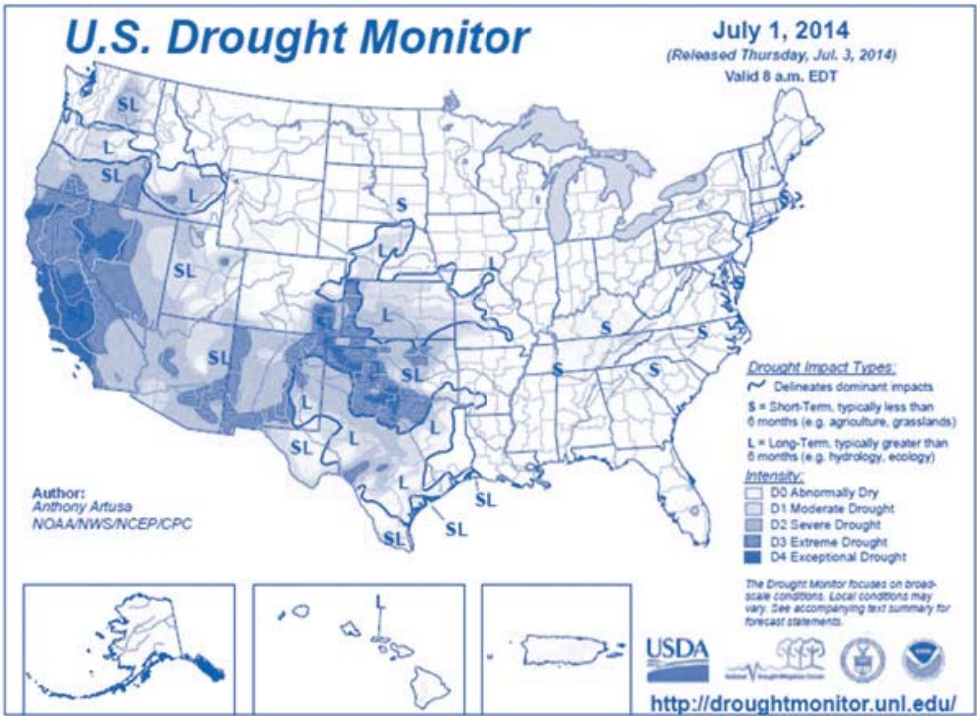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 161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1. 미국

그림 1.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1(No. 27), Jul 1, 2014.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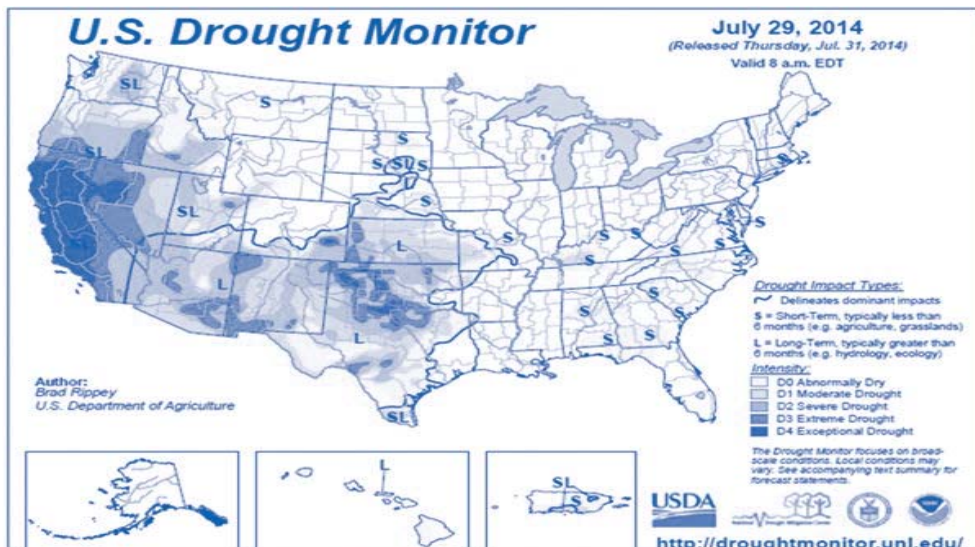
7월 초순, 2등급 허리케인인 아서가 캐롤라이나 북부 아우터뱅크스 지역을 강타하였으나, 농작물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대체로 연안지역에 한정되어 피해가 나타났다. 한랭전선의 허리케인은 대평원 지역, 중서부, 남부와 동부를 가로지르며 산발적인 비를 발생시킨다. 한랭전선과 열대전선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주 후반에는 북부 대서양 연안지역의 경우 폭우성 강우가 내렸으며, 총 강수량은 2~4인치를 기록하였다. 한랭전선은 남부 대평원 지역에 지속되었던 가뭄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하였고, 국지적으로 총 강수량은 2인치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주말에는 대체로 높은 기온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고원 평야 지역에 형성되었다. 한편, 계절상 발생하는 몬순 소나기는 남서부 지역에 형성되었던 국지적 가뭄 현상을 완화시켜 주었고, 캘리포니아와 북서부 지역의 대체로 고온 건조한 날씨는 관개 수요를 증대시켰으며, 비가 필요한 작물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 하지만 야외 농작업, 가을 밭의 성숙도와 여름 작물의 빠른 생육상황에는 도움을 주었다. 오레곤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주간 기온이 평년대비 평균 5°F 이상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아이오아와 인근 지역에서는 평년대비 적어도 5°F 낮은 기온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다수 중서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90°F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옥수수와 대두의 생육상황에는 효과적인 기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중순, 남부와 동부지역에서는 광역적으로 비와 폭풍이 발생하였으며, 흔하지 않게 서늘한 대기가 유입되었다. 최근 몇 주간 지속된 건조한 날씨로 인해 남동부 지역에 내린 비는 많은 이득을 주었다. 남부 고원평야의 경우, 비가 내려서 거의 4년전부터 시작된 가뭄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북부지역으로 갈수록, 서늘하고 건조한 대기가 북부 평야지대와 중서부 상단으로 확장되었다. 고온 부족과 충분한 토양수분을 갖춘 조건은 중동부 지역의 옥수수와 대두의 생육에 유리한 상황을 지속되게 하였지만, 평년보다 낮은 기온은 북부 콘벨트 지역에서 작물 성장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였다. 중부와 남부 대평원 지역 및 서부 콘벨트에서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대비 적어도 10°F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체로 건조하고, 번개가 발생한 북서부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인해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북부 Great Basin 및 북서부 내륙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적어도 10°F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서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가장 많은 강수량이 기록된 지역은 아리조나와 중부 및 남부 록

키산맥 지역이다.

7월 하순, 아리조나와 중부 및 남부 록키산맥 지역에서는 활발한 장맛비의 영향으로 인해 폭우가 내린 지역이 있었다. 비는 가뭄에 대한 걱정을 덜게 해주었고, 방목장과 목초지에는 효과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관개수요도 완화시켜주었다. 주 중반에서는 비가 남부 대평원 지역에 내렸으며, 오클라호마와 인근지역에 형성된 한랭전선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풍부한 강수량(2~6인치)을 제공하였다. 텍사스의 대부분 지역의 총 강수량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으나, 북부지역으로 갈수록 일부 지역에서만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도 적었기 때문에 건조한 날씨가 태평양 연안, 북부 대평원 및 서부 콘벨트 지역에 형성되었다. 7월의 가뭄현상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중서부 지역에서 자라는 작물들은 평년 기온과 심토의 적합한 수분 보유량으로 인해 성장속도가 유지될 수 있었다. 사실, 록키산맥 동쪽 지역에서는 대체로 주간 기온이 평년대비 5°F 정도 낮았다. 한편, 중서부 내륙지역의 경우 매우 더운 날씨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대비 10°F 정도 높은 곳도 존재해, 수분이 필요한 작물들의 경우 스트레스가 가중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더운 날씨는 북부 및 캘리포니아 지역에 확산되었으며, 동부지역에서는 강수량의 편차가 심하긴 했지만, 국지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도 하였다.

그림 2. 가뭄 모니터



자료: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1(No. 31), Jul 29, 2014

2. 유럽

■ 7월

7월 초순, 느리게 이동하는 폭풍 전선과 한랭전선이 동반되어 넓은 지역에 국지적으로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하였고, 야외 농작업은 지연되었지만 여름 작물의 수확전망을 밝게 하였다. 소량에서 적정한 양(10~25mm)의 비가 프랑스 북부 지역과 영국 및 동쪽으로는 폴란드와 발틱주에 내렸다. 이로 인해 가을 밀과 유지작물의 수확은 지연되었지만, 재생산 시기에 돌입한 여름 작물에는 적당한 토양 수분을 유지시켜 주었다. 좀 더 남쪽지역으로 갈수록 적당량 혹은 폭우가 내려 프랑스, 독일, 폴란드와 같은 남부 유럽지역과 마찬가지로 북동부 스페인 지역에서도 옥수수과 해바라기의 재생산에 대한 수확 전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 스페인에서 이탈리아, 발칸반도의 경우에는 좀 더 적은 양의 비(5~40mm)가 내려, 옥수수, 해바라기, 대두의 생육에 도움이 되었다. 북부와 중부 유럽의 경우 평년대비 평균 1~2°C 높은 기온이 형성되었으며, 남부 주요 여름 작물 생산지역에서는 구름과 비로 인해 기온이 평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낮게끔 유지되었다.

7월 중순, 느리게 이동하는 한랭전선이 넓고, 국지적으로 많은 양의 강수량을 발생시켰으며, 여름 작물의 수확전망에는 유리하였으나 야외 농작업은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프랑스 북부와 영국,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10~45mm가 기록되었으며, 가을밀과 유지작물의 수확에는 방해가 되었지만, 여름작물의 재생산에 필요한 충분한 토양 수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폴란드 지역에서는 적은 양의 비가 내려 소곡물류의 수확을 하는 등 농작업이 가능하였다. 적당하거나 많은 양의 비(10~65mm)가 내린 발칸반도 지역에서는 옥수수와 해바라기의 수확전망이 이미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확되지 않은 가을 밀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었다. 스페인 지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옥수수와 해바라기에 대한 관개 수요가 증가했다. 한편, 대부분 유럽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년대비 평균 2~4°C 높은 기온이 기록되었다.

7월 하순, 중부와 남부 유럽지역에서는 비가 계속해서 내렸기 때문에 야외 농작업이 지연되었으나, 북서부 작물 재배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 밀 수확속도가 증진되었다. 7월 내내 많은 비가 내린 이후, 환영 받을 만한 건조한 날씨는 영국과 프랑스 북부 지역에서 가을 밀 수확과 계절적인 농작업을 촉진시켰다. 그

러나, 주말에는 다시 비가 내렸고(10~30mm), 수확작업은 지연되었으며, 미처 수확되기 전인 소곡물류와 유채의 품질하락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었다. 한편, 서서히 이동하는 한랭전선을 따라 형성된 저기압의 영향을 받은 농작물 재배 지역(독일 북동부에서 발칸반도)의 경우 25~100mm의 강수량이 기록되었다. 비가 내린 탓에 풍부한 수분을 함유하였기 때문에, 옥수수 및 해바라기와 같은 작물들의 수확량 전망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소곡물류 수확과 겨울 유채의 파종작업은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폴란드와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 농작업 및 소곡물류 수확을 하기 좋은 건조한 날씨가 형성되었다. 한편, 스페인과 그리스와 같은 남부 작물 재배지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로 인해, 옥수수와 해바라기에 관개가 필요했다.

3. 구소련(서부)

■ 7월

7월 초순, 건조한 고온의 날씨가 여름 작물의 생육상황을 증진시켰으며, 야외 농작업이 다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주 흠뻑 내린 비로 인해, 맑은 날씨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남부와 서부 가을 밀 생산 지역에 형성되어 수확이 다시 시작되도록 하였다. 최근 내린 비로 인해 휴지기가 있었지만, 옥수수와 해바라기의 성장에는 효율적이었으며, 낮 최고 기온은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임계치 아래로 떨어지는 수준이었다. 이처럼, 서늘한 기온(평년대비 4°C 낮음)이 봄 밀 생산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불가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만연하였다.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와 러시아 남부의 중앙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소나기(2~20mm)가 내려, 여름 작물에 필요한 토양 수분이 공급되었다.

7월 중순, 대체로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러시아 지역 농작업을 촉진시켰으며, 비와 폭풍은 러시아 서부 지역의 여름 작물 생산전망을 증진시켰다. 카자흐스탄 서부지역에 형성된 고기압은 더운 날씨가 지속되게 하였으며, 서부 지역의 2/3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기류가 이동하였다.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 2~5°C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서는 맑은 날씨로 인해 고온 현상이 동반되었으며, 가

을 밀의 수확을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남부와 북부 코카서스 지역에서는 35°C를 초과한 기온으로 인해 옥수수과 해바라기의 생육상태에 스트레스를 주었다. 모르도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경우 비(10~75mm)가 내려, 여름 작물의 재생산에 필요한 토양 수분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다. 동부지역에서는 건조하고 서늘한 날씨(1~3°C)가 팽배하였으며, 봄 밀의 성숙에 도움이 되었다.

7월 하순, 대체로 건조하고 더운 날씨가 러시아 지역에 확산되어 농작업을 촉진시켰다. 서부 카자흐스탄 지역에는 고기압이 나타났고, 러시아 지역에서는 더운 날씨가 지속되었다. 맑은 날씨와 더불어 낮 최고 기온이 32~37°C에 달했지만, 5~7월에 지속된 비로 인해 충분한 토양 수분을 유지한 관계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모르도바 지역의 여름 작물의 수확전망은 밝았다. 한편, 단기간 지속된 건조하고 높은 기온(33~37°C)을 기록한 서부 및 남부 러시아 지역에서는 재생산 중인 옥수수와 해바라기와 같은 작물의 스트레스가 증가했다. 여름 작물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맑은 날씨와 평년대비 높은 기온은 가을 밀의 건조와 수확에 큰 도움이 되었다. 동부지역으로 갈수록, 서늘한 날씨(평년대비 1~3°C 낮음)가 남동부 볼가지역에 팽배하였으며, 주말에는 무척 더운 날씨(33~34°C)나 형성되어 봄밀의 성숙을 가속화하였다.

4. 호주

■ 7월

7월 초순, 서부지역에서는 간헐적인 소나기(5~25mm)와 맑은 날씨로 인해 가을 곡물과 유채의 생육에 필요한 이상적인 조건에 부합하였다. 호주 남부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산발적인 소나기(2~10mm, 국지적으로 더 많음)가 내려, 빅토리아와 뉴사우스웨일즈 남부지역에서는 밀, 보리, 카놀라의 이른 생육발달에 필요한 충분한 토양 수분을 유지시켜 주었다. 북부 지역으로 갈수록,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 지역에서는 증발률을 유지해야 하는 건조한 날씨가 도래하였지만, 토양 수분의 경우 밀과 다른 겨울 작물에 일반적으로 적합한 수준은 유지되었다. 이 지역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평년대비 1°C 낮음)이었지만, 남부와 서부 호주의 기온은 평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거

의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평년대비 1°C 높음)이었다.

7월 중순, 겨울 작물 생산지역에서는 넓은 지역에서 비가 내렸으며, 이로 인해 겨울곡물과 유채에는 이로운 상황이 되었다. 뉴사우스웨일즈와 인접지역인 퀸즈랜드의 경우 이전에는 건조한 날씨였으나, 한 주간 5~15mm 정도의 강수량이 집계되었다. 비가 내려 단기간 건조함을 완화시켜주었으며, 가을 밀과 기타 겨울 작물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즈 남부 지역과 빅토리아에서는 10~25mm의 비가 내렸으며, 겨울 작물을 위한 토양 수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호주 서부지역에서도 비슷한 강수량을 기록하여 겨울 곡물과 유채 성장에 이로운 조건이 되었다.

7월 하순, 서부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와 충분한 수분 공급이 이루어지는 날씨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겨울 곡물과 유채의 생육전망 상태가 좋음/매우 좋음 상태로 유지되었다. 호주 남부 지역인, 빅토리아와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에 비(5~25mm)가 내렸으며, 밀·보리·카놀라의 생육상황에 도움을 주었다. 한편, 북부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에서는 따뜻하고 환영 받지 못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밀과 다른 겨울 작물들의 수분 공급을 감소시켰다. 이 지역에서는 재생식단계에 진입한 작물의 수확량 전망을 감소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호주 남동부 지역에서는 평년대비 기온이 1~3°C 높았고, 밀 벨트지역에서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기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는 최저기온이 영하를 기록하기도 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겨울 작물들의 성장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5. 아르헨티나

■ 7월

7월 초순, 북동부 지역에서는 비가 머물렀으며, 면화와 옥수수 수확과 같은 야외 농작업 활동이 지연되었다. 동부 Chaco와 Entre Rios 및 우루과이 동부, 브라질 남부 지역의 총 강수량은 25mm 수준이었다. 서부 Cordoba와 기타 서부 생산 지역(La Pampa와 남서부 Buenos Aires, 북부 Salta)에서는 총 강수량이 10mm 정도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주말 La Pampa와 Buenos Ai

res 지역에서는 야외 농작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될 만큼의 비가 내렸다. 주간 총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며, 일부 습윤한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2°C 정도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다. 비록 대다수 지역에서는 상당히 서늘한 날씨(남부 지역의 경우 최고 기온이 10°C, 북부 지역의 경우 20°C 수준)가 기록되었지만, 남부 주요 생산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10°C 중·후반으로 나타났으며, 북부 지역에서는 20°C 후반을 기록한 곳도 있었다. Santiago del Estero 지역의 경우에는 영하의 날씨가 확산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7월 3일 기준, 아르헨티나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 옥수수 수확률은 59%로, 전년의 91%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예견된 바와 같이, 많은 양의 비로 인해 면화의 수확은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가을 밀 파종률은 금년 62%로 전년동기 대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중순, 중부 아르헨티나에서는 습한 날씨가 확산되었으며, 가을철 농작업의 조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동부 La Pampa에서 남부 Corrientes 지역의 총 강수량은 25~50mm(국지적으로는 더 많음)로, 가을 밀과 보리의 수확과 파종을 방해하였다. 특히, Buenos Aires의 경우에는 지난주 강수량이 평년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와 서부 지역에서는 소량의 비가 내렸지만, Cordoba에서부터 북부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지배적이었고, 주요 면화 생산지역인 Chaco에서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다. 국가 전체 주요 농업생산 지역의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 4~5°C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비가 내린 남동부 지역의 경우 낮 최고기온은 10°C 후반이었으며, 북부 지역에서는 30°C 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17일 기준, 아르헨티나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 대두의 수확은 실질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옥수수 수확률은 66%로, 전년의 94%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가을 밀의 파종률은 78%로 전년대비 다소 뒤쳐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7월 하순, 대다수 농업 지역에서는 대체로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남동부 Buenos Aires와 북동부 지역을 제외(특히, 동부 Chaco와 Formosa 지역) 하고서는 주 후반 동안 추가적인 강수량(10mm 이상)이 기록되었다.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 2~5°C 정도 높았고, 이로 인해 발아단계에 진입한 겨울 곡물들의 성장을 촉진하였다. 따뜻한 날씨는 역시 건조 과정에 도움을 주었고 야외 농작업 조건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지난 주말 서늘한 날씨가 며칠 동안 발생하였는데, Salta 북부지역에서는 밤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였고, 남동부 Buenos Aires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10°C에 달하였다. 주말에는 낮 최고기온이 최고치에

달하였는데, Buenos Aires에서는 20°C 초반, 북부 지역(Santiago del Estero에서 서부 Formosa)에서는 30°C 중반의 기온을 기록하였다. 7월 31일 기준, 아르헨티나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금년 옥수수 수확율은 78%로, 전년의 97%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가을 밀의 파종률은 84%로 전년대비 다소 뒤쳐진(92%p)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6. 브라질

■ 7월

7월 초순, 남부 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비가 지속적으로 내렸지만, 주요 농업생산지역의 경우 건조한 날씨가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가을 밀의 생육과 여름 작물의 수확이 확대되었다. Rio Grande do Sul 지역의 총 강수량은 100mm 이상으로 가을 밀의 출수에는 적절하지 못한 습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지난 주 남부 Parana와 Santa Catarina 지역에서 충분히 내린 비(5~25mm)는 서서히 약화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도하게 습하거나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였다. 한편, 건조한 날씨는 남부 생산지역(Mato Grosso do Sul에서 Minas Gerais 지역)에 지배적으로 나타났으며, 옥수수의 성장과 사탕수수, 커피, 시트러스의 수확에도 도움이 되었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기온(낮 최고기온이 20°C 후반에서 30°C 초반)은 작물의 건조에 도움이 되었으며, 사프리카 옥수수의 수확과 빠른 성숙을 촉진하였다. 계절적으로 건조하고 온난한 날씨는 브라질 중부와 남동부 내륙 지역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났으며, 면화와 옥수수의 성숙에 필요한 효과적인 30°C 중반의 기온을 유지하였다. 동부 해안지역에서는 비의 양이 감소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만 10mm 미만의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되었다.

7월 중순, 오래 지속된 소나기는 남부 대부분 지역 가을 밀 생육에 맞지 않는 습한 조건이 유지되게 하였다. 서부 Parana와 인접지역인 남부 Mato Grosso do Sul의 총 강수량은 25mm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Rio Grande do Sul에서는 건조한 날씨(25mm 미만)가 팽배하였지만, 남부 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비(25~100mm)가 내렸다. 한편, 계절적으로 더 건조한 조건은 Sao Paulo 와 Minas Gerais 지역의 사탕수수와 옥수수 수확을 위해서는 선호되었으며, 중서부와 남동부 내륙지

역(Mato Grosso to Piaui)에서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한편, 이 지역의 경우 면화와 옥수수 수확은 계속되었다. 북동부 연안 지역에서는 계절성 강우가 증가하였으며, 일부 사탕수수 재배지역(특히, Pernambuco와 Alagoas)에서는 50mm가 넘는 강수량이 기록되었다. Mato Grosso와 Tocantins 지역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었으며, 낮 최고 기온은 30°C 중반에 달하였다.

7월 하순, 건조한 날씨가 남부 및 중부 브라질 지역(Mato Grosso와 Goias 및 Parana)에 지배적이었다. 건조한 날씨는 사탕수수와 커피의 수확 및 남부 농업생산 지역의 밀 생육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Rio Grande do Sul 지역에서는 소나기(10~50mm)가 내렸는데, 이로 인해 가을 밭에 계절에 적합하지 않은 수분이 계속 유지되었다. 지난주와 유사하게, 비는 파라과이 서부지역으로 확장되었다. 주 초반에 서늘하게 시작된 날씨(밤 최저기온 5°C로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 2°C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년대비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 3°C까지 높고, 낮 최고기온은 35°C에 육박)가 중부 내륙지역(Mato Grosso에서 서부 Bahia)에 팽배하였으며, 면화와 옥수수의 건조와 수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편, 계절성 강우(25mm 이상)는 사탕수수, 코코아, 동부 연안에서 재배중인 기타 작물들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켰다.

7. 동아시아

■ 7월

7월 초순,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나타났지만, 중국 전역에서 넓은 지역에 몬순 소나기가 내렸다.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산발적으로 나타났으며, 작물 재배 지역에서는 10mm 미만의 비가 내렸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강수량은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 몽골 지역에서는 지난 몇 주간 비 소식은 거의 없었으며, 관개 수요가 충족시켜줘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 주 총 강수량은 중국 북부 평야지역에서는 평균 30mm 정도를 기록하였으며, 산동성 지역은 50mm 이상을 기록한 곳도 있었다. 양쯔 계곡 유역에서는 수분 보유 조건이 향상되었으며, 주간 총 강수량은 평균적으로 거의 175mm를 기록하였으며, 동부 지역의 경우 수분 공급량을 증대시켜 주었다. 중부와 서부 지역

에서도 지속적인 강수량(평균 30mm 정도)이 발생하였다. 남부 지역에서는 폭우가 내려(50~100mm, 국지적으로 300mm 이상) 후반 쌀의 생육 발달에는 도움이 되었다. 한국 동부 지역의 경우, 비가 내려(25~0mm) 이 지역의 쌀 생산에 필요한 수분 보유 상태를 향상시켜 주었지만, 서부 지역의 경우에는 반갑지 않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다. 일본 북부와 중부 지역의 경우 비(50~100mm)가 내려 쌀의 수분 공급량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남부 생산지역에서는 더 많은 비가 내려야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7월 중순, 슈퍼급 태풍인 라마순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 남부에서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강풍으로 인해 쌀과 사탕수수 일부 재배지역에서는 홍수가 발생하였다. 내륙지역에서는 400mm가 넘는 폭우가 기록되었으며, 남서부 지역의 고원지대에서는 폭풍이 형성되었다. 라마순의 이동경로였던 남부지역은 계절적 강수량(50~200mm) 수준의 비가 내렸고, 양쯔강 유역에서는 쌀에 필요한 충분한 수분공급이 이루어졌다. 중국 북동부지역에서는 적당히 내린 비(25~75mm)가 내렸는데, 국지적으로 옥수수와 대두의 재생산에 요구되는 토양 수분을 초과할 만큼의 충분한 양이었다. 옥수수의 생장에 이상적인 기온에 근접하였으며, 대체로 20~25°C(평년대비 1°C 낮음)를 기록하였다. 중국 북부 평야지역과 남부 지방의 경우에는 여름 작물의 성장에 적합하지 않은 기온 수준인 평균 30°C를 나타냈다. 한국에서는 계절성 호우가 내렸고, 일본에서도 역시 쌀의 생육에 적합한 수분이 유지되었다.

7월 하순, 중국 북동부 옥수수와 대두 재배지역에서는 주간 총 강수량이 25mm 미만(일부 지역에서는 50mm를 초과)이 기록되었으며, 내몽골 인접지역의 경우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최근 건조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강수량은 평년대비 높고, 전년동기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남부지역으로 갈수록, 대체로 적은 양의 비(1~10mm)가 내렸다. 양쯔 계곡에서는 주간 총 강수량이 서부 재배지역인 경우에는 5mm 미만이 기록되었고, 5월 이래, 강수량의 상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년대비 기온은 2~4°C 높았으며, 주간 평균 기온은 30°C를 초과하는 곳도 있어, 작물에 스트레스가 증가되었다. 중국 남부 지역 총 강수량은 1~25mm 수준으로 쌀의 생육상황에 요구되는 계절적 강수량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태풍 나크리가 한국에 상륙하여 국지적으로 폭우(50~225mm)를 발생시켰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충분한 수분 공급으로 인해 쌀의 성장에는 좋은 도움을 주었다.



part 05 [부록] 통계

2014 World Grain Market



세계 곡물 통계 / 175

국가별 귀리 통계 / 179



세계 곡물 통계

□ 쌀(정곡)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144,412	269,908	11,258	12,413	270,066	52,606	2.75
1981/1982	144,375	277,902	10,232	11,726	278,456	50,503	2.83
1982/1983	140,526	284,974	9,884	10,731	277,833	56,781	2.98
1983/1984	144,613	306,942	10,708	12,515	292,600	69,316	3.12
1984/1985	144,067	316,758	10,615	10,740	298,287	87,662	3.23
1985/1986	144,728	317,986	10,311	11,485	306,784	97,690	3.23
1986/1987	144,809	316,051	10,686	13,063	308,060	103,304	3.21
1987/1988	141,432	315,092	10,452	11,572	312,026	105,250	3.29
1988/1989	146,582	332,117	11,701	14,015	323,373	111,680	3.35
1989/1990	147,811	345,247	10,589	11,484	335,392	120,640	3.45
1990/1991	146,966	351,371	10,593	12,115	343,821	126,668	3.53
1991/1992	147,486	353,235	12,028	14,453	350,794	126,684	3.55
1992/1993	146,480	354,003	12,954	14,876	355,574	123,191	3.58
1993/1994	145,332	354,700	16,138	15,837	359,239	118,953	3.62
1994/1995	147,342	364,148	19,380	21,058	363,850	117,573	3.66
1995/1996	148,352	368,791	18,127	19,820	366,581	118,090	3.69
1996/1997	150,083	381,382	16,666	19,110	376,768	120,260	3.77
1997/1998	151,708	387,433	24,232	26,646	377,539	127,740	3.79
1998/1999	153,114	394,915	25,219	25,633	388,228	134,013	3.83
1999/2000	155,860	409,176	20,263	22,831	397,551	143,070	3.91
2000/2001	152,443	399,260	22,073	23,988	393,678	146,737	3.9
2001/2002	151,349	399,472	25,969	26,782	412,503	132,893	3.93
2002/2003	146,894	378,199	26,297	28,659	405,765	102,965	3.83
2003/2004	149,316	392,312	25,012	27,406	411,293	81,590	3.92
2004/2005	151,839	400,920	25,980	28,275	406,342	73,873	3.93
2005/2006	154,006	417,898	26,535	29,728	412,260	76,318	4.04
2006/2007	154,597	420,454	28,583	31,437	418,749	75,169	4.05
2007/2008	154,696	432,946	30,027	31,472	425,825	80,845	4.15
2008/2009	158,096	449,129	27,395	28,955	436,014	92,400	4.23
2009/2010	155,755	440,947	28,180	31,359	435,550	94,618	4.22
2010/2011	158,184	449,946	33,003	35,183	442,773	99,611	4.24
2011/2012	160,224	466,920	35,755	39,906	455,616	106,764	4.34
2012/2013	158,011	471,704	36,375	39,277	465,638	109,928	4.45
2013/2014 (추정)	160,964	475,801	38,823	40,547	473,875	110,130	4.41

□ 밀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236,901	435,867	89,496	90,126	443,433	112,657	1.84
1981/1982	238,911	444,995	97,042	100,376	441,758	112,545	1.86
1982/1983	238,353	472,739	93,230	100,949	447,850	129,929	1.98
1983/1984	229,923	484,307	97,994	101,794	465,073	145,359	2.11
1984/1985	231,669	508,913	101,573	103,646	484,075	168,124	2.2
1985/1986	229,826	494,811	80,505	82,452	482,527	178,470	2.15
1986/1987	227,895	524,082	86,488	89,274	508,470	191,296	2.3
1987/1988	220,087	498,710	112,247	111,565	531,254	159,434	2.27
1988/1989	217,878	495,276	102,384	105,151	516,684	135,259	2.27
1989/1990	226,333	533,132	98,797	103,419	526,684	137,085	2.36
1990/1991	231,015	588,801	99,003	103,843	549,477	171,569	2.55
1991/1992	222,770	543,510	108,361	109,948	550,254	163,238	2.44
1992/1993	222,061	562,634	108,810	110,039	546,474	177,869	2.53
1993/1994	221,044	558,470	98,561	103,717	547,828	183,355	2.53
1994/1995	213,326	523,031	99,877	98,215	543,801	164,247	2.45
1995/1996	216,715	537,516	97,293	99,195	544,183	155,678	2.48
1996/1997	227,103	581,345	98,470	106,924	564,908	163,661	2.56
1997/1998	226,424	610,232	103,698	104,370	575,938	197,283	2.7
1998/1999	219,179	590,436	100,068	101,298	576,979	209,510	2.69
1999/2000	212,528	586,828	109,171	113,402	581,215	210,892	2.76
2000/2001	215,582	583,312	99,955	101,334	585,548	207,277	2.71
2001/2002	214,460	583,791	106,235	105,870	586,994	204,439	2.72
2002/2003	213,431	569,607	103,750	105,551	602,336	169,909	2.67
2003/2004	207,629	555,286	100,966	108,645	581,824	135,692	2.67
2004/2005	215,813	626,705	110,421	111,310	605,028	156,480	2.9
2005/2006	217,645	618,873	111,645	117,272	615,343	154,383	2.84
2006/2007	211,568	596,527	114,033	111,702	618,781	134,460	2.82
2007/2008	217,099	612,651	113,509	116,719	614,543	129,358	2.82
2008/2009	224,079	683,530	137,697	144,185	637,122	169,278	3.05
2009/2010	225,384	687,088	133,564	137,088	650,909	201,933	3.05
2010/2011	216,991	650,794	131,680	132,803	653,403	198,201	3
2011/2012	220,745	695,945	149,287	158,214	688,079	197,140	3.15
2012/2013	216,347	658,158	144,215	137,305	686,568	175,640	3.04
2013/2014 (추정)	220,528	714,072	156,484	165,269	697,264	183,663	3.24

□ 옥수수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131,189	408,734	74,263	80,308	411,826	102,541	3.12
1981/1982	133,040	441,753	72,177	68,083	421,225	127,163	3.32
1982/1983	125,245	439,869	66,623	59,535	424,356	149,764	3.51
1983/1984	119,699	348,272	58,542	60,955	406,641	88,982	2.91
1984/1985	128,969	458,366	66,256	67,008	428,446	118,150	3.55
1985/1986	130,999	479,020	53,470	55,302	417,666	177,672	3.66
1986/1987	131,859	475,444	52,484	55,077	445,661	204,862	3.61
1987/1988	126,860	450,997	57,323	59,128	456,354	197,675	3.56
1988/1989	126,108	400,413	66,465	68,461	450,832	145,260	3.18
1989/1990	127,310	461,690	73,603	72,176	475,526	132,851	3.63
1990/1991	129,102	481,963	58,547	58,389	473,577	141,395	3.73
1991/1992	132,498	492,950	63,107	62,053	494,366	141,033	3.72
1992/1993	133,080	535,605	60,289	63,263	509,088	162,714	4.02
1993/1994	130,703	475,773	56,973	58,861	507,161	129,438	3.64
1994/1995	135,169	559,332	68,911	66,126	538,207	153,348	4.14
1995/1996	134,966	516,371	65,702	70,422	531,717	133,282	3.83
1996/1997	141,477	592,817	64,846	65,572	559,029	166,344	4.19
1997/1998	136,250	574,378	63,206	63,347	573,373	167,208	4.22
1998/1999	138,919	605,803	66,506	66,938	581,213	191,366	4.36
1999/2000	138,979	608,409	70,930	75,541	600,783	194,381	4.38
2000/2001	137,075	591,760	74,896	76,722	609,041	175,274	4.32
2001/2002	137,341	601,817	71,482	74,579	622,500	151,494	4.38
2002/2003	137,440	603,872	75,699	76,746	627,453	126,866	4.39
2003/2004	141,694	627,447	76,829	77,135	649,316	104,691	4.43
2004/2005	145,401	716,804	75,948	77,659	688,508	131,276	4.93
2005/2006	145,388	700,696	80,130	80,904	706,700	124,498	4.82
2006/2007	150,349	716,621	90,159	93,905	726,650	110,723	4.77
2007/2008	160,391	795,539	98,203	98,554	774,195	131,716	4.96
2008/2009	158,696	800,943	82,255	84,169	783,290	147,455	5.05
2009/2010	158,684	825,566	89,622	96,644	819,373	146,626	5.2
2010/2011	164,638	835,919	92,311	91,286	853,473	130,097	5.08
2011/2012	172,160	889,327	99,900	116,941	867,775	134,608	5.17
2012/2013	177,225	868,761	99,417	95,156	869,483	138,147	4.9
2013/2014 (추정)	178,026	984,370	119,644	125,474	945,597	171,090	5.53

□ 대두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49,761	80,926	26,217	25,342	83,920	16,545	1.63
1981/1982	49,971	86,083	29,107	29,316	87,316	15,103	1.72
1982/1983	52,060	93,455	28,366	28,617	90,959	17,348	1.80
1983/1984	50,748	83,104	25,485	26,221	86,021	13,695	1.64
1984/1985	53,713	93,063	25,419	25,249	88,988	17,940	1.73
1985/1986	51,991	97,006	27,325	26,061	92,635	23,575	1.87
1986/1987	51,577	98,049	29,071	28,552	102,119	20,024	1.90
1987/1988	54,062	103,654	28,143	30,114	101,095	20,612	1.92
1988/1989	55,659	95,857	23,901	23,558	97,620	19,192	1.72
1989/1990	58,355	107,192	26,562	27,275	104,154	21,517	1.84
1990/1991	54,419	104,290	25,546	25,392	104,625	21,347	1.92
1991/1992	54,944	107,297	28,220	28,098	109,293	19,391	1.95
1992/1993	56,595	117,206	30,047	29,296	115,900	21,448	2.07
1993/1994	60,258	117,582	28,178	27,729	120,823	18,656	1.95
1994/1995	62,150	137,646	32,762	31,982	132,407	24,675	2.21
1995/1996	61,063	124,700	32,462	31,643	131,700	18,494	2.04
1996/1997	62,431	131,942	35,631	36,764	134,012	15,291	2.11
1997/1998	68,528	157,950	38,164	39,314	145,100	26,991	2.30
1998/1999	71,299	159,826	38,550	37,928	158,701	28,738	2.24
1999/2000	71,876	160,307	45,522	45,634	159,309	29,624	2.23
2000/2001	75,592	175,849	53,089	53,817	171,611	33,134	2.33
2001/2002	79,605	184,917	54,356	53,012	184,306	35,089	2.32
2002/2003	81,617	196,942	62,884	61,321	191,084	42,510	2.41
2003/2004	88,583	186,776	54,037	56,046	188,911	38,366	2.11
2004/2005	93,350	215,896	63,561	64,754	204,333	48,736	2.31
2005/2006	93,115	220,870	64,099	63,852	215,983	53,870	2.37
2006/2007	94,569	236,309	68,906	71,137	224,976	62,972	2.50
2007/2008	90,853	219,017	78,373	78,321	229,556	52,485	2.41
2008/2009	96,533	211,884	77,426	77,212	221,464	43,119	2.19
2009/2010	102,432	260,503	86,817	91,440	238,052	60,947	2.54
2010/2011	103,060	263,888	88,760	91,702	251,589	70,304	2.56
2011/2012	103,141	239,525	93,456	92,157	257,584	53,544	2.32
2012/2013	109,435	267,859	95,843	100,534	259,887	56,825	2.45
2013/2014 (추정)	112,849	283,946	108,851	112,735	269,800	67,087	2.52



국가별 귀리 통계

□ 미국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3,503	6,659	20	128	7,414	2,568	1.9
1981/1982	3,807	7,396	26	39	7,746	2,205	1.94
1982/1983	4,151	8,602	61	11	7,666	3,191	2.07
1983/1984	3,667	6,916	516	14	7,983	2,626	1.89
1984/1985	3,303	6,875	580	7	7,463	2,611	2.08
1985/1986	3,297	7,526	470	18	7,922	2,667	2.28
1986/1987	2,768	5,588	558	13	6,873	1,927	2.02
1987/1988	2,787	5,424	788	7	6,506	1,626	1.95
1988/1989	2,238	3,155	1,084	8	4,430	1,427	1.41
1989/1990	2,785	5,423	1,144	12	5,704	2,278	1.95
1990/1991	2,407	5,191	1,093	9	6,068	2,485	2.16
1991/1992	1,949	3,539	1,289	28	5,431	1,854	1.82
1992/1993	1,819	4,271	948	87	5,343	1,643	2.35
1993/1994	1,539	3,001	1,841	44	4,909	1,532	1.95
1994/1995	1,622	3,322	1,606	14	4,986	1,460	2.05
1995/1996	1,195	2,338	1,388	30	4,194	962	1.96
1996/1997	1,074	2,224	1,681	37	3,862	968	2.07
1997/1998	1,138	2,428	1,696	31	3,987	1,074	2.13
1998/1999	1,114	2,406	1,856	25	4,130	1,181	2.16
1999/2000	989	2,114	1,699	26	3,864	1,104	2.14
2000/2001	941	2,165	1,827	25	4,015	1,056	2.3
2001/2002	773	1,707	1,654	41	3,459	917	2.21
2002/2003	833	1,684	1,640	38	3,480	723	2.02
2003/2004	898	2,096	1,547	36	3,389	941	2.33
2004/2005	723	1,679	1,557	39	3,297	841	2.32
2005/2006	738	1,667	1,572	30	3,287	763	2.26
2006/2007	633	1,357	1,831	38	3,179	734	2.14
2007/2008	609	1,313	2,125	42	3,161	969	2.16
2008/2009	567	1,294	1,975	49	2,968	1,221	2.28
2009/2010	558	1,351	1,636	31	3,011	1,166	2.42
2010/2011	511	1,178	1,468	41	2,789	982	2.31
2011/2012	380	779	1,621	35	2,549	798	2.05
2012/2013	423	929	1,601	20	2,781	527	2.2
2013/2014 (추정)	417	956	1,676	23	2,777	359	2.29

□ 캐나다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1,515	3,028	33	46	3,147	759	2
1981/1982	1,561	3,188	12	50	3,054	855	2.04
1982/1983	1,612	3,637	0	105	3,212	1,175	2.26
1983/1984	1,400	2,773	0	121	3,132	695	1.98
1984/1985	1,406	2,576	0	18	2,634	619	1.83
1985/1986	1,263	2,736	0	44	2,535	776	2.17
1986/1987	1,273	3,218	0	251	2,729	1,014	2.53
1987/1988	1,248	2,957	0	294	2,780	897	2.37
1988/1989	1,353	2,942	0	700	2,455	684	2.17
1989/1990	1,582	3,265	0	728	2,285	936	2.06
1990/1991	1,154	2,692	0	385	2,298	945	2.33
1991/1992	842	1,794	2	375	1,821	545	2.13
1992/1993	1,242	2,829	2	776	1,911	689	2.28
1993/1994	1,344	3,557	1	1,148	2,191	908	2.65
1994/1995	1,492	3,641	1	1,250	2,561	739	2.44
1995/1996	1,211	2,873	6	1,138	2,069	411	2.37
1996/1997	1,684	4,361	3	1,613	2,353	809	2.59
1997/1998	1,499	3,485	2	1,209	2,241	846	2.32
1998/1999	1,592	3,958	2	1,240	2,478	1,088	2.49
1999/2000	1,398	3,641	4	1,348	2,263	1,122	2.6
2000/2001	1,305	3,403	8	1,508	2,171	854	2.61
2001/2002	1,238	2,691	53	1,106	2,129	363	2.17
2002/2003	1,379	2,911	48	928	1,870	524	2.11
2003/2004	1,415	3,377	16	1,256	1,873	788	2.39
2004/2005	1,234	3,467	16	1,319	1,978	974	2.81
2005/2006	1,271	3,283	17	1,437	1,965	872	2.58
2006/2007	1,537	3,852	17	1,904	2,281	556	2.51
2007/2008	1,783	4,618	17	2,384	1,857	950	2.59
2008/2009	1,448	4,273	16	1,946	1,766	1,527	2.95
2009/2010	982	2,912	16	1,526	1,767	1,162	2.97
2010/2011	892	2,451	24	1,374	1,530	733	2.75
2011/2012	1,084	3,158	13	1,738	1,356	810	2.91
2012/2013	985	2,812	9	1,607	1,518	506	2.85
2013/2014 (추정)	1,110	3,890	25	1,600	1,750	1,071	3.5

□ 호주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1,093	1,128	0	179	1,190	278	1.03
1981/1982	1,388	1,617	0	140	1,456	299	1.17
1982/1983	1,212	848	0	75	1,052	20	0.7
1983/1984	1,772	2,296	0	376	1,451	489	1.3
1984/1985	1,041	1,367	0	349	1,439	68	1.31
1985/1986	1,068	1,330	0	154	1,209	35	1.25
1986/1987	1,140	1,584	0	216	1,238	165	1.39
1987/1988	1,316	1,738	0	252	1,331	320	1.32
1988/1989	1,332	1,867	0	190	1,687	310	1.4
1989/1990	1,089	1,670	0	267	1,413	300	1.53
1990/1991	1,044	1,554	0	159	1,445	250	1.49
1991/1992	1,160	1,722	0	175	1,547	250	1.48
1992/1993	1,167	1,966	0	207	1,772	237	1.68
1993/1994	996	1,651	0	198	1,430	260	1.66
1994/1995	897	924	0	68	946	170	1.03
1995/1996	1,136	1,875	0	255	1,598	192	1.65
1996/1997	1,052	1,653	3	150	1,506	192	1.57
1997/1998	937	1,634	2	136	1,481	211	1.74
1998/1999	909	1,798	3	248	1,548	216	1.98
1999/2000	584	1,118	0	135	982	217	1.91
2000/2001	650	1,050	0	86	965	216	1.62
2001/2002	784	1,434	0	190	1,310	150	1.83
2002/2003	911	957	0	120	800	187	1.05
2003/2004	1,089	2,018	0	210	1,800	195	1.85
2004/2005	894	1,283	1	137	1,175	167	1.44
2005/2006	931	1,690	1	191	1,480	187	1.82
2006/2007	1,003	748	6	34	710	197	0.75
2007/2008	1,238	1,502	0	181	1,335	183	1.21
2008/2009	870	1,160	0	161	1,035	147	1.33
2009/2010	850	1,162	0	208	975	126	1.37
2010/2011	826	1,128	0	208	900	146	1.37
2011/2012	731	1,262	0	174	1,100	134	1.73
2012/2013	729	1,121	0	270	925	60	1.54
2013/2014 (추정)	744	1,326	0	200	1,025	161	1.78

□ 우크라이나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7/1988	653	1,658	0	0	1,658	0	2.54
1988/1989	595	1,236	0	0	1,236	0	2.08
1989/1990	549	1,387	100	0	1,447	40	2.53
1990/1991	492	1,303	0	0	1,303	40	2.65
1991/1992	497	945	0	0	972	13	1.9
1992/1993	495	1,246	0	0	1,200	59	2.52
1993/1994	510	1,479	0	0	1,224	314	2.9
1994/1995	603	1,385	0	15	1,322	362	2.3
1995/1996	560	1,116	0	25	1,176	277	1.99
1996/1997	482	730	0	0	850	157	1.51
1997/1998	553	1,062	0	0	1,062	157	1.92
1998/1999	549	778	0	0	890	45	1.42
1999/2000	530	760	0	26	720	59	1.43
2000/2001	481	881	0	34	840	66	1.83
2001/2002	559	1,116	0	47	1,050	85	2
2002/2003	500	943	0	6	950	72	1.89
2003/2004	544	941	2	9	925	81	1.73
2004/2005	510	1,007	0	17	1,000	71	1.97
2005/2006	450	791	0	0	800	62	1.76
2006/2007	442	690	5	0	675	82	1.56
2007/2008	356	544	4	24	550	56	1.53
2008/2009	445	944	0	6	925	69	2.12
2009/2010	416	731	0	16	725	59	1.76
2010/2011	311	458	2	4	475	40	1.47
2011/2012	280	506	7	1	500	52	1.81
2012/2013	301	630	0	1	600	81	2.09
2013/2014 (추정)	241	467	0	5	475	68	1.94

□ 칠레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0/1981	92	173	0	0	150	55	1.88
1981/1982	80	131	0	1	174	11	1.64
1982/1983	85	146	0	0	145	12	1.72
1983/1984	96	163	0	1	160	14	1.7
1984/1985	85	170	0	3	165	16	2
1985/1986	64	124	0	18	115	7	1.94
1986/1987	55	127	0	5	115	14	2.31
1987/1988	61	157	0	9	150	12	2.57
1988/1989	69	167	0	10	155	14	2.42
1989/1990	78	205	0	3	204	12	2.63
1990/1991	76	207	0	1	204	14	2.72
1991/1992	64	183	0	2	180	15	2.86
1992/1993	68	204	0	1	198	20	3
1993/1994	58	176	0	1	195	0	3.03
1994/1995	65	202	5	1	206	0	3.11
1995/1996	81	200	0	1	199	0	2.47
1996/1997	104	336	13	12	337	0	3.23
1997/1998	75	250	0	1	249	0	3.33
1998/1999	79	201	5	3	203	0	2.54
1999/2000	89	248	0	2	225	21	2.79
2000/2001	90	345	0	13	325	28	3.83
2001/2002	93	416	0	15	385	44	4.47
2002/2003	105	420	0	23	430	11	4
2003/2004	125	425	0	40	380	16	3.4
2004/2005	125	425	0	23	400	18	3.4
2005/2006	90	420	0	23	400	15	4.67
2006/2007	80	380	0	27	350	18	4.75
2007/2008	98	384	0	36	350	16	3.92
2008/2009	101	344	0	26	325	9	3.41
2009/2010	76	381	2	32	350	10	5.01
2010/2011	106	564	0	61	475	38	5.32
2011/2012	101	451	0	141	325	23	4.47
2012/2013	127	680	0	66	575	62	5.35
2013/2014 (추정)	110	595	0	51	575	31	5.41

☎ 11-2014-08

해외곡물시장 동향

2014 제3권 제8호

발 행 일 2014. 8. 25.

발 행 인 최세균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인 쇄 이호문화사
02-2274-1491~2 E-mail: iho2525@hanmail.net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